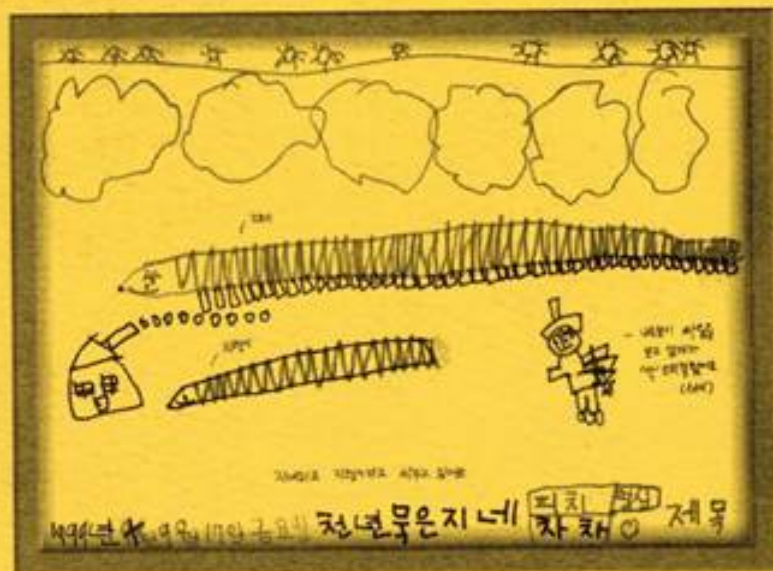


정독이

재미있는 옛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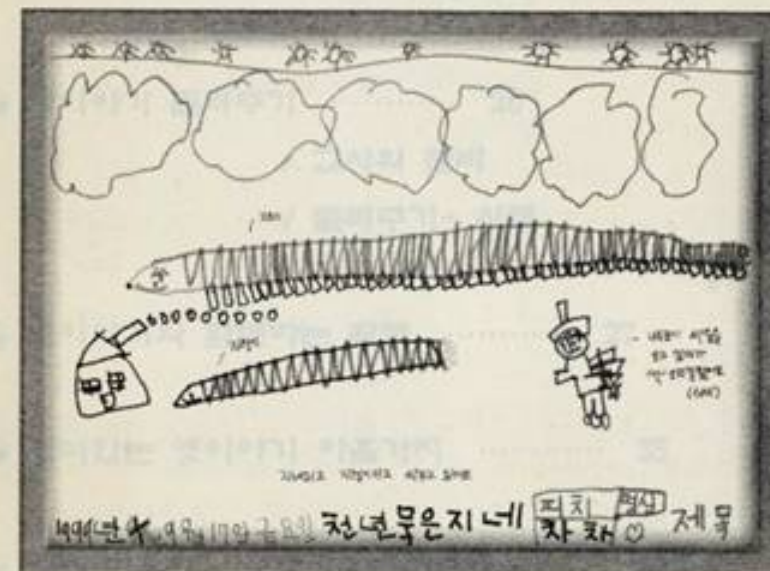
● 옛이야기 공부모임 ●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재미있는 옛이야기

● 옛이야기 공부모임 ●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 옛이야기란?	1
/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	
/ 형식으로 본 옛이야기의 중요성	
/ 옛이야기의 독특한 형식으로 살펴본 옛이야기	
● 심리학적으로 본 옛이야기	7
/ 옛이야기의 심리학적 해석	
/ 동화의 나라에서...	
● 옛이야기 들려주기	20
/ 교사의 준비	
/ 들려주기- 사례	
● 옛이야기와 함께하는 활동	27
● 재미있는 옛이야기 아홉가지	35
● 동네방네 옛이야기 다섯가지	67
● 유럽의 옛이야기 네편	84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

옛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이다. 언제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게 그저 옛날 사람들 사이에 전해진 이야기이다. 전해들은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해진다.

“말”로 전달된다는 옛이야기의 전달 방식은 옛이야기의 가치와 형식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고리이다. 내용 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만이 살아남는다. 구전(口傳)이기에 듣는 사람이 재미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값진 이야기만이 대대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된다. 또 형식면에서 보면, 글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전할 수 있게 이야기의 형식이 만들어진다. 기억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이야기의 형식도 독특한 형식을 갖게 된다.

여기서는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옛이야기에 대한 상식을 넓히고자 한다. 옛이야기가 가진 가치, 어우러지는 이야기 문화, 이야기 형식에 대해 살펴보자.

1. 옛이야기가 담고 있는 가치

옛날 아이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글자가 없던 시대에 말을 통해 남자 어른들이 들려주는 무용담, 할머니들이 집안에서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들으며 꿈과 희망을 가졌다. 옛이야기가 전달하는 가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누구나 즐기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했던 것이다. 다수의 민중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민중들의 삶에 희망을 준 이야기가 옛이야기이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권력층이나 괴물들을 물리치는 이야기, 착하고 가난하고 설움 받던 민중이 끝에 복을 받는 이야기, 민중이 주인 되는 이야기, 어렵고 고통받는 현실을 뛰어넘는 풍자와 해학이 담겨 있는 이야기 등 여러 방면의 이야기가 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마음껏 상상하고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고 주인공과 넓은 세상을 구경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 많은 현대인

들이 옛이야기에 대해 심드렁해하는 것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단순한 주제에 대한 거부감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얼마나 정의가 실현되고 선이 악을 이기는가? 어른이라면 현실에 대한 깊은 환멸과 무력감이 있을 것이다. 옛이야기는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준다. 악을 이기고, 악을 물리침으로써 이야기가 끝나지, 어정쩡한 화해는 없다. 이것을 통해 아이들은 참된 진리를 배우고 가장 기본적인 도덕기준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삶의 자양분이 된다.

옛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사랑받은 이유 중 하나는 억눌린 악자에 대한 옛이야기의 따뜻한 시선 때문이다. 이런 악한 존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고 모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이야기는 가장 악한 존재인 아이들에게 인생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부딪치는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것이 옛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이다. 다른 측면에서 연구한 옛이야기의 심리학적 해석을 보더라도 현실에서 닥치는 심리적 위기를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고 해소하고, 배설해냄으로써 아이의 성장을 돕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옛이야기는 민족의 사상과 감정, 생활상이 나타나있다. 우리 아이들은 옛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 각 지방마다의 문화 특색을 은연중에 배우면서 '민족성'을 배워나간다. 또한 옛이야기는 그 민족의 언어의 맛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학이다. 아이들이 말과 고유언어를 배우는데 옛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

2. 어우러지는 이야기 문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문자라는 것이 생기고 기계가 발달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전달해주는 수단은 과거 몇 십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해 왔다. 매체의 발달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오락기 등 소위 문명의 이기라는 것들은 어른들 뿐 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 인간간의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적인 기계의 전달이라는 닫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가족끼리 친구끼리의 대화가 없는 그런 생활 환경이 제공되고 요즘 아이들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일 게다.

여기서 옛이야기가 주는 이야기문화는 시사점을 준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러하셨듯이 옛이야기라는 것은 '일방적인' 활동이 아니다. 옛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하나의 이야기 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옛이야기는 들려주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끊임없는 눈빛 이야기와 호흡을 통해 때로는 듣는 사람이 말에 끼여드는 것까지도 용납하면서 이야기는 이어진다. 듣는 이의 눈빛과 이야기의 몰입 등을 고려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도 상황에 따라, 들려주는 이에 따라, 듣는 이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며 옛이야기는 이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신명나는 판을 함께 만들었다, 부수었다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요즘과 같이 고립적이고 기계중심의 생활양식에서 꼭 필요한 문화이다.

형식으로 본 옛이야기의 중요성

고리키는 "우수한 민화나 전래동화 속에는 민족의 사상과 감정이 일관되어 있고 우리들 조상들의 아름다운 말이 넘쳐흐른다. 또한 위대한 예술적인 방법이 밑바닥을 꿰뚫고 있다."라고 했다. 삶의 본질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형식을 통해 예술성을 갖게 되는 것일까?

<유럽의 민화>에서 분석하는 옛이야기의 형식

• 일차원성 - 옛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말하는 동물, 도깨비, 괴물 등을 만나도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으며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즉 일상적 세계와 유령이나 요정, 용궁 등 초월적인 세계가 옛이야기에서는 같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서로 접해 있으며 스스럼없이 서로 어울린다. 이는 많은 옛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깊은 산속 도깨비를 만난 사람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평면성 - 옛이야기는 공간적, 시간적 깊이 그리고 정신적 깊이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종이 인형처럼 그 평면인 모양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은 육체적 고통도 없으며 감정

의 세계도 갖지 않는다. 내면의 세계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사건으로 나타난다. 서로 다른 몇 가지 행동의 가능성은 서로 다른 몇몇 도형적인 등장인물들에게 분배되고 정신적인 거리감은 지리적인 거리감으로 서술된다. 이 모든 것은 한 줄로 죽 늘어서 한 평면 위에 서술된다. 예를 들면 룡취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선함의 상징으로 팔취가 악함의 상징으로 인간이 가진 몇 가지 행동의 가능성을 나누어 가진 것이다. 팔취가 맞지 않는 신을 신기위해 자기 발을 잘라버리는 것도 옛이야기가 가진 평면성의 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추상성 - 옛이야기는 고도로 추상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소재, 나오는 사람, 줄거리, 사건들이 추상적인 양식으로 되어 있다. 딱 맞아떨어지는 선물과 시점(그 때 마침), 등장인물의 성품이 묘사되지 않고 성격을 떼어 줄거리에 갖다 붙여 성품을 사건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 고정된 공식 사용하는 것(숫자 1, 2, 3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묘사, 옛날에 그리고 잘 살았대 등) 정해진 법칙대로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복잡한 묘사 대신 단순하게 가리키기만 하는 것 등은 모두 추상적인 양식에 속한다.

* 고립성 - 도형적인 인물들은 내면세계도 주변환경도 없으며 선대나 후대와의 관계도 없고, 시대와의 관계도 갖지 않고 있다.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옛이야기는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들도 고립되어 있다. 그래서 인물은 배우지도 않고 경험을 쌓지 않으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도 이전의 사건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각각의 요소와 인물, 사건은 내적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손쉽게 결합할 수 있다. 물론 꼭 결합해야하는 까닭도 없다. 각각은 이야기 줄거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옛이야기는 모든 요소와 인물, 사건은 동일한 차원에서 고립된 채 추상적인 양식으로 한 평면 위에서 투영된다. 이야기는 고립된 사건들로 이루어지며 고립된 사건은 추상적인 양식에 의해 자유로이 배열되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옛이야기의 독특한 형식으로 살펴본 옛이야기

<중국 임금에 된 머슴>

주인이 열심히 일하는 머슴을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자 머슴은 “나 나간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 난다”라고 말이 헛 나갔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사또에게 고하고 사또는 임금에게 고하고, 이 소문은 금새 퍼져 중국임금에게 까지 전해졌다. 중국 임금 앞에 불려나간 머슴은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산꼭대기에 죽을 각오로 올라간다. 산 속을 돌아다니던 머슴은 토끼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옷과 부채를 구하고 이 옷과 부채 덕으로 중국임금이 된다.

말을 하는 토끼와 이를 보고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다음 행동으로 옮겨가는 머슴은 토끼의 본질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사건 전말에 관심을 갖는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같은 차원에서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옛이야기의 일차원성을 보여준다.

옛이야기가 갖는 특성인 평면성은 머슴의 자질이나 감정이 이야기 줄거리에 드러나는 부분과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네가 정말 난단 말이나?”라는 주인과 사또와 임금과 중국 임금의 질문에 “예, 날다 뿐입니까?” “00가 날아가라고 해도 날지 말지 한데 00가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못 날지요”라고 위기를 모면해 간다. 이 사건들로 머슴의 재치와 대담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머슴은 토끼의 싸움을 통해 토끼가 가진 옷과 부채를 얻음으로 과제를 해결하게 된다. 옛이야기는 주인공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어떤 특정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은 사람의 지혜와 상관없이 우연한 행운으로 얻어진다. 여기서도 머슴은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우연한 행운으로 과제를 해결한다. 머슴은 내적 깊이를 갖지 않는 그림도형으로 내면세계를 사건으로 평면에 투영하여 보여주고 외적 요인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옛이야기의 추상적인 양식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머슴과 주인과 사또, 두 임금에 대한 설명도 없으며 산에 대한 묘사도 없다. 사건의 전개상 필요에 의해 간단히 언급될 뿐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머슴은 죽기를 각오한 바로 그때 그 상황과 사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행운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토끼의 싸움과 옷과 부채이다. 이외에 추상적 양식을 사건과 말의 반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인과의 상황이 사또, 임금, 중국 임금과 대면했을 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며, “네가 정

말 난단 말이나?” “예, 날다 뿐입니까?” “OO가 날아가라고 해도 날지 말지 한데 OO가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못 날지요”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8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은 고립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머슴이 중국임금이 되는 결론에 내적 필연성을 갖는다.

<콩쥐팍쥐>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콩쥐 팍쥐 이야기이다. 콩쥐와 팍쥐는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을 둘이 나뉘 가짐으로서 선, 악의 모습을 단순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정확한 대립을 보여줌으로써 주제를 정확히 전달해준다. 그러나 여기서 보고자 하는 평민사 한국구전설화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아는 콩쥐팍쥐가 전달해주지 못하는 재미를 보여준다. 우리가 보통 아는 이야기의 시작과 분석한 평민사의 콩중이팍중이 시작은 다르다. 평민사의 책은 옛이야기가 가진 본래 형식을 깨지 않았다. 첫 시작에 콩쥐의 아름다움이나 착한 마음을 그대로 말로 이야기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즉, 여러 가지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콩쥐의 부지런한 성품과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며, 팍쥐는 암소의 뒷구멍에 두 손을 넣는 욕심과 콩쥐가 가져온 먹을 것을 빼앗음으로 악함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팍쥐가 암소에게 혼나고 온 장면에서 듣는 아이들은 크게 웃고 콩쥐가 복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반복의 재미를 평민사의 책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팍쥐가 콩쥐의 먹을 것을 빼앗는 장면이나, 콩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 팍쥐가 원님에게 하는 거짓말 세 번은 이야기의 재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옛이야기는 즐거리만을 편집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고스란히 옛이야기의 형식을 이해할 때만이 즐거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며,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그 이야기가 주는 주제와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어른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보물을 주는 것이다.

옛이야기의 심리학적 해석

옛이야기의 매력은 프로이트 심리학을 바탕으로 옛이야기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옛이야기의 가치를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많은 옛이야기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동서양 사람모두에게 익히 알려진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은 저자 서문 중에서 밝힌 옛이야기의 의미와 본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본 것이다.

[옛이야기의 매력] - 시공사

<들어가는 글>

나는 어린이들이 어떤 체험을 통해 자기 삶의 의미를, 더 나아가 보편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지 알아내고자 하였다. 부모와 보호자의 영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유산으로, 그것은 어린이에게 올바른 삶의 태도를 전달한다. 어린이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적 유산은 역시 문학이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어린이들의 심성이나 인격을 계발시킬 의도로 만든 많은 문학작품들에 대해 매우 불만스럽다. 요즘의 문학작품들이 어린이의 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적 자질들을 자극하고 북돋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용 책들은 의미보다는 읽는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리고 소위 “어린이책”들은 흥미와 정보를 주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책들은 대체로 내용이 가벼우며 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읽기 능력을 포함한 어휘력을 습득하였다 하더라도, 읽은 내용이 어린이의 삶에 별로 의미를 보탬 바 없다면 그 책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옛이야기와 삶의 어려움>

....어른들에게든 아이에게든 무의식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 무의식을 억압하고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출구를 막아 놓으면, 나중에는 의식까지도 이런 무의식적인 억압이

과생시킨 영향에 부분적으로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무의식을 강제로 억제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성격이 심하게 비틀어지게 된다. 그러나 무의식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의식의 층으로 떠오르도록 허용이 되고 상상 속에서라도 작동을 할 수 있으면, 무의식이 자신에게나 남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든다. 오히려 무의식적 욕망이 긍정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린이를 혼란시키는 그런 힘들로부터 어린이를 떼어놓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즉 어린이들은 형제 없고 이름 모를 불안, 혼돈, 분노, 심지어는 폭력적인 환상까지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 어린이들의 주의를 돌려놓아야만 한다고 믿는다. 오로지 실제로 의식되는 현실이나 즐겁고 소망스런 이미지들과 같은 사물의 밝은 면만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로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편식은 마음의 한쪽 면만 살찌우게 된다.....

인간에게는 어두운 면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낙관론만을 어린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문화적 관습이 된다. 정신분석 자체도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다. 정신분석은 삶의 부정적 본질 때문에 사람들이 과멸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삶의 부정적 본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창시되었다.

Sigmund Freud의 처방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를 압도하는 듯 보이는 것들에 용감하게 대항함으로써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 바로 이점이 옛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전달하는 메시지다. 삶의 가혹한 어려움에 대처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존재의 본질적 측면이다. 그러나 소심하게 피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곤경이나 부당한 어려움에 대항해 싸우다 보면 어느새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여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메시지가 모든 옛이야기에 들어 있다.

(저자는 자신이 소개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과 함께 읽어야 원본의 문학적 특성과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본의 이해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뒤 '재미있는 옛이야기' 편에 아래 소개하는 몇 가지 옛이야기의 내용을 현대 지성사 [그림형제 옛이야기]를 참고로 내용을 실었다.)

동화의 나라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

* 아기 돼지 삼형제는 쾌락의 원칙을 따를 것인가 현실의 원칙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삼형제의 과제 초가집에서 나무집, 벽돌집에의 변화는 인간의 성장과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패한 초가집과 나무집은 쾌락의 원칙, 벽돌집은 현실의 원칙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늑대의 의미는 자신을 지키고 자아의 힘으로 물리쳐야 하는 이기적이고 무의식적인 자기 파괴적 힘을 상징하고 있다.

* 아기 돼지 삼형제와 개미와 배짱이(옛이야기와 우화의 비교)

우화는 다소 흥미를 주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흔히 도덕적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옛이야기에 비해 숨겨진 의미나 상상력 자극 요소가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개미와 배짱이는 도덕적 우화보다 아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다.

배짱이와 아기돼지들 모두 놀기를 좋아하고 미래에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동물 모두 아이들의 동일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기 돼지 삼형제와 동일시한 어린이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 하나하나와 동일시 해가면서 희망을 얻고, 힘센 적과도 대항하며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배짱이와 동일시한 어린이는 "양자택일적 상황"에서 비참한 결말을 맛보게 된다. 그래서 우화속 배짱이는 여름날 인생을 즐기는 것이 나쁜 일인 듯 가르치게되고 상대적으로 개미라는 동정심 없는 비열한 인격의 소유자를 아이들의 모범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는 말형 돼지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늑대의 사악한 계획을 좌절시키고 현실원칙과 그에 따른 실체, 행동의 가치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형이 동생들 보다 우월하다는 점은 세 마리 돼지가 어린이 자신처럼 어리고, 미숙하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는데 즉 세 마리 아기돼지는 각각 인간의 발달단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야기를 듣는 어린이들은 그들 중 하나와 차례차례 동일시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점차 높은 수준으로 나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 우화속의 배짱이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죽어야 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의감에 위배되나 옛이야기 속의 늑대가 마지막에 벌을 받는 것은 아이들에게 무척 만족스런 결과로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어린이는 야기돼지 삼형제(옛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성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 내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린이는 진정한 성숙으로 유도될 수 있는 것이다.

<헨젤과 그레텔> -구순기의 욕구-

헨젤과 그레텔은 가난과 빈곤이라는 사실적인 사건에서 출발한다. 가난과 빈곤은 인간의 인격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을 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타인의 고통을 간과함으로써 악한 행동에 빠지기 쉽게 만든다.

어린이들에게서의 어머니는 음식의 제공자로 표상 되기 때문에 굶주림이라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존재 즉 황야에 버려지는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어머니다. 어머니가 더이상 구순요구에 응하지 않음에도 부모의 필요를 필사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버려진 뒤에도 돌아오려고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성공적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유는 인생문제의 해결능력을 퇴행과(길을 발견하는 문제 해결수단으로써 음식만을 생각한 것으로 자신의 창의력과 올바른 사고력을 상당부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부정을 통해 감소시키는 것은 결과를 나쁘게 만든다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헨젤과 그레텔은 음식(생명노선)이라는 성장발달 초기 상태에 고착된 채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제한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숲속 마녀의 빵으로 만든 집의 케이크와 지붕과 설탕 창문을 먹어치우는 행동은 안전을 위해 음식에의 의존이 실패로 끝나자 좌절하여 구순적 퇴행이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먹어 치울 수 있는 것으로 만든 집은 실제로 자신의 몸에 자양분을 주는 어머니를 상징한다. 즉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주는 어머니로서 어떤 제한을 가할 때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발견하고 싶은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헨젤과 그레텔은 구순의 만족 속에서 천국에 있는 것 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퇴행은 구순욕구의 파괴적인 측면 - 마녀로 나타나는데 아이들을 억으로 잡아 먹으려했던 마녀의 처벌은 어린이와 본능적 욕망을 더 잘 억제할 수 있는 어른과의 척도에서 비교해볼 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마녀의 악은 어린이들의 무절제한 식욕과 의존심이 위험하다는 것을 강제로 깨닫게 하는 수단인 것이다. 그로써 아이들은 목표를 정하고 계략으로써 마녀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다.

* 부모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vs 마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실제로 전체적인 하나의 경험에서부터 분리된 양상일 뿐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즉, 처음에 마녀가 만족스런 어머니의 유형이었다가 악한 존재로 변화하듯 오이디푸스적 발달단계에서 어머니가 더이상 무조건적으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당황하게 되고 이야기 속의 마녀처럼 어머니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깊은 숲속의 마녀의 집은 무의식에서 볼 때 만족, 좌절을 함께 주는 부모의 집의 두 측면이다.

* 강을 건너는 의미 - 돌아가는 길에 강을 건너다는 것은 전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독교에서 드높은 존재로 가는 단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또한 강을 건널 때 오누이가 오리를 한번에 함께 탈 수 없는 것도 다른 사람과 더 이상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마녀의 집에서 가져온 보물의 의미 - 좋은것을 부모로부터 가져가기를 기대하기보다 기여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 의미로서 어린이들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의 독립성이며, 숲에서 돌아오려 할 때 수동적의존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자기신뢰다. 따라서 이야기속의 보물은 경제적 삶의 방식의 바뀔이 아닌 보물이 가진 상징성만을 강조한다.

* 여성의 모습 - 두형제의 합심에 의해서 서로를 구하려고 힘을 뭉친 노력때문에 성공한 이야기다. 계모와 마녀같은 해로운 힘을 행사하는 것이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결정적 문제해결자로서의 그레텔의 중요성 또한 이야기 속에 그려져 있다. 이것은 여성이 파괴자이자 구조자일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고 헨젤과 그레텔이 서로를 한번씩 구했다는 것은 성장과정속에서 어린이들은 자기 또래에 더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헨젤과 그레텔은 그 이야기가 비록 허구일지라도 어린이가 직접 그것을 탐색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가 말해주는 여러 가지 위험뿐 아니라 어린이의 상상속 두려움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고 있다.

<빨간 모자>

* 빨간 모자는 사춘기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다. 자신의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아직 여기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빨간모자> 속에서 표현되는 남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늑대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난폭하며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경향의 본능을 가진 유형이라 할 수 있고 둘째, 사냥꾼의 모습은 사회성 있고 보호하는 유형이다.

빨간 모자는 남자의 인간성의 두 측면을 경험하여 남성의 모순되는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늑대는 남성 유혹자만은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반사회적, 동물적 경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쾌락을 쫓는 오이디푸스적인 어린이로 돌아간 빨간 모자의 시련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비난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할머니

“할머니는 손녀딸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안달하곤 하였습니다” 할머니(어머니)는 어린 소녀에게 자신을 보호할 모방 모델이 되어야 함에도 너무 잘해주어 더 큰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위험에 처하게되는 또하나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이다.

* ‘빨간모자’가 갖는 의미

- 빨간색은 난폭한 감정, 성적인 감정을 많이 나타내는 색이다. 할머니에게 받았다는 것은 할머니가 성적인 매력을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전이시킨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할머니는 남성에게 매력적이기를 포기하고 손녀에게 빨간 모자를 줌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전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빨간 모자의 위험은 싹트기 시작하는 성욕

미성숙한 성욕은 퇴행적 경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때는 퇴행하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이다.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빨간 모자는 그런 이유로 늑대에게 할머니의 집을 가르쳐 주는 이중적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 빨간 모자는 어떤 욕망을 가진 소녀인가?

초기 오이디푸스적 그리움이 사춘기에 재개 되면서 아버지를 그리려는 마음, 유혹당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 이때 어머니를 때어놓으려는 욕망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몹시 혼나야 마땅하다고 느낀다. 또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늑대가 소녀와 잠자리를 같이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녀를 잡아먹지 않았다는 관점이다. 즉 둘사이의 성적인 만남이 “잡아먹는” 존재로서의 소녀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성적인 욕망과 파괴적인 합착성은 어린이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보통 어린이들은 성적 행위가 한쪽 상대자가 다른 상대에게 저지른 난폭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

* 늑대와 사냥꾼

사냥꾼은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는 존재로서 바로 늑대를 쫓아 죽이기 보다는 가위로 배를 갈라 할머니와 빨간 모자를 구출한다. 이로써 선한자를 구하고 악한자를 처벌하는 사냥꾼은 아이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된다.

- 사냥꾼이 늑대의 배를 가르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임신과 출산의 개념이 암시되는데 거기서 성관계의 연상이 어린이의 무의식에 환기되어 태아 또한 엄마가 무엇인가를 삼켜(이야기속의 늑대처럼) 생길수 있다고 결정지어 버릴 수도 있다.

* 언급되지 않은 빨간모자의 아버지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이런 종류의 옛이야기에서는 특이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숨겨진 형태로 존재함을 암시하는데 어린이는 끊임없이 위험속에서 구원자로서의 아버지를 기대한다. 따라서 빨간모자에서는 오이디푸스적인 감정에 휩싸인 늑대와 어린이를 보호, 구출하는 사냥꾼이라는 두가지 대립되는 형태의 아버지 모습이 표출되는 것이다.

빨간모자가 돌맹이를 던지고 제안하여 늑대를 죽인 것은 결국 유혹자를 스스로 제거 함으로써 연약함을 극복한 것이고 앞으로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게 된 것이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단순히 늑대가 배를 가른 것으로(제왕절개)죽었다면 어린이들은 엄마 몸에서 나온 어린이가 엄마를 죽일수 있다는 두려움

을 느낄 것이나 후에 넣은 돌맹이로 죽었다면 그런 고민의 근거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다시 살아난 빨간 모자의 의미

아이들은 늑대에게 삼켜진 빨간모자가 '죽음'이 아닌 이야기의 필요한 부분임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뱃속에서 나왔을 때 유혹당한 빨간모자는 이미 죽었고 그 소녀는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임을 이해한다. 결국 한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서 변모가 가능하다는 것을 옛이야기로서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악한 계모가 착한 엄마로 변모)

빨간모자에서는 인간의 열정, 구순적 탐욕, 반항, 사춘기 성적욕망을 이야기 한다. 이야기속에서는 늑대의 배를 가르고 돌을 넣어 파멸시키는 일을 포함함과 더불어 세상이 장미빛이라고 보여주지 않는다. 결말에서도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데 늑대는 죽고, 사냥꾼은 가족을 벗겨 집으로 오고 할머니는 빨간모자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빨간모자는 교훈을 얻는다. 이런 과정속에서 여기에는 어떤 사회의 요구 방식을 강요하는 어른은 없다. 즉 빨간 모자의 경험이 스스로를 이런 과정속에서 변화 시킨 것 뿐이다.

<신데렐라>

1) 신데렐라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이야기다. 자매간의 경쟁심리, 소원성취, 보잘 것 없던 인물의 신분상승, 누더기로 가려진 진가의 인정, 권선징악 등이 곧바로 펼쳐진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 줄거리 밑에는 복잡하고 대부분 무의식적인 내용이 숨어있다.

- 잿더미 속(재투성이 소녀) - 형제들에 비해 비천함을 상징
- 이복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이유 - 친형제 사이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증오심을 설명하고 수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 신데렐라의 뚝은 언니들에게 돌아가고,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하는 신데렐라의 모습 - 형제간의 경쟁에서 아이가 느끼는 방식이며, 신데렐라의 에피소드는 아이를 압도하면서도 애매하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에게 구체적인 형상을 부여하는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 신데렐라의 승리 - 경쟁의식에 압도되어 있는 아이에게 현재의 상심한 마음을 이해한다는 이성적인 설명은 위안이 되지 못한다. 주관적인 판단

에 근거한 아이의 사고로는 자신도 언젠가 형들처럼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 위안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형제들을 지배한다는 멋진 환상이다. 그래서 신데렐라는 형제간의 경쟁의식으로 피로워 할 때 경험하는 극단적인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한다.

2) 형제간의 경쟁의식이 신데렐라 이야기의 표면적인 원인이라면 무의식 영역에 속하는 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야기 속의 이러한 세부장치들이 우리의 무의식적 연상에 적절한 암시를 준다.

(1) 이야기에 내재되어 있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의 관련성

• 어린이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형제간 경쟁심리로 인해 피로워하며 또 낮은 위치에서 벗어나 자기보다 우월하던 형제를 능가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신데렐라>는 여자 어린이 못지 않게 남자 어린이에게도 강한 호소력을 지닌 이야기다. 그러나 이야기에서 경쟁심리 이면의 오이디푸스적인 배경의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형제간 경쟁심리는 겉으로 드러났던 속으로 감추었던 간에, 삶의 성장과정에서 형제애만큼이나 중요하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형제애와는 달리, 형제간의 경쟁심리는 정서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요소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살면서 겪게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제간의 경쟁의식의 근원은 부모에 대한 아이의 감정이다. 형이나 언니가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면 그것은 일시적인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다른 형제가 부모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면, 부모가 자기를 무시하거나 거부할까봐 두려워하는 어린이에게는 커다란 모욕이 된다. 따라서 형제간 경쟁의식에서 형제들의 능력 여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신데렐라는 아이가 전의식적 때로는 의식적으로도 이야기속에 담겨진 '진실'을 알고 있어 표현할 수 있으나 알고 있다는 것을 숨기려하는 부류의 이야기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높은 지위에 오를 가치가 있다고 아이도 생각하며, 모든 사람이 신데렐라의 순진함을 믿는 것이 아이들은 기쁘다. 이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의 아이 자신도 나쁜 마음을 돌리고 싶지 않는 마음과 동일한 것이다.

• 계모와 언니들의 심술 - 아이의 경쟁의식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다. 그런 심술에 비하면 나의 생각은 별거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분노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된다.

* 신데렐라의 절망적 처지에 공감하는 이유 - 오이디푸스적 실망을 경험하면 이것을 계기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심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부모의 비판과 실망에 대해 아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설명은 자신에게 분명히 뭔가 심각한 결점이 있으며, 그것 때문에 거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이디푸스적 질투를 느끼고 있을 때 아이는 동성부모를 제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런 일로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것은 아마 그 욕구가 나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 이렇게 되면 이제는 자신이 형제들보다 사랑 받는다는 확신을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어쩌면 형제들은 자신과 같은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아이는 객관적 지식없이 더 많은 비판적 태도에 노출되는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만 나쁜 생각을 하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을 잿더미 속에 버려진 신데렐라와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다.

* 아이가 부모로부터 거부된다는 생각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불신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책감이나 불안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이러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식적, 무의식적 보장도 필요하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신데렐라가 곤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녀의 노력과 인간성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데렐라에는 아이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죄책감의 원인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신데렐라 이야기 속의 각요소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난롯가 - 난로의 수호자는 그리이스 신화에서 높은 지위를 상징한다. 난로는 아이에게 안락한 장소를 의미하고 더러워 지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의 마음과 통한다. 또한 재는 애통의 상징으로 신데렐라의 어머니의 죽음을 의미한다.

② 잿더미 속의 생활 - 형제간의 경쟁의식에 고민하는 시기 어린이의 내적 고통과 상실감, 결핍을 상징

③ 아버지의 선물 - 아버지와 딸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 모자에 걸린 나뭇가지는 아버지 권위의 축소와 어머니로의 전이를 의미하고 신데렐라의 삶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정서적 중요성의 감소는 왕자를 향한 성숙한 사랑으로 가기 위한 통로를 준비한다.

④ 나무 - 유아기의 이상화된 어머니에 관한 기억

⑤ 이복 언니들이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 -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세계의 무언가에 집착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줌. 신데렐라처럼 자기 자신에 충실하는 것만이 성공하는 길.

⑥ 나뭇가지에서 자란 나무 - 친어머니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다른 것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성장의 이미지)

⑦ 왕자를 만나러 세 번 무도회에 가서 매번 도망쳐 나와 비천한 위치로 되돌아 오는 이유 - 이렇게 세 번 반복되는 행위는 부모에 대한 아이의 위치를 반영한다. 처음에는 세 사람 가운데 자기가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가 나중에는 가장 미미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경험함으로써 진정한 자아에 도달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참된 자아란 단순히 세 번의 반복에 의해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반복에 의해 도달되는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신발이 발에 딱 맞는 것)

* 표면적인 차원 - 신데렐라가 화려한 외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실제 모습에 의해 선택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 심층적 차원 - 인간적으로나 성적으로 자신을 말기고 싶어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하기에 두려운 양면성을 상징한다. 왕자 또한 신데렐라가 정서적으로 오이디푸스적인 관계로 아버지에 매여 있는 한 신데렐라를 차지할 수 없음을 알 듯이 스스로 신데렐라를 추적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⑧ 작고 아름다운 덧신(신발)의 의미 - 남녀 모두에게 거세불안과 남근선망의 상징이다. 언니들은 자신의 발에 맞게 하기 위해 자신들의 발의 일부를 잘라낸다. 그에 따른 출혈은 미성숙함을 상징한다. 대조적으로 무의식 속에서는 월경을 하지 않은 여성이 더 순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신데렐라의 순결성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또한 왕자가 신겨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신발에 발을 집어 넣음으로써 신데렐라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는 주도권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⑨ 왕자는 잿투성이 차림의 신데렐라를 맞아드림 - 더럽고 비천한 그녀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

3) 신데렐라를 좋아하는 아이는 거의 언제나 한 두가지 표면적 의미에만 주로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자기 이해를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 순간들 속에서 자신에게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아이들의 무의식은 <신데렐라>의 주요 세부 사항에서 숨겨진 어떤 의미를 찾아

낸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아이의 관계에서 볼 때 신데렐라는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다른 잘 알려진 전래동화가 잘 표현하지 못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 계모가 의붓언니에게는 잘 하는 것 - 아이를 미성숙의 단계로 만든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모는 어느 순간에 본래의 선한 부모와 잔인하고 무분별한 요구를 반복하는 의붓부모가 될 시기가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자아 정체성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둘다 필요하다.

* 신데렐라 이야기와 에릭슨이 단계별 심리 사회적 위기와 비교

- ① 기본적 신뢰 - 신데렐라의 좋은 어머니와의 경험에 의해 생김
- ② 자율성 - 신데렐라가 주어진 여러가지 역할을 받아들이고 수행
- ③ 주도성 - 신데렐라가 나뭇가지를 심고 그녀의 감정, 눈물, 기도로 그것을 키우고 계발
- ④ 근면성 -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함
- ⑤ 정체성 - 무도회에서 집으로 옴. 왕자가 꾸미기 전의 진짜 '재투성'이 신데렐라라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 신부로 받아들여기를 고집

* 신데렐라는 아이를 가장 큰 실망, 오이디푸스적 환멸, 거세불안, 남이 자신을 천하게 생각한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생긴 열등감으로부터 자율성, 근면, 긍정적 정체감의 획득으로 이끈다. 그런데 그녀는 왕자를 사랑하는가? 이 대답은 이야기 어디에도 없다. 아이에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경험이 필요한가?

(편집자의 말 : 아마도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옛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겠지요? [옛이야기의 매력]을 참고해서 알아보시다!!)

<옛이야기의 동물 신랑 이야기들> - 성숙을 위한 노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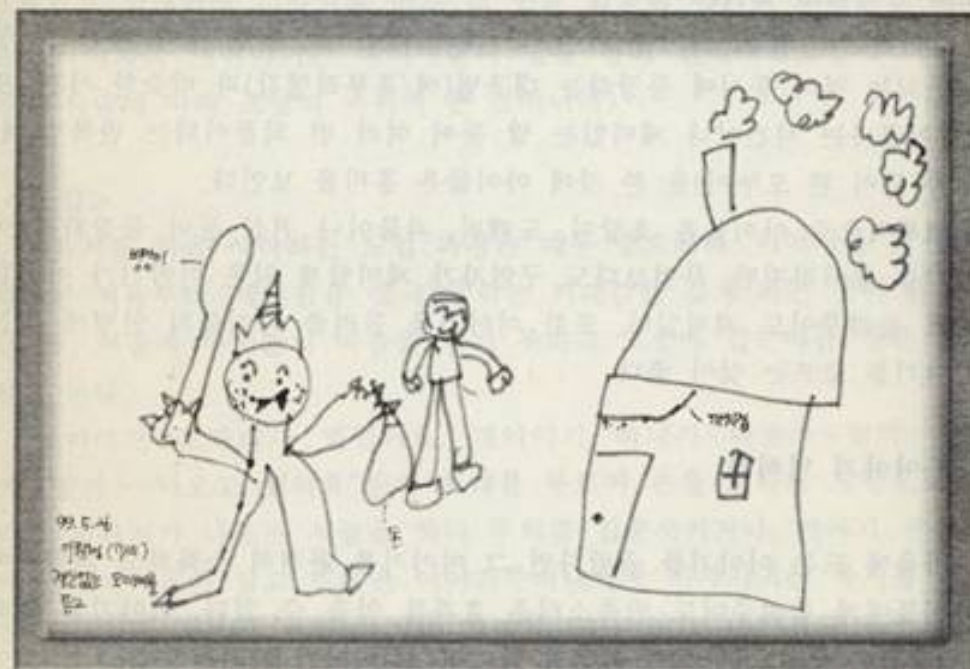
* 백설공주, 잠자는 숲 속의 미녀, 신데렐라 어디에도 여주인공이 사랑에 빠졌다는 말은 없다. 첫눈에 반했다는 것에 별 신뢰가 없다. 대신 어떤 왕자에 의해 깨어나거나 선택되기 것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두는 것 같다.

* 구출자는 여주인공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데, 이 아름다움은 그녀의 완벽함의 상징이다. 구출자는 사랑에 빠져 능동적이 되며, 그들이 사랑하는 여성만큼 자신들이 가치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은 여주인공이 사랑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위에 나열한 이야기들은 자아를 획득하고 통합을 달성하며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수행해야 함을 널리 알린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역경을 겪고 위험에 부딪혀 승리해야만 한다. 이런 방법으로만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주인공과 여주인공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처음엔 순진하고 미숙했던 자가 그 끝에 가서는 처음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존재의 더 상위 단계에 도달하는 입회 의식에 비유될 수 있다. 진정한 자신이 됨으로써 남녀 주인공들은 사랑받을만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아 발달 과정으로는 불충분하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립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주인공이 그의 배우자와 결합하는 옛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은 이 점을 종종 이야기한다. (타인과의 친밀한 연대를 확립하고 싶으면 어린이에 같은 태도를 버리고 성숙한 태도를 획득하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옛이야기는 아이가 그의 나이와 발달 과정의 이해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성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옛이야기 재미있게 들려주기

1. 교사의 준비

아이들이 옛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은 첫째, 재미있는 이야기를 고르고 둘째, 그 이야기를 익히며 셋째, 재미있게 들려주는 것이다.

1) 재미있는 이야기 고르기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가진 이야기라도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은 잘 듣지 않는다. 재미가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교적 단순한 줄거리와 소수의 등장 인물(등장 인물이 너무 많으면 주인공과 다른 등장 인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이야기의 중심을 잡지 못할 수 있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단조롭지 않도록 적당한 변화가 따라야 한다.

또, 선인과 악인, 강자와 약자, 큰 것과 작은 것, 느린 것과 빠른 것 등 상반되는 것이 동시에 등장하는 대조법(예/혹부리영감)과 비슷한 사건, 또는 어긋나는 사건이나 재미있는 말 등이 여러 번 되풀이되는 반복법(예/해와 달이 된 오누이)을 쓴 것에 아이들은 흥미를 보인다.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호랑이, 도깨비, 괴물이나 귀신 등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연자가 재미있게 읽은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들려주어도 재미있다. 또한 이야기를 들려줄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이야기를 고르는 것이 좋다.

2) 이야기 익히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골랐다면 그 이야기를 완전히 소화하고 파악해야 아이들에게 들려주어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야기를 익히는 방법은 우선 반복해서 여러번 읽어서 그 이야기 줄거리를 외우는 것이다. 처음이어서 어렵다면 이야기의 주인공, 핵심이 되는 사건 등에 밑줄을 긋고 밑줄에 유념하며 소리내어 읽어본다. 특히 이야기의 기승전결은 정

확하게 알아야 한다.

여러번 읽어서 이야기 내용이 외워지면 아이들 앞에서 하듯이 책을 보지 않고 이야기해 본다.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도 여러번 반복하다보면 입말이 살아나고 이야기가 점점 재밌어질 것이다. 이때, 녹음기를 준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한 다음 들어보는 것도 좋다. 그럼 어디가 듣기에 재미있는지, 약한지 파악이 되고 어디부분을 보강할지 알게 된다. 이야기의 중요한 대목, 요점들을 종이에 적어두고 나중에 이야기를 기억할 때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3) 재미있게 들려주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재미있게, 듣는 사람도 재미있게, 모두가 재미있기 위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자심감이 중요하다. 자심감은 이야기를 잘 알고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나온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의 중요내용(기승전결)을 한번 되짚어보자.(살짝 컨닝을 해도 좋다.)

또,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생각이 잘 나지 않아도 당황하거나 우물쭈물하지 말고(교사가 당황하면 아이들의 주의를 금세 흐트러진다) 기억나는 부분으로 건너뛰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배포와 약간의 뻘뻘함도 필요하다. (어차피 옛이야기는 여러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내려오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 온 것이니까)

<도입>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도입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를 잘 듣게 하려면 처음부터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처음에 아이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도중에 잡는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든다.

"옛이야기 보따리가 열렸어요. 옛이야기 하나가 나올까~말까~나올까~말까~ 나오고 있어요"등의 노래를 부르며 손을 보따리 모양으로 벌리고 이야기가 나오는 시늉을 하며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이야기 귀신'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알고 있다면 이야기주머니에서 이야기귀신 쪽지를 꺼내왔다고 하며 제목이 적힌 쪽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야기와 관련된 노래(호랑이이야기-'호랑장군' 도깨비이야기-'산도깨비' 팔죽할멈과 호랑이-'동지팔죽' 등) 부르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

<들려주면서 살펴야 할 것>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아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조금 지루하다는 표정이면 이야기의 진행을 빠르게 하거나 몸짓 등을 하고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으면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물쭈물하지 말고 속력있게 이야기를 밀고 나가자. 너무 세밀한 묘사나 아름다운 수식어, 지나친 설명은 필요없다. 빠른 전개가 좋다.

이야기는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간접화법이 아닌 직접화법을 사용한다. '...하고 말했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등의 간접화법은 재미가 없다. 등장인물의 성별, 나이나 성격, 감정에 따라 목소리를 바꿔서 이야기해야 더 자연스럽고 생기가 있다. 또한 길고 복잡한 문장은 피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발랄하고 활동적인 말을 쓰자.

지나치게 과장된 목소리는 듣는 아이들이 도리어 편하지가 않다.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명확한 발음으로, 필요에 따라 음성의 고저, 장단의 변화를 적절하게 쓰고 강약에 대해서도 유의하자. 또, 감탄사를 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 이야기 내용에 따라 적당한 몸짓을 하거나 표정을 짓는 것도 아이들의 재미를 더해 줄 수 있는 요소이다. 너무 지나친 몸짓은 도리어 아이들을 정신없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얹은 자세에서 상체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몸짓이 좋다.

<마무리>

대부분의 옛날 이야기는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았대'로 끝난다. 이 대목이 나오기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봐도 좋다. 또 '만약 내게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요술 뱀돌이 있다면' 등의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다. 그림그리거나 나도 이야기꾼, 동극 등의 연관된 활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2. 들려주기 - 사례

<땅속나라 괴물> (4-5세 12명, 점심시간 직전)

'이야기 귀신'을 기억시키며 주머니에서 꺼내온 쪽지(제목 '땅속나라 괴물'을 적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괴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라서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보였다. 새각시가 배신하는 내용은 그다지 교육적이지 못한 것 같아 생략하고 하녀가 도와주는 것을 그냥 새각시가 도와주는 것으로 고쳐 이야기했다. 괴물이 쿵! 쿵! 다가오는 부분은 쿵!소리와

함께 발을 굴러주는 등의 약간의 몸짓(기교)이 효과적이다. 이야기를 끝내자 "신랑이랑 신부랑 결혼했어요?" "신부가 감옥에 갇혔어요?" "보물은요?" 등 질문이 많다. 보물은 어떻게 했을까 묻자 "신부 목걸이, 귀걸이, 반지 사 줬어요"라는 공주(?)들의 대답이다.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둘이 뽀뽀했냐는 아이도 있다. 아이들이 '결혼'과 '보물'에 관심이 많다.

<선녀와 나무꾼> (4-5세 12명, 낮잠시간)

교사 스스로 피곤해서 이야기가 재미없고 늘어졌다. 역시 아이들도 재미없어 하고 아는 이야기라고 시시해 한다. 또 결말이 여느 이야기처럼 잘 살았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극적인 이야기라서 더욱 시들했던 것 같다. 낮잠시간은 모두 누워서 듣기 때문에 교사도 늘어지는 경향이 있고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거나 몸짓 등의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야기 선택이 중요한 것 같고, 교사가 피곤하거나 이야기하기 지루할 때는 아이들도 역시 지루해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교사가 재미있어야 아이들도 재미 있다.

(큰반 선생님 의견/ 6-7세 이상의 큰 아이들은 재미를 느낀다. 특히 황제와의 내기판에 흥미를 보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생략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아이들 연령에 맞는 이야기를 고르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른 선생님 의견/ 5세연령으로는 어려운 내용이다. 옥황상제의 내기와 천마를 타고 땅에 내려오는 부분의 이해가 잘 안된 듯 싶었다. 우리가 알고있는 선녀와 나무꾼이야기가 아닌 서정오님의 '우리가 알아야할 옛이야기 백가지'의 내용에 준해서 말이다. 이 내용은 교사가 여러번 읽고 들려주었으나, 내용이 길어서인지 중간부분 부터는 분위기가 흐트러졌다. 내용이 긴것도 (5분을 넘는 것) 5세 아동에게는 무리인 듯 싶다.)

<반쪽이> (4-5세 오전)

"읽어줄게"하며 책을 보며 읽어주었다. 그림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즐거리를 앞서 말하기도 한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기가 어렵고, 몸짓을 못했다. 반쪽이가 정승집 식구들을 묶어서 난리가 나는 대목에서 몸짓을 결들이지 못하니 흥미도가 떨어졌다. '읽어주기'는 낮잠시간 같은 때 내용이 좀 덜 활동적인 이야기를 해줄 때 좋겠다.

<몽개 몽개 올라간다>

(4-5세 낮잠시간)

말에 대한 재미를 나타내는 이야기인데 유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다. 아직 언어가 완전하지 못한 유아들에게 동의어 등의 재미를 나타내는 동의 이야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5세 가을)

이 이야기는 5세의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제목 자체를 이해못해 ('몽개'는 사람이름) 시종일관 산만하고 재미없는 표정이 역력했다. 더불어 이야기를 진행하는 교사 자신도 재미가 없어져 이야기에 흥미를 더해줄 수 없었다. 병행할 수 있는 작업도 미술활동으로 제한적이었고, 그나마도 아이들의 그림은 이야기의 내용과 상관없는 엉뚱한 것들로 채워져있었다.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내용과 아이의 연령을 고려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 자체에 흥미를 잃고 싫어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교사가 이야기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대상 아동의 연령과 인지력을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없이 는 이야기의 들려주기가 단순히 들려주고 듣기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호랑이 잡는 망태> (4-5세 오전)

부분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림을 서로 보려고 자리다툼을 하기도 하고 그림 모양에 대한 얘기나 주문이 많다.

이 이야기는 '방아찢는 호랑이'와 더불어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이야기라서 신청을 많이 받는다. 이 얘기를 좋아하는 건 호랑이와 망태할아버지(망태를 만드는 할아버지를 우리는 그렇게 부른다)가 나오기 때문인 것 같다. 아이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도 자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다.

<불여우와 할머니> (5세 낮잠시간)

이야기 도중 여우가 해골바가지를 굶는 '바각바각'부분에서 벽을 굶어서 실감나는 음향효과(?)를 내니까 여기저기서 벽을 굶는라 야단이다. 여우가 바각바각 해골을 굶고 둔갑하는 대목에서는 흥미를 많이 보이는데 소금장수가 여우를 잡는 후반부에서는 긴장감이 덜 해서인지 흥미를 좀 덜 느끼는 듯하다.

<방아찢는 호랑이> (4-5세 낮잠시간)

제목에 이야기해주니까 "되게 웃겨요"하며 재미있겠다고 기대를 한다. 호랑이가 등장하는 대목에서 무섭다고 난리고 호랑이가 방문을 긁을 때 벽이나 책장을 긁으며 음향효과를 내주니 더욱 좋아한다. 호랑이 손에 바늘이 찔리는 대목에서 어떻게 됐을까? 하니까 호랑이 손에 피나요, 병원 가요.. 교사가 호랑이 몸짓을 흉내내며 몸동작을 할 때 더 흥미를 보인다.

<정신없는 도깨비> (5세)

새로운 친구 이름을 주인공으로 이야기해주니까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이름을 확실하게 기억한다. 또 새로운 아이도 좀 으스스대며 어색함을 잊는 것 같다. 도깨비가 이름부르는 방식(이름을 부르고 박수를 치는)을 재미있어하고 직접 함께 이름을 부르며 박수를 쳐보았다. 도깨비 방망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자기 소원(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비행기, 요술봉, 도깨비 방망이, 자동차, 인형 등 서로서로 얘기하고 싶어한다.

<이야기 귀신> (4-5세 점심시간 직전)

'귀신'이 들어가는 제목 자체에 흥미를 보인다. 귀신들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한다는 자극적(?)인 내용 때문인지 집중을 잘했는데 점심시간 손을 움직이며 히히히하는 귀신 장난하느라 밥 먹을 때 집중을 안해서 결국 밥 먹고 나서 귀신놀이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서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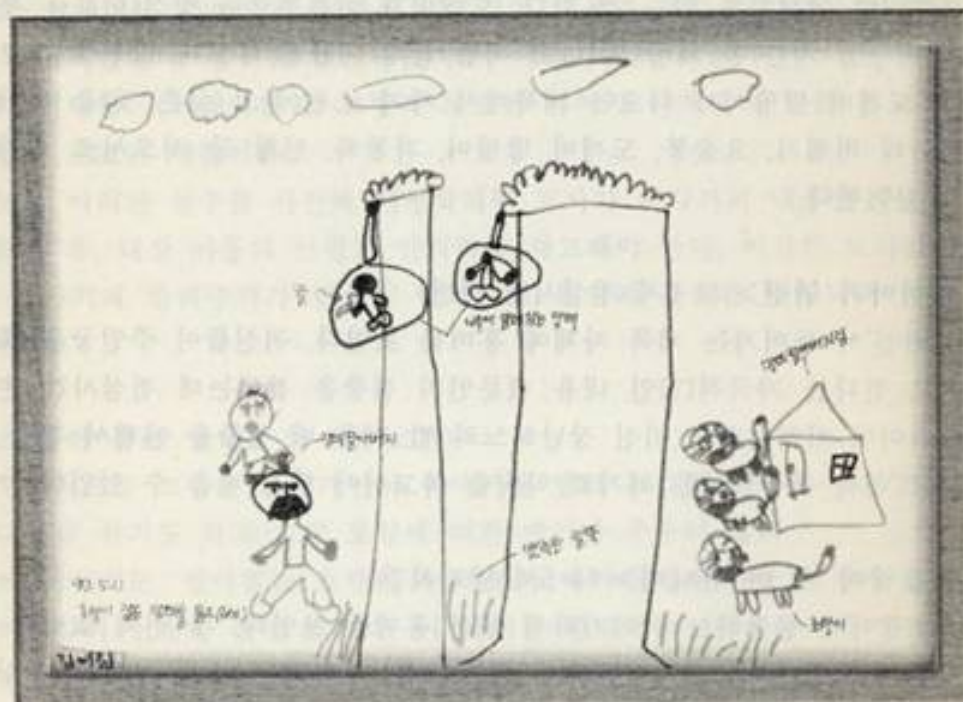
<호랑이 세 번 만나다> (4-5세 낮잠시간)

호랑이가 등장하는 이야기라서 우선 흥미를 보인다. 첫 번째 호랑이 얘기중 통구멍이 나오는 장면에서 모두 웃고 오버하는 아이도 있다. 호랑이 '어흥'소리와 잡아먹는다 등의 과격한(?) 표현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야기가 끝나고 모두 함께 '호랑장군'노래를 불렀다.

<능텅감투> (4-5세 오전)

이야기 쪽지로 이야기 시작. 무덤에서 귀신이 나오는 대목에서는 흥미를 보이는 편인데 능텅 감투를 쓰면 눈에 안보인다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감투가 뭐냐고 묻길래 옛날 사람이 쓰던 모자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자 나서기 좋아하는 아이가 "우리 집에 있다"라고 하니까 너도나도 다 우리집에 있단다.

(다른 선생님 의견/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었을 때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도 반복해서 들려주면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감투가 타고난 후 재를 바르는 대목이 어렵다면 담배불 구멍을 다른 천으로 기웠다가 들키게 되는 비슷한 이야기로 대체해서 들려주는 방법도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무덤에서 귀신들이 서로 부르는 대목이나 감투를 쓰고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는 대목을 과장해서 표현하면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어한다.)



옛이야기와 함께 하는 활동

1. <금도끼 은도끼>를 듣고 - 5세(가을)

(1) 옛이야기 듣기 - 아이들이 동극으로 옮기기에 적당한 길이로 “착한 나무꾼이 신령에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받고 행복하게 살았다.”로 이야기를 마무리 하였다.

(2) 이야기 나누기 - 동극활동으로 한다면 어떤 인물이 있어야 하며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 이야기의 내용을 기억하며 의견을 들어보았다.

(3) 미술활동 - 필요한 배경과 소품을 만들기 위해 만들고 싶은 소품별로 모둠을 나누어 소품을 만들었다.

- 배경 그리기 : 전지에 숲속 분위기의 그림을 그림.
- 도끼 만들기 : 우유팩에 신문지를 넣고 자루는 아이들이 신문지를 말아 연결, 금종이(금도끼), 은종이(은도끼), 신문지(쇠도끼)로 구분하여 만들어 봄.
- 신령옷 : 쌀자루에 목과 팔 부분으로 구멍을 내고, 허리끈을 묶어봄.
- 신령가발 : 전지를 이용하여 고깔을 접은 후 흰 종이를 길게 찢어서 고깔에 붙여 백발 머리카락을 만들고 아이들이 고깔이 계속 벗겨진다고 하여 양쪽에 끈을 달아 묶어줌.
- 연못 : 어린이집에 있는 후프에 폐비닐(예:김장용비닐)을 연결하여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도끼를 가려 숨겨 놓음.

(4) 동극하기

미술활동을 통해 소품 만들기 활동을 마치고 등장인물(나무꾼과 신령)을 정해서 2인씩 2-3회 반복해보고, 교사는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돕기 위해 해설을 맡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대사와 행동을 유도했다.

자유놀이 시간에 극 놀이 소품으로 비치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동극을 해보고 다른 놀이로의 확장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2. <흑부리 영감>을 듣고 - 5세(가을)

(1) 이야기 듣기와 연결된 새노래 배우기

산속 외딴집에서 흑부리 영감이 도깨비들을 만났을 때 불렀던 음률활동으로 계획(새노래 배우기)했던 '산도깨비' 노래를 교사가 이야기중에 불러 보았다. 이야기를 듣고 흑부리 영감의 흥겨운 노랫가락을 준비한 새노래 자료를 이용하여 장구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배워보았다.

(2) 신체활동 - 도깨비 춤추기

이야기를 듣고 산도깨비 노래를 배운 후 신체활동으로 활동을 확장시켜 보았다. 필요한 소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배운 산도깨비 노래를 북과 장구장단에 맞추어 각자 생각한 도깨비의 모습이 되어 흥겹게 도깨비 춤을 추어 보았다.

교사 : "우리가 흑부리 영감이 되어 흑부리 영감의 노랫가락에 맞춰 도깨비 춤을 추어보자. 도깨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아이들 : "방망이. 도깨비 뿔. 가면, 이빨! 아주 무서운 거..."

(3) 미술활동 - 아이들이 이야기한 소품을 함께 만들어 봄.

* 도깨비 탈 : 교사가 종이 달걀 판을 다양한 모양으로 잘라 준비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위치에 눈구멍을 뚫기도 하고 시트지나 색종이, 물감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탈을 꾸며 보았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오린 종이 가면을 만들기도 하였다.)

* 도깨비 방망이 : 신문을 주된 자료로 하여 겹쳐 말기를 반복하고 색테이프, 크레파스 등으로 꾸며 보았다.

아동 : "선생님! 방망이 삐죽삐죽한 것도 있잖아요." - 그림책에서 본 도깨비 방망이의 모습을 보고 생각한 듯하다. 그 아동의 제안으로 아이들이 빨강색 색테이프를 동그랗게 말거나 겹쳐 붙이기도 하고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방망이의 울퉁불퉁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위에 소개한 활동 1과 2는 우리나라를 주제로 활동을 진행할 때, '옛이야기'를 소주제로 다루면서 활동했던 내용들이다. 활동을 진행했던 반은 신문보기 활동의 사전 활동으로 신문지탐색 시간으로 미술활동에 특히 신문지를 많이 사용하려고하는 교사의 의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3. <며느리와 복 방귀>를 듣고 - 5세

11월 방송국 놀이의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만들기를 소주제로 다루어 보았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드라마' 의견이 있었고, 그 중 옛날 사람들이 나오는 극 놀이로써 사극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야기를 선정한 이유는 아이들이 가볍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항상 방귀, 똥 등의 단어에 너무나 재미있어 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났고, [웅진. 나를발견하는 책, "방귀 뿌우웅"] 을 그 즈음에 듣고 더 관심이 많아진 시기였다.

(1) 이야기 나누기

이야기를 듣고 등장인물에 대해 기억해보고 필요한 물품에 대해 이야기하여 보았다. "절구, 방망이, 말" 정도를 이야기 할 수 있었다.

(2) 미술활동

* 배경1 : 숲 단지, 문고리, 집의 기둥 등 이야기 속의 내용이 실감나도록 소품들 대부분이 그림에 나오도록 준비.(실제 활동에서는 다른 동극배경에 사용한 것을 대신 이용함.)

* 배경 2 : 감나무가 있는 언덕.

절구 - 어린이 집에 있는 토분을 이용.

절구 공이 - 신문을 세로로 길게 말고 가운데를 테이프로 말아 훌쭉하게 만들어봄.

감 만들기 - 신문을 적당히 찢어 아이들이 동그랗게 뭉친 후, 흰색 한지나 창호지를 이용해서 신문지 위에 겹쳐 붙여 형태를 만든다. 풀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동안 말렸다가 포스터 칼라를 이용해 색을 칠해주고 교사는 실을 길게 이어서 완성. (배경이되는 나무에 매달기위해)

말 -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용 말을 이용.

(3) 의상의 준비

아이들의 집에서 남자, 여자 전통한복을 준비해서 입었다.

(4) 동극하기

방송국 놀이의 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캠코더를 이용해 보조교사가 촬영

을 하거나 카메라 고정대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카메라로 우리가 찍히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주로 자유놀이 시간을 이용.

(6세 이상은 카메라 고정대가 있으면 간단한 조작법을 익혀 촬영이 가능하다. 아이들이 직접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배경 1,2를 공간의 차이로 붙여두고 비단 장수는 배경2의 앞에 위치. 첫 번째는 연출자를 교사가 맡아 다른 동극때처럼 해설과 전체적인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만들었던 감들은 배경을 붙인 뒤에 한 아동이 숨어 길게 연결한 실을 잡고있다가 머느리의 방귀소리에 흔들리다 바닥에 떨어뜨리는 부분을 도와주었다.

(참고 -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역할을 정할 때 하려고 나선 아이가 없었다. 말을 타고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서로 하겠다고 난리였었지만.....)

(5) 우리도 텔레비전에 나와요!

캠코더로 활동을 녹화한 후 다함께 자유놀이 활동을 마치고 녹화내용을 즐겁게 보면서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4. <능통감투>를 들고 - 5세(겨울)

(1) 이야기 들려주기

2-3번에 걸쳐 들려 주었으며, 이야기의 주제인 '감투'를 이해 못해 그림을 그려서 알려준 뒤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2) 이야기 나누기

아이들에게 감투, 재, 제관등의 말들이 어려웠는지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못해 여러번에 걸쳐 예를들어가며 이해를 도왔다.

(3) 미술활동 (이야기 듣기의 사후 작업으로 도화지와 싸인펜 사용.)

그림을 그리면서 다소의 창작(?)이 가미되어 새로운 이야기가 재화되었다.

예) 재를 바른 후 제사음식을 훔쳐먹던 사람이 벌거벗은 모습을 들키자 손으로 고추를 가린 후, 도망가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죽었다.

(4) 마무리

그림은 솜씨판에 붙여놓아 다른 연령의 아이들도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였다.

5. <불여우와 할머니>를 들고 - 6,7세(겨울)

(1) 이야기 들려주기

이야기를 시작하자 몇 명의 아이들이 아는 체를 한다. 여름에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들려 주었는데, 그때 들었던 것을 잊지 않았던 모양이다. 아이들의 참견을 들어가며 끝까지 으스스한 분위기를 살려 들려주었다.

(2) 이야기 나누기

아이들의 표정이 다양하다. 해골을 뒤집어쓰고, 할머니로 변한 여우 생각으로 놀란표정. 그 여우가 총각에게 맞아 죽으니 안심하는 표정... 아이들의 관심은 꼬리 아홉달린 여우가 존재하는 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아이들 : 선생님, 그 여우 없죠. 거짓말이죠?

교 사 :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시는데 저 백두산이나 지리산 골짜기에 가면 어느 무덤뒤에 숨어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나타난다고 하던가 어쨌던가..... 알쏭 달쏭한데?

아이들 : 정말요? 너무 무섭다. 산에 가지 말자.

교 사 : 선생님이 먼저 만나고 나서 너희에게 여우이야기 해줄게.

아이들 : 네~, 그런데 조심하세요.

(3) 미술활동 (이야기 듣기의 사후 작업으로 도화지와 싸인펜 사용)

연령이 높아서인지 불여우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그림을 그리며 아이들끼리의 의성어(해골바가지 박박 긁는소리)를 사용해 킁킁대며 웃고 책상을 두드리기도 하였다.

(4) 마무리

미술활동으로 마무리를 하였으나 아이들이 자기반에 가서 꼬부랑 할머니와 여우놀이를 하였다. (6-7세이므로 의논 후 역할배분)

이야기의 내용은 변형되어 꼬부랑 할머니가 고개를 넘다가 여우를 만나 도망 다니는 것으로해서 이방 저방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뛰어놀았다.

6. <팔죽알멈과 호랑이> - 4,5세(겨울)

(1) 이야기 들려주기

동극하기에 적당하도록 다듬어서 일주일정도 반복하여 들려주었다.

이야기 자체가 단순하고 등장인물이 많지만 대사는 적어서 아이들이 동극하기에 적당한 내용이다.

(2) 이야기 나누기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들을 얘기해보자. 호랑이,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밤물, 쇠똥, 자라, 지게, 땃돌, 멍석(아이들이 멍석을 잘 몰랐는지 돗자리라고 말했는데 옛날에 돗자리처럼 쓰던 것을 멍석이라고 설명함), 물(호랑이를 강물에 풍덩 빠트리려는 결말을 생각해서 물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 같다)등을 이야기함.

(3) 나도 이야기꾼

원하는 아이들이 직접 앞에 나와서 '팔죽알멈과 호랑이'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었다. 직접 이야기해보고 반복해서 듣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4) 노래 배우기

이야기의 분위기에 맞는 '동지팔죽'노래를 배워서 불러보았다. 나중에 동극공연을 할 때 부르기로 함.

(5) 미술활동

* 이야기 듣고 그림그리기 : 옛이야기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미술활동이다. 등장 인물들을 모두 그리는 아이도 있고, 자기가 맡은 배역만 그리는 아이(밤물을 맡은 아이가 밤물만 다섯 개 나열해 그림)도 있다. 이 그림들 중에서 재미있는 그림들을 골라두었다가 나중에 동극 포스터를 만들어서 어린이집 각 방에 붙였다. (포스터는 다른반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에게 호응이 좋았다)

* 호랑이탈 만들기 : 등장인물중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호랑이'를 꼽아서 호랑이탈을 만들기로 했다.

- 그림책, CD-i 등에서 호랑이를 찾아보기

(특히 얼굴, 눈, 이빨, 줄무늬 등을 주의깊게 살펴본다.)

→ 호랑이얼굴 그리기/ 호랑이 얼굴을 그리기로 했는데 아이들은 호랑이 몸까지 전부 그리고 싶어했다. 실감나는 호랑이를 그린 아이도 있고 전혀 안무서운 귀여운(?) 호랑이를 그린 아이도 있다.

→ 호랑이탈 만들기/ 노란색 타올을 호랑이 가죽으로 하고 싸인펜,칼라펜으로 얼굴을 꾸며준다. 종이가 아닌 타올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살짝 번지는 효과가 있어서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또 좀 더 실감나 보이는 소재인데, 공작용 고무판을 얼굴모양으로 오리고 그 위에 타올을 씌우는 작업이 아이들이 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6) 동극준비

자기가 하고 싶은 배역을 고르도록 하고 교사가 조정해서 배역을 정했다.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머니와 호랑이는 각 1명씩 했지만 나머지 다른 배역(밤물, 쇠똥, 멍석, 지게, 자라)은 아이들 수에 맞춰 2-3명으로 정함.

교사가 해설자가 되어 지문 및 이야기를 해주고 각 등장인물이 나오는 대목의 대사는 각자 맡은 아이들이 직접 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반복했다. 아이들이 대사에 익숙해질 무렵부터는 직접 몸으로 하고 싶어해서 실제 동극을 하는 것처럼 몸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를 했다. 특이한 동작으로 등장하고 호랑이를 혼내주는 것을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어해서 몇번씩 계속하고 싶어했지만 하루에 1-2번만 하기로 약속하고 1주일정도를 진행함.

(7) 의상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각자의 의상을 집에서 엄마와 함께 만들어 오기.

교사가 재료와 본 등을 구해서 집으로 보내주고 엄마들이 재봉틀이나 손바느질을 해서 의상을 만들어주었다.

(8) 동극발표

포스터를 이용해서 다른반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초대하였다.

아궁이, 물항아리 등의 배경을 꾸며주고 각자 준비해온 의상을 입는다.

동극을 준비할 때 연습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고 (실제 공연인만큼 초대관객에 대한 예의로 무대에서는 장난치지 않기로 약속) 동극을 한 후 동지팔죽 노래를 불렀다.

주방아춤마에게 부탁해서 이날의 간식은 팔죽을 먹었는데 아이들이 이야기와 연관시키며 재미있어하고(막상 먹는 것은 시들했지만) 그후 일주

일이 넘도록 이야기할 정도로 인상깊은 하루였던 것 같다.

동극때 사용했던 의상들을 역할 놀이방에 놓아주어 아이들이 다른 역할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7. 나도 이야기꾼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 한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해서 다시 들려주어도 좋다.

<호랑이 잡는 망태>

-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을 풀어보면

- * 5세 女/ 높은산 → 망태할아버지 → 말뚝 → 껌껌한 밤 → 호랑이(번쩍 눈)로 이어지는 이야기. 호랑이가 망태를 잡아먹으려다 말뚝에 찢려 죽었다는 기본 스토리를 잘 기억함.
- * 5세 女/ 옛날 옛날에.. 로 시작해서 이야기 서두는 상당히 정확하게 이야기 함. 첫번째 호랑이 뛰는 대목에서 둘째 욕심쟁이 이야기로 넘어가버린다. 찢려 뛰어서 죽었다고 끝남.
- * 5세 男/ 서두는 잘 기억하지만 중간부분은 흐릿하다. 밤이 되어 호랑이가 찢려 뛰는 장면을 잘 이야기하고 부자가 뵈어요.. 로 끝.
- * 5세 女/ 망태 할아버지, 뽕죽한데, 묶어줬는데, 호랑이 등 인상적인 단어를 '그런데'와 함께 반복하다가 "망태 할아버지는 안 하고 호랑이만 예뻐했는데 호랑이가 망태할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할아버지가 망태하고 묶었어요..."로 끝.

교사가 들려줄 때 힘을 주었던 부분(재미있게 표현했던 대목)을 잘 기억하고 표현한다. 아이들에 따라서 거의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있고 나름대로 창작(?)하는 아이도 있다. 아이들이 이야기 어떤 부분을 인상적으로 기억하는지 알 수 있고 교사가 아닌 또래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있다.

도깨비가 준 보물

옛날 어느 곳에 좀 어수룩하고 모자라는 총각이 살았어. 나이 스물이 넘도록 공과 보리를 못 가리고, 하나에 둘 더하는 셈도 못할 만큼 둔했지. 마음쓰는 품이야 나무랄 데 없지만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나. 총각 부모는 자식때문에 걱정이 늘어졌어.

"저 아이가 세상 물정을 저러 모르니 우리가 죽고 나면 혼자서 어떻게 살지 걱정이지."

"그러게나 말이오. 사람은 바깥으로 돌수록 개인다 하니 세상 구경이나 하게 집에서 내보내시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아들을 내보냈어. 총각은 괴나리봇짐을 짊어지고 집을 떠났어. 얼마만큼 가다가 산 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잘 곳을 찾아보니 마침 다 쓰러져 가는 빈집이 있었지. 그래 거기에서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 이놈의 집이 도깨비 집이야. 험상궂게 생긴 암도깨비가 턱 나와서,

"히히히, 잘 만났다. 나와 함께 일 년만 살자."

하는데, 뭐 안 살 재간이 있어야지. 도깨비하고 같이 살았어. 일년이 지나니까 도깨비가 보자기를 하나 주면서,

"이 보자기를 펴 놓고 손뼉을 치면 쌀이 생기지."

하거든. 그래서 보자기를 죽 펴 놓고 손뼉을 짹짹 쳤더니 아닌게 아니라 하얀 입쌀이 보자기에 하나 가득 생기더래. 그 보자기를 가지고 집에 갔지. 집에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었어. 주막에 들어서 주막 주인에게 보자기를 맡기면서,

"절대로 이 보자기를 펴 놓고 손뼉을 치면 안돼요."

했잖나. 그러니 주인이 왜 그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밤중에 보자기를 펴 놓고 손뼉을 짹짹 쳤지. 그랬더니 쌀이 수북이 생기거든. 주인이 그만 욕심이 나서 보자기를 슬쩍 감춰 두고 그 이튿날 다른 보자기를 내줬어.

총각은 그것도 모르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쌀 나오는 보자기를 얻어 왔어요."

하면서 보자기를 펴 놓고 손뼉을 짹짹 쳤지. 그런데 나오긴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아들을 야단치지.

"내가 일 년 동안 세상 구경을 하고도 아직 사리본별을 못 하는구나. 도로 나가서 더 배우고 오너라."

그래서 총각은 할 수 없이 또 집을 나갔어. 나가고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 또 도깨비 집을 찾았지.

"보자기를 잃어버렸다고? 그럼 나하고 일 년만 더 살자."

그래서 도깨비하고 일 년을 더 살았지. 일 년이 지나니까 도깨비가 말 한 마리를 주면서,

"이 말 궁둥이를 때리면 금돈이 나오지."

하거든. 말 궁둥이를 딱 때려 보니 참말로 금돈이 하나 톱 떨어져. 또 때리니 또 나와. 때릴 때마다 금돈이 하나씩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을 끌고 집에 갔지.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들었어. 주인에게 말을 맡기면서,

"이 말 궁둥이를 절대로 때리지 말아요."

했지.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 있나. 밤중에 몰래 말 궁둥이를 때려 보니 금돈이 톱 떨어지거든. 그만 욕심이 나서 그 말을 감춰 두고 그 이튿날 다른 말을 내줬어.

총각은 그것도 모르고 집에 돌아가서 자람을 했지.

"어머니, 아버지, 이것 보세요. 금돈을 내는 말을 얻어 왔어요."

하거든. 말 궁둥이를 딱 때려 보니 톱 나오거나 하나, 아무것도 안 나오지. 자꾸자꾸 때렸더니 떨어진다든 게 톱당어리만 톱 떨어진단 말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또 땅이 개져라 한숨을 쉬면서 아단을 쳐.

"내가 아직도 나아진 게 없구나. 도로 나가거라."

하는 수 없이 또 집을 나갔지.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도깨비한테 갔어.

"그럼 나하고 일 년만 더 살자."

또 일 년 살았지. 일 년이 지나니까 도깨비가 방망이를 하나 주면서,

"이 방망이를 보고 '때려라' 하면 방망이가 사람을 때리지."

하거든. 그 방망이를 얻어서 집에 갔지.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들었어. 주막 주인에게 방망이를 맡기면서,

"이 방망이더러 '때려라' 하면 큰입나요?"

했지. 주막 주인이 두 번이나 재미를 봤으니 이번에도 좋은 게 나올 줄 알고 밤중에 방망이를 내놓고 '때려라' 했지. 그랬더니 방망이가 벌떡 일어나 주인을 마구 두들겨판단 말이야. 아파서 도망가면 쫓아와서 때리고, 또 도망가면 쫓아와서 때리고, 이러니 건달 수가 있나. 주인이 총각 자는 방에 들어가서 싹싹 비는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소. 접때 흥진 보자기도 내놓고 말도 내놓으매니 제발 살려 주오."

이래서 보자기와 말을 도로 찾았지. 보자기와 말을 찾아 가지고 집에 가니, 그제야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 철 다 들었다고 반겨 주더라. 그러나저러나 총각 집에서는 그 뒤로 보자기와 말 덕분에 잘 살았는데, 보자기는 하도 쪼다 쪼다 하는 바람에 망가져서 못 쓰게 되고, 말은 하도 궁둥이를 때려서 죽어 버렸단나. 그러니 도로아미타불이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 현암사)

호랑이 잡는 망태

옛날에 어떤 총각이 부모도 없이 혼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논밭 한 토막 없이 남의 땅을 부쳐 먹고 살았어. 제 땅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관가에 이것 저것 떼이고 나면 먹고 살기 빠듯한데 한자 남의 땅을 부쳐 먹으니 뭐 남는 게 있나. 입에 풀칠하기 바쁘지. 그렇게 몇 해 고생을 하다가 보니 농사 짓는게 진절머리가 나.

"에이, 이려고 사느니 자라려 떠돌이 보짐장사나 하고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집을 나섰어. 그런데 막상 나서 보니 갈 곳이 있어야지. 여태 땅만 파던 농사꾼이 장사 내막을 알 수 있나. 그래서 무작정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 몇 톱 안되는 노자마저 바닥이 나서 참 처량한 신세가 됐어.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하루는 산 속에서 날이 저물었어. 이리저리 싹 곳을 찾다보니 마침 그 깊은 산중에도 불이 밝한 집이 있더라. 거기 주인을 찾으니 허연 노인이 문을 열고 내다보겠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 허락을 하기에 들어갔어.

방에 들어가 보니 노인이 집으로 망태를 만들고 있어. 사람 하나 들어가면 딱 맞을 만한 망태를 만들고 있더라. 그건 뭐하러 만드느냐고 물어 보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은 수가 생기지."

이러거든. 그 말에 총각이 귀가 솔깃해졌어. 먹고 살기 어렵기로 치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말이 정말이라면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물었지. 노인은

"그래도 좋겠지"

하더니 어느새 망태를 다 만들었는지 안에 들어가 보라고 하네. 들어갔지. 그랬더니 노인은 다짜고짜 망태 주둥이를 꼭 묶어서 총각을 꼼짝 못 하게 해 놓고는, 그 놈의 망태를 장대에 꿰어 메고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더라. 말이야.

"아, 할아버지,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노인은 그 말에 대답도 않고 칠곡같은 밤길을 나는 듯이 걸어서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네. 한참 들어가더니 큰 나무 밑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는 망태를 나뭇가지에 톱 걸어 놓더라. 말이야. 그러더니 나무 밑에 말뚝을 여러 개 박아 놓고는 두 말 안고 오던 길을 되짚어 가버리지 뭐야. 총각은 그만 겁이 덜컥 났지.

"아이고, 할아버지, 이 산중에 나 혼자 버려 두고 가시면 어찌란 말입니까?"

그래도 노인은 쏘다 달다 말도 없이 휘휘 가버리네. 혼자 남은 총각은 망태 속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 그런데 이게 무슨 놈의 날벼락이야? 조금 있으니까 사방에서 시퍼런 불빛이 번쩍번쩍하더니 호랑이 수십 마리가 숲을 다가오지 뭐야.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죽기를 각오하고 있으니 호랑이란 놈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팔짝팔짝 뛰는데, 망태가 어지간히 높은 데 매달려 있어서 미처 당지를 앓아. 당지 앓으니 호랑이들이 도로 밑으로 떨어지지. 떨어지면서 말뚝에 찔려 툭툭 나자빠지더라 말이야.

‘오라, 노인이 나를 미끼로 써서 호랑이를 잡으려는 게책이었군.’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되는 호랑이들이 팔짝팔짝 뛰다가 죄다 말뚝에 찔려 나자빠졌어. 그렇게 말뚝에 찔려 죽은 호랑이가 밤새 몇 마리가 되는지 몰라. 나무 밑이 온통 호랑이로 즐비해.

날이 밝으니가 노인이 와서 망태를 끌러 주고는.

“자, 이 호랑이들을 우리 둘이서 나누어 갖도록 하지. 이만하면 가족만 빚겨 팔아도 앞으로 몇 해 동안 먹고 살 게야.”
해서 호랑이들을 둘이서 나누어 가졌지. 총각은 그 호랑이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 황재한 거지.

그런데 다른 총각이 그 소문을 듣고 저도 호랑이 미끼가 되어 돈을 벌어 보리라 하고 노인을 찾아갔어. 가 보니 과연 노인이 망태를 만들고 있거든.

“오늘 밤에는 나를 그 망태에 넣어 주시오.”

하니 노인이 그러라고 하면서 망태에 넣어 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가서 나무에 매달아 놓았던 말이야.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 호랑이들이 수십 마리 몰려와서 팔짝팔짝 뛰다가 떨어져 죄다 말뚝에 찔려 죽었지. 그런데 이 총각은 욕심이 많았던가.

‘노인이 오면 호랑이를 나누어 갖자고 할 터이니 노인이 오기 전에 나 혼자 다 가지고 뒤흔 게 상책이려다.’

하고는 미리 숨겨 가지고 간 칼로 망태를 찢고 내려왔어. 그런데 망태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말뚝에 찔려 죽었다나. 그러니까 호랑이 팔자나 똑같이 된 셈이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 현암사)

방아찢는 호랑이

옛날 옛적 갓날 갓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막까지 말할 적에, 어느 두메 산골 외딴집에 젊은 내외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살았지.

하루는 내외가 산 너머 전적집에 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가느라고 집을 비우게 되었어. 어린 아이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걸, 만길 가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잘 구슬려서 떼어 놓았던 말이야.

“이따가 올 때 떡이야 고기야 많이 가져올 테니 이 감자나 구워 먹고 놀아라.”

이러고 감자를 한 소쿠리 내주면서 아이들을 달래 놓고 갔어.

아이들끼리 화롯불에 감자를 구워 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이 때 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기적어기적 내려왔구나.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서 말이야. 이 호랑이가 이 집에 슬슬 기어들어와서 문틈으로 방 안을 바깥히 들여다보니까, 아이들 둘이서 화롯불에 감자를 구워 먹고 있거든.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되었다. 저 감자도 빼앗아 먹고 아이들도 잡아먹으면 좀 좋은 냐.’

호랑이가 입맛을 썹썹 다시면서 문으로 들어가려고 앞발을 내밀어 문고리를 잡아당겼어. 그런데 문고리가 안 잡히는 바람에 애꿎은 문살만 번번 긁었지. 오누이가 방 안에서 놀다 보니, 밖에서 문살 긁는 소리가 ‘드드드 드드드’ 나거든. 놀라서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집채만한 호랑이가 문으로 들어오려고 그런단 말이야.

“에그머니, 호랑이다.”

누이동생이 무서워서 발을 동동 굴르니까, 오라비가 열린 반질그리에서 바늘을 한 움큼 꺼내 가지고 창호지에다 콧콕 찌러 놔. 호랑이가 또다시 문을 열려고 앞발로 문살을 긁으니까, 창호지에 박힌 바늘이 발바닥을 콧콕 찌르거든.

“어이쿠, 따가워.”

호랑이가 기겁을 하고 물러났지. 그러고는 이제 문으로는 못 들어가겠으니가 다른 곳으로 들어갈 데를 찾는 거야. 빙빙 돌아다니다 보니 바깥 아궁이가 눈에 띄거든. 그 아궁이로 쏙 들어갔어. 아궁이 속에서 구들장을 뚫고 들어가려는 거지.

오누이는 바깥이 한참 동안 조용하니까 어떻게 됐나 하고 또 문 틈으로 내다봤지. 내다보니까 호랑이가 바깥 아궁이에 몸을 들어밀고 꼬리만 달랑달랑하거든.

“에그머니, 호랑이가 아궁이로 들어온다.”

누이가 무서워서 벌벌 떨니까, 오라비가 열린 뒷문을 열고 나가 젖은 짚단에 불을 붙여서 굴뚝에다 집어 넣었지. 젖은 짚단에 불이 붙었으니 연기가 사방팔방에 진동을 하지. 그래 놓고 다시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있었단 말이야.

호랑이란 놈이 아궁이로 들어가서 구들장을 뚫으려고 웅을 쓰는데, 굴뚝 쪽에서 매캐한 연기가

사정없이 밀어다치거든.

“어이쿠, 숨막혀.”

매운 연기가 방고때 속을 가득 메우니 견딜 수가 있나. 얼른 밖으로 나올 수밖에.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두 번씩이나 당한 호랑이가 화가 잔뜩 나서 다른 곳으로 들어갈 데를 찾아 빙빙 돌더니, 금세 이번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네. 지붕을 뚫고 내려가려고 말이야.

오노이는 바깥이 또 조용해서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호랑이가 안 보이거든. 이제 살았나 보다 하고 한숨을 쉬는데, 지붕이 왈칵달칵해. 그러더니 천장에 구멍이 뚫 뚫리면서 호랑이 다리가 쏙 내려와, 호랑이가 지붕에 구멍을 뚫어 놓고 한쪽 발을 디디려고 밭으로 내리는 거지.

“에그머니, 호랑이가 지붕에서 내려오네.”

오노이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부둥켜안고 발만 동동 굴렀어. 그러다 보니 아까 구워 먹던 감자가 아직도 화롯불에 남아 있는게 보이거든. 새까맣게 구워진 감자를 얼른 호랑이 밥 밑에 갖다 댔어. 호랑이가 한쪽 발은 지붕에 두고 한쪽 발을 뻗어서 적 디디니까 뜨거운 감자가 빨간단 말이야.

“어이쿠, 뜨거워.”

감짝 놀라서 발을 들어올렸어. 조금 있다가 또 발을 내리니까 아직도 뜨겁지. 또 냉큼 들어 올렸어. 조금 있다가 또 발을 내리고, 뜨거우니까 또 올리고. 이렇게 천장에서 한쪽 발을 올렸 다 내렸 다 하고만 있는 거지. 그걸 보니까 꼭 절구공이로 절구방아를 찧는 것 같은 말이야. 오노이는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재미있어서 깔깔 웃어댔어.

“에그에그, 우스워라, 호랑이가 방아를 찧네.”

“잘 됐다. 애야, 엄마가 방아 찧으려고 놓아 둔 좁쌀 좀 내와.”

누이동생이 좁쌀을 바가지로 퍼 오니까, 그걸 화롯불에 뜨겁게 달구어서 호랑이 밥 밑에 갖다 댔어. 호랑이는 밭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발을 내려 보니까 또 뜨겁거든. 그러니까 발을 또 들어올렸지. 내렸다가 뜨거우니까 또 들어올리고. 이렇게 자꾸만 발을 올렸 다 내렸 다 하지. 그 바람에 좁쌀이 아주 잘 찧어진단 말이야. 오노이는 재미있어서 깔깔 웃어 대면서 하루 종일 호랑이 방아로 좁쌀을 아주 잘 찧었어.

저녁이 되어서 내외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지붕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지쳐서 축 늘어져 있거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방아를 찧어 대서 힘이 다 빠졌지 뭐야. 그래서 십사리 끌어내려 잡았어.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좁쌀 닳 말은 모두 잘 찧어 났거든.

“애들아, 무슨 재주로 이 많은 좁쌀을 다 찧어 났니?”

“호랑이 발이 오르락내리락해서 그걸 절구공이 삼아 찧었지요.”

호랑이 잡고 좁쌀 잘 찧고, 아주 황재를 한 거지 뭐야. 하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 현암사)

중국임금이 된 머슴

머슴이 임금 된 이야기 하나 하지. 옛날에 남의 집 머슴 사는 총각이 살았거든. 이 총각이 일을 잘 해서 농사를 다락같이 지어 났는데, 주인이 애썼다는 말 한마디 않고 밤낮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을 하지 뭐야.

“너 밥을 그렇게 많이 먹다가 우리 집 살림 다 들어먹겠다.”

이러면서 먹던 밥까지 빼앗아 간단 말이야. 총각이 화가 나지 안 나겠어.

“에라, 이 집 나가서 딴 데 가서 머슴 살고 말지.”

생각하고는,

“나 나간다. 나 나간다.”

한다는 것이 말이 새서,

“나 난다. 나 난다.”

이러거든. 주인이 들어보니, 난데없이 난다네. 하늘로 훨훨 나는 줄 알고,

“아, 이놈아, 내가 정말 난단 말이나?”

하고 물으니까, 총각이 슬그머니 장난끼가 돌았어. 그래서,

“아, 내가 날지요.”

“어디 그럼 날아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고을 사또가 날아라고 해도 날지 말지 한데, 영감님이 날아란다고 날겠어요? 원 별소리를 다 하세요.”

했거든. 이 영감이 그 소리를 듣고는 당장 사또에게 달려가서 고해 바쳤네. 우리 집 머슴사는 농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또가 영을 내려서 이 머슴을 잡아갔어. 데려다 놓고,

“내가 정말 나노나?”

하니까, 이 머슴은 이제 장난질에 이골이 났네. 큰 소리를 쳐,

“에, 납니다.”

“어디 한 번 날아 보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라에 임금님이 날아라고 해도 날지 말지 한데, 사또님이 날아란다고 날겠습니까? 안 날지요.”

이러니, 사또가 화가 나서,

“이놈을 당장 큰 칼에 씌워서 옥에 가두어라.”

하고는, 당장 나라의 임금님한테 상소를 올렸네. 우리 고을에 이러이러한 머슴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임금님이,

"당장 불러 올려라."

해서 또 임금님 앞에 불러 갔어. 임금님이 묻기를.

"네가 정말 날 줄 아느냐?"

하니까, 이 머슴이 참 딱하게 됐거든. 이제 와서 못 난다고 하면 거짓말한 죄로 벌을 받을 것이고, 이러나저러나 벌 받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 큰 소리를 쳤어.

"에, 날다뿐입니까."

"그럼 어디 한 번 날아보아라."

하니까,

"아이고, 중국 임금이 날아라고 해도 날지 말지 한데, 임금님이 날아란다고 날겠습니까? 못 날지요."

이러고 간 큰 소리를 하네. 임금님이,

"그것 참 맹랑한 놈이로구나. 갖다 가두어라."

하고 머슴을 옥에 가두었어.

그런데,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그 소식을 중국 임금이 들었나 봐. 조선에 사신을 보내 가지고는.

"당신네 나라에 나는 사람이 있단니, 구경 좀 하게 보내주시오."

하거든. 그래서 이 머슴이 이제 중국까지 가게 됐네그려. 중국에 가니까, 조선에서 나는 사람 온다는 소문이 퍼져서 구경꾼이 온 장안에 들어차게 모였어. 모여서 머슴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희들끼리 수군대고 난리났지, 뭐. 이 머슴이 아주 거만하게 뽐을 내면서 중국 임금 앞에 딱 나갔지.

"그때, 내가 날 수 있느냐?"

이제는 뭐 어떻게 할 도리도 없게 됐으니, 또 큰 소리를 치는 거지.

"에, 잘 날지요."

"한 번 날아 봐라."

하니까,

"아이고, 그거 아무 때나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서도 때도 없이 날아요?"

했거든.

"그럼, 언제 날 수 있느냐?"

까짓것, 중국까지 왔으니 싹껏 구경이나 하고 죽자고 생각하고,

"한달 뒤에나 날지요. 그 전에는 절대 못 날아요."

"그럼, 한 달 뒤에 보자."

이러고 나왔는데, 나는 사람 왔다고 대접을 아주 잘 해줘. 잘 얻어먹고, 구경 잘 하다가 악속한 날이 되었던 말이지. 중국 임금 앞에 불러 갔어.

"오늘이 난다고 한 날이 아니냐?"

"에, 맞습니다. 이제 제가 날 때니, 저 큰 산 밑에 가서 기다려십시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날 때니까요."

그래서, 중국 임금하고 구경꾼들이 모두 산 밑에 가서 와글와글거리는데, 혼자서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떨어져 죽을 데를 찾거든. 까짓것, 떨어지는 거나 나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 하고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 어디서 말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 보니, 조그마한 토끼 두 마리가 옷과 부채를 놓고 아웅다웅하고 있거든. 가만히 보니, 무당이 굿할 때 쓰는 부채처럼 방울 달린 커다란 부채가 하나 있고, 스님이 입는 장삼처럼 소매가 넓고 길다란 옷이 한 벌 있단 말이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니?"

토끼들이 서로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늘을 나는 옷이거든요. 이 옷을 입고 부채를 펴서 슬슬 부치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건데, 이것을 내가 먼저 주었는데 재가 제 것이라고 우기잖아요."

"아네오, 내가 먼저 주었는데 재가 우기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야. 이것 참 잘 되었다 싶어서 토끼들을 잘 구슬렸어.

"얘들아, 너희들 중에서 누가 이것 갖든지 못 가진 쪽은 섭섭할 것 아니냐. 괜히 이것 때문에 싸우면 사이만 나빠질 테니, 차라리 날 다오. 그게 내 목숨 살리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토끼들이 한참 수군수군하더니 그걸 주네. 고맙다 하고서 그 옷을 입고 부채를 짝 펴서 부치니까 몸이 동동 떠올라. 한참 동동 떠서 올라가다 보니, 아자, 내려오는 방법을 안 배웠네. 밑에 가물가물하는 토끼들을 보고 큰 소리로 물었어.

"얘들아, 이거 내려갈 땐 어떻게 하는 거니?"

"부채를 한 쪽씩 접으면 돼요."

그래서 부채를 한 쪽씩 접으니까 몸이 슬슬 내려와. 그렇게 해서 중국 임금이 있는 곳에 덩실덩실 내려갔지. 중국 임금이 아주 놀라서 눈이 왕방울만해졌어. 머슴한테 묻기를

"나도 그것 입고 부채질하면 날 수 있을까?"

"그렇게지요."

"그 옷 좀 빌려 주겠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중국 임금이 옷을 입고 부채를 부쳐서 동동 떠 올라갔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서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 임금이 내려오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냥 높은 데서 동동 떠다니기만 하는 거지.

밑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임금이 안 내려오니깐, 조선에서 온 이 사람을 새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논을 해서, 이 머슴이 그만 중국 임금이 되었구나. 하늘로 올라간 현 임금은 소리개가 됐고, 그 소리개는 아직도 못 내려오고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대.

머슴이 임금 된 내력이 이렇단다.

(옛이야기 들려주기 / 보리)

땅속나라 도적 퇴치

내 오늘은 기괴한 이야기를 하나 하지. 옛날에 어떤 신랑이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가면 색시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신랑길을 차릴 것 아니야? 그렇게 신랑길을 차려 가는데, 도중에 그만 색시를 잃어버렸어. 아,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집채만한 것이 나타나서 색시를 채 가버렸다 이말이야. 색시만 채 간 게 아니고 색시 몸종까지 아주 가마째 채 갔어.

신랑길에 색시를 잃어 났으니 신랑이 분이 나지. 내 이놈을 땅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오직 을 내고 말리라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 가만히 보니까 큼직한 발자국이 한쪽으로 뚝뚝 엄 찍혀있거든. 그놈의 발자국을 따라갔지.

발자국을 따라서 한참 가다가 길가에서 돌을 쪼는 석수장이를 만났어.

“어디를 그리 바빠 가시오?”

“색시를 도둑맞아서 색시 찾으러 갑니다.”

“아, 나도 얼마 전에 마누라를 도둑맞았소. 같이 갑시다.”

그래서 석수장이를 공동무 삼아 발자국을 따라갔지. 한참 가다가 산에서 짙을 켜는 나무꾼을 만났어.

“어디를 그리 바빠 가시오?”

“색시를 도둑맞은 사람들이 색시 찾으러 갑니다.”

“아, 나도 얼마 전에 딸을 도둑맞았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도 일행이 되어 발자국을 따라갔지. 또 한참 가다가 고리백정(버들가지로 고리짜거나 킴을 만드는 장인)을 만났어.

“어디를 그리 바빠 가시오?”

“색시 도둑맞은 사람은 색시 찾으러 가고, 딸을 도둑맞은 사람은 딸 찾으러 갑니다.”

“아, 나도 얼마 전에 누이동생을 도둑맞았소. 같이 갑시다.”

이리 되어서 네 사람이 발자국을 따라갔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하염없이 가다 보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깊은 산중에 들어가게 됐는데, 발자국이 큰 바위 앞에서 뚝 끊어져.

넷이서 바위를 밀어 보고 당겨 보고 흔들어 보고, 별짓을 다 해도 끄떡을 안 해. 그래서 석수장이가 가지고 온 연장으로 바위를 쪼았어. 밤낮으로 실새없이 사흘 동안 쪼아서 그 큰 바위를 다 깨뜨렸어. 바위를 깨뜨리고 나니 땅 밑으로 시커먼 굴이 뚫려 있거든. 내려다보니 길이 안보여.

먼저 나무꾼이 산에 가서 짙을 건어다 동아줄을 꼬았어. 짙을 산더미만큼 건어다 수백 발이 나 되는 동아줄을 꼬아 늘어뜨렸는데도 바닥에 닿지를 않네. 사흘 동안 밤낮으로 동아줄을 꼬았더니 그 길이가 삼천 발이나 되었는데, 그 때서야 동아줄 길이 바닥에 닿더라 말이야.

그 다음에는 고리백정이 버드나무 가지를 깎아다 큼직한 광주리를 만들었어.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광주리를 만들어 동아줄 끝에다 매달았지.

맨 먼저 석수장이가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어. 나머지 셋이서 줄을 잡고, 만약 내려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줄을 흔들라고 그랬지. 석수장이가 줄을 타고 내려갔는데, 반도 못 가서 그만 무서워서 줄을 흔들었어. 줄을 끌어올리고 나무꾼을 내려보냈지. 나무꾼은 반쯤 내려가다가 무서워서 줄을 흔들었어. 나무꾼을 끌어올리고 고리백정을 내려보냈지. 고리백정은 반 넘어 내려가다가 더 내려가기가 무서워서 줄을 흔들었어. 고리백정을 끌어올리고, 이번에는 신랑이 줄을 타고 내려갔어.

신랑은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줄을 흔들 때까지 거기서 가만히 기다려라 고 이르고 내려갔어. 한참 동안 참 지겹도록 내려가니까 도리어 발이 땅에 닿더라 말이야. 사방을 살펴보니, 한쪽에 희미한 빛이 한 줄기 비치기에 그 빛을 따라갔지.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환한 세상이 나와. 언덕을 하나 넘으니 큰 동네가 나오는데, 온 동네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즐비하더라 말이지. 한 기와집 앞에 가 보니 대문 밖에 우물이 하나 있고, 우물 옆에는 버드나무 한 그루 있어. 신랑이 가만히 버드나무에 올라가서 동정을 살펴보고 있었지. 조금 있으니 기와집에서 웬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바로 제 색시 몸종이더라 말이지.

몸종이 물동이를 씻어 물을 하나 가득 길어 놓고 막 이려고 하는데, 신랑이 버들잎을 한 줌 주르륵 훑어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어. 몸종은 후유 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버들잎아, 지지 마라. 내가 지면 내 눈에서 눈물 진다.”

하더니 물동이의 물을 쏟아내고 다시 물을 길어 한 동이 채웠어. 그걸 막 이려고 하는데, 또 신랑이 버들잎을 한 줌 주르륵 훑어서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어. 몸종은 아까보다 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버들잎아, 지지 마라. 내가 지면 내 눈에서 눈물 진다.”

하고는 다시 물을 길어다 물동이에 하나 가득 채운단 말이야. 막 이려고 할 때 또 버들잎을 훑어서 떨어뜨렸더니, 그제야 이상한지 나무 위를 쳐다봐, 쳐다보니까 자기 아씨의 색서방이 나무 위에 떡 올라가 앉아 있거든.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색서방님 아니십니까? 여기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몸종이 반가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 신랑이 그 동안 겪은 일을 낱알이 일러 주고 나서 도둑을 잡아야겠으니 좀 도와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몸종이 하는 말이,

“여기에 사는 도적놈의 두목은 힘이 워낙 세어서 백 사람이 덤벼도 못 당합니다. 게다가 그놈은 석 달 열흘동안 밖에 나가 사람과 재물을 도둑질하고 석 달 열흘 동안은 돌아와 잠을 자는데, 바로 열흘 전에 나갔으니 석 달 뒤에나 돌아옵니다. 그러니 무슨 변을 당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십시오.”

이러거든.

“아니다. 여기까지 와서 어찌 그냥 돌아가란 말이나. 도적놈의 두목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

하면서 그놈을 죽일 계책을 낼 터이니 어서 나를 그놈의 집으로 인도하여라."

몸종을 할 수 없이 신랑을 데리고 큰 기와집으로 들어갔어. 열두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대문마다 사나운 짐승이 지키고 있다가 낯선 사람을 보면 덤벼든단 말이야. 몸종이 먹이를 구해다가 짐승들에게 던져주어, 그걸 먹을 동안에 가만히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 그놈의 집이 얼마나 큰지, 딸린 별채만 해도 수십 채더라네. 몸종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신랑을 한 별채로 데리고 가더니 문 밖에서,

"아씨, 새서방님 오셨습니다."

하겠지. 그러니까 문이 바깥에 열리면서 색시가 내다보는데, 이게 아주 도적놈의 색시가 다 되어 있더라 말이야. 신랑을 보기도 반가워하기는커녕 눈을 치떴다 내리갈았다 하면서 흘려보내니,

"별놈이 다 왔군. 애들아, 저놈을 어서 바위굴에 가두어라."

하고는 문은 광 닫아 버리지. 하인들이 달려들어 신랑을 뒷산 바위굴에 집어 넣고 돌문을 닫아버려 버리네.

색시를 찾으러 갔을 고생을 하며 예까지 왔는데 색시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보니 억장이 무너져. 이려고 있다가 도적놈의 손에 죽으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어 버릴란다 하고서 바위에 머리를 받아 죽으려고 하는데, 돌문이 스포르 열리더니 몸종이 가만히 들어와, 들어와서,

"서방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이왕에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당분간 여기 계시면서 도적놈의 두목을 죽일 힘을 기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한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도 옳은 말이거든. 이제 와서 죽고 나면 죽은 저만 억울하지. 그래서 몸종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어. 그 날부터 몸종이 삼시 세 끼 동삼 달인 물을 한 대 접씩 갖다줘. 그리고 밤이 되면 돌문을 열고 신랑을 남몰래 밖으로 데리고 나와 힘을 기르게 하는 거지.

맨 먼저 몸종이 콧마의 바윗덩이를 가리키면서,

"도적놈은 저 바위로 공기 받기를 한답니다. 그러니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기르세요."

하기에 바위를 들어보니 끔찍도 안 해. 동삼 달인 물을 먹어 가며 밤마다 바윗덩이를 들었더니, 사흘 뒤에는 들썩들썩 움직이게 되고 열흘 뒤에는 무릎까지 들어올리고 보름 뒤에는 머리 위까지 들어올리게 됐어. 그리고 한달 뒤에는 그 큰 바윗덩이로 쿵덕쿵덕 공기 받기를 하게 되었지.

그 다음에는 몸종이 산위에 높이 쌓은 삼십 층 돌탑을 가리키면서,

"도적놈은 한 번 팔짝 뛰어 저 탑 꼭대기까지 오른답니다. 그러니 서방님도 그만큼 힘을 기르세요."

하기에 뛰어 보니 겨우 한 층까지도 못 뛰어. 동삼 달인 물을 먹어 가며 밤마다 뛰어다니니, 사흘 뒤에는 삼 층까지 오르고 열흘 뒤에는 십 층까지, 보름 뒤에는 십오 층까지 오르게 됐어.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삼십 층 꼭대기까지 단번에 훌쩍 뛰어오르게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몸종이 길이가 열댓 자나 되는 무쇠칼을 가리키면서,

"저 무쇠칼은 도적놈이 쓰는 칼입니다. 저 칼을 마음대로 휘둘러 줄 수 있어야 도적놈을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기에 그 칼을 들어보니 끔찍도 안 해. 동삼 달인 물을 먹어 가며 밤마다 물을 씻더니 사흘 뒤에는 칼집에서 칼을 뽑고 열흘 뒤에는 한 손으로 들게 되고 보름 뒤에는 빙빙 돌리게 됐어.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그 큰 칼을 마음대로 휘둘러 줄 수 있게 됐지.

그러다 보니 벌써 석달이 지났지. 하루는 멀리서 우르르 우르르 하고 천둥 치는 소리가 나. 몸종에게 저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도적놈이 백 리밖에 왔다는 소리라네. 조금 있으니까 쿵쿵 쿵 하고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 저건 또 무슨 소리냐니가 도적놈이 오십리 밖에 왔다는 소리라지. 조금 있으니까 우지끈 툭툭 쿵 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나. 그건 도적놈이 십 리밖에 왔다는 소리라는군.

도디어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바람이 몰아치더니 도적놈 두목이 줄개들을 거느리고 마당 가운데 들어섰어. 색시가 벼신발로 뛰어나가 도적을 맞으면서,

"이번에는 무엇을 얼마나 훔쳐 왔습니까? 나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사람 하나 잡아 놓았지요."

하고 아양을 떠단 말이야.

"대제 뭘 잡아 놓았기에 그 야단이야?"

"남편이라는 것이 제 발로 기어들어오지 않았겠소. 그래서 뒷산 바위굴에 가둬 놔지요."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놈이 감히 들어와, 당장 죽여 버려야지."

하고 두목이 줄개를 시켜서 신랑을 데려오라고 그런단 말이야. 줄개 하나가 바위굴에 신랑을 잡으러 온 것을 손가락 하나로 통겨서 넘어 뜨려 버렸지. 두목은 아무리 기다려도 줄개가 오지 않으니 좀더 힘센 놈을 보냈어. 두 번째 줄개도 주먹 한방에 날려서 거꾸러뜨렸지. 세 번째 줄개는 발길질로 쓰러뜨리고, 네 번째 줄개는 목덜미를 잡아 내던져 버렸지.

줄개들이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으니가 두목이 분이 나서 바위굴로 달려왔어. 들어서 칼을 빼들고 싸우기 시작했지. 둘 다 얼마나 힘이 세고 날쌌지. 칼날이 번쩍번쩍 하고 칼 부딪치는 소리만 쟁그랑 쟁그랑 날 뿐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도적놈 두목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한참 동안 싸우다가, 땅 위에서는 싸우기가 비좁고 불편한지 아예 공중으로 올라가서 싸워. 공중에서 쟁그랑 툭툭 하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몰아치며 안개가 자욱하게 일더니, 한참 뒤에 무엇이 공중에서 툭 떨어져. 그게 뭐고 하니 도적놈의 팔이야. 그런데 그놈의 팔이 떨어지자마자 도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붙어, 조금 있다가 도적놈의 다리가 툭 떨어지더니, 이것도 곧장 올라가서 도로 붙어. 그러더니 이번에는 도적놈의 머리가 툭 떨어지거든. 몸종이 그걸 보고 얼른 매운 재를 치마폭에 담아 와서 뿌렸어. 머리가 도로 공중으로 올라가 제자리에 붙으려고 해도 매운 재를 뿌려 댔으니 못 붙지. 못 붙으니가 다시 땅에 떨어져서 팔딱팔딱 뛰다가 스포르 멈춰. 그러니까 곧 공중에서 도적놈의 몸통이가 쿵 하고 땅에 떨어져서 부르르

떨다가 죽었어.

이렇게 도적 두목을 죽이고 나니 줄개들은 모두 제풀에 항복을 해, 줄개들을 앞세워 곳간 문을 열어 보니, 첫째 곳간부터 열째 곳간에는 온갖 보물이 잔뜩 들어있고, 열한째 곳간부터 스무째 곳간에는 잡혀 온 사람들이 가득 들어 있어, 석수장이 아내도 있고, 나무꾼 딸도 있고, 그리백정 누이동생도 있어, 그 사람을 다 구해 내서 보물을 팔아다 바리바리 싣고 몸종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지.

처음에 동아줄을 타고 내려온 곳에 가 보니, 아직도 동아줄이 늘어져 있어. 먼저 사람들을 광주리에 태우고 줄을 흔드니까 줄이 동실동실 올라가, 사람들을 다 올려보내고 보물도 광주리에 싣어서 다 올려 보냈어. 그때 놓고 마지막으로 신랑과 몸종이 올라가려고 하니가 줄이 안 내려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와, 땅 위에 있는 세 사람이 보물을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려고 줄을 안 내려 보냈단 말이야.

굴 밑에서 줄이 내려오기를 학소고대해도 안 내려오니, 신랑과 몸종은 할 수 없이 도적이 사는 마을로 되돌아갔어. 거기에 가서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강가에 웬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던 말이야. 그 노인에게 어떻게 하면 땅 위로 올라갈수 있냐고 물어 봤지.

그랬더니 노인이 손뼉을 탁탁 쳐서 강 건너편에서 하얀 두루미를 부르더니,

"이 두루미를 타고 가시오." 하고는 양땡에서 잉어 일곱 마리를 꺼내줘.

"가다가 두루미가 '후우'하고 한숨을 쉬면 기운이 빠진 것이니, 이 잉어를 한 마리씩 두루미 입에 넣어주시오. 두루미가 기운이 빠졌는데도 먹이를 안 넣어 주면 떨어져 죽을 것이요."

노인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두루미 등에 올라탔어. 신랑은 두루미 머리 쪽에 타고 몸종은 두루미 꼬리 쪽에 탔어. 두루미는 돌을 태우고 험험 공중으로 날아올라가, 조금 날아가다가 기운이 빠졌는지 '후우'하고 한숨을 쉬기에 얼른 잉어 한 마리를 입에 넣어주었어. 조금 가다가 '후우'하면 또 한 마리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섯 마리를 다 먹이고 한 마리가 남았어.

그런데 신랑이 그만 잉어 한 마리를 떨어뜨려 버렸어. 아직 땅 위로 올라가려면 한참을 더 날아가야 하는데, 큰일 아니야.

조금 가다가 두루미가 또 '후우'하고 한숨을 쉬어. 그런데 먹이 잉어가 있어야지. 두루미는 기운이 다 빠졌는지 날개짓이 점점 느려지면서 밑으로 슬슬 떨어진다 말이야.

신랑이 다급한 나머지 눈을 질끈 감고 제 무릎 살을 베어서 두루미 입에 넣어줬어. 두루미가 무릎 살을 먹고는 기운을 차려 다시 험험 날아올라가, 그래서 무사히 땅위로 올라왔지.

땅 위로 올라오니, 두루미가 목을 길게 빼어 무릎 살을 토해 가지고 신랑 무릎에다 붙이고 부리로 쓰다듬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세 살이 붙고 아물었어. 그런데 때어 냈다가 다시 붙인 살이 어디 보니 살만큼이야 하겠어? 그 때부터 무릎 살이 흔들리게 되었다는군. 어디 무릎 살을 잡고 흔들어봐. 흔들거리지.

신랑은 몸종을 아내로 맞아 잘 살았더라. 오래오래 살아서 어저께까지도 살았더라.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 현암사)

능렁감투

옛날 옛적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인가를 못 찾아 산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 어디서 자나 하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마침 산중에 무덤이 몇 개 있더라. 무덤 옆 잔디가 아늑하고 묵신해서, 거기서 자기로 했지.

누워서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멀리서 "어이, 김생원."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지 뭐야. 한밤중에 산 속에서 뭐가 이러나 하고 놀라 일어났지. 일어나서 가만히 들어 보니까, 바로 제가 자던 무덤 속에서 "왜 그러냐?"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지 뭐야. 그러고 보니 밤중에 무덤 속 귀신들이 주고받는 소리야. 그게. 무섭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지.

"오늘 밤 제 너머 장자네 집에 제사가 든다네. 제사 음식 얻어먹으러 가세."

이건 저쪽 무덤 귀신 소리지.

"가고는 싶네마는 여기는 손님이 들어서 못 가겠네"

이건 이쪽 무덤 귀신 소리고.

"손님하고 같이 가면 안되겠나?"

저쪽 무덤에서 이러니까,

"아, 그럼 그렇게 할까나."

이쪽 무덤에서는 이러지.

그러더니 이쪽 무덤에서 흰 옷 입은 귀신이 스르르 나와. 나와서는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슬슬 다가오더니, 이 사람 머리에도 능렁감투를 하나 덜렁 씌워 주고는 따라오라고 손짓을 해. 능렁감투를 쓰면 사람의 눈에는 안보여. 그런 말이 있어.

저쪽 무덤에서도 귀신이 스르르 나오고, 또 그 뒤쪽 무덤에서도 귀신이 스르르 나오고, 이렇게 줄줄이 나와서 귀신들이 제사 음식 얻어먹으러 간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귀신들을 따라갔지. 귀신들은 재를 훔쳐 넘어서 마을로 내려가더니,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으로 썩 들어가.

들어가 보니 제관들이 방안에 가득 모였는데, 아무도 저를 못 봐. 능렁감투를 써서 그렇지. 이 사람은 귀신들과 함께 제상 앞에 앉아서 제사 음식을 이것저것 집어먹었어. 그런데 귀신들이 먹는 음식은 하나도 줄어들지를 않는데 이 사람이 집어먹는 음식은 포가 나게 줄어들지 뭐야. 제상에 차려 놓은 음식이 쑥쑥 줄어드니까 제관들은 제사를 지내다 말고 모두 기절초풍을 하지. 그러나마나 이 사람은 제상에 놓인 음식을 싹쓸 집어먹었어.

그렇게 음식을 먹으며 놀다가, 닭이 '꼬끼오' 하고 우니까 귀신들이 그만 가자고 하면서 주섬 주섬 일어나. 이 사람도 따라 일어섰지. 귀신들이 집을 나와 산으로 가니까 이 사람도 따라 갔어.

그런데 귀신들을 따라 산으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곧 날도 쌀 텐데 산으로 다시 들어갈 일이 없겠거든. 그래서 그냥 돌아서서 냇다 뛰었어. 귀신들이 뒤에서 능렁감투

내놓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걸 못 들은 채하고 뛰었지. 모두 높은 귀신이 돼 놔서 그런지 소리만 질렀지 따라오지는 못하더라. 이 사람은 농땡감을 쓰고 집에 돌아왔어.

집에 돌아오니 식구들이 아무도 몰라. 농땡감을 써서 안 보이니까 그렇지. 이 사람이 농땡감을 벗으면.

"에구머니 당신 언제 왔어요?"

"어, 아버지 이제 오셨어요?"

하고 식구들이 인사를 하다가도 농땡감을 쓰면.

"아니, 이 양반이 금세 어디를 갔다."

"어, 아버지 어디 가셨지?"

하고 두리번거리기만 하지.

이 사람이 좋은 보물을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그 날부터 어디든지 제사지내는 집만 찾다니. 농땡감을 쓰고 제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집어먹으면, 음식이 줄어드는 걸 보고 제관들은 놀라서 엎드려 벌벌 떨지. 그게 재미나기도 하고 제사 음식이 탐나기도 해서, 날마다 제사 드는 집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하루는 이 사람이 낮에 농땡감을 벗어 놓고 불일을 보러 간 사이에 아내가 그걸 봤어. 아내가 보니까 다 해져서 너털너털한 감투 같은 것이 있거든. 뭐 이런 저저분한 것이 다 있나 하고서 농땡감을 그만 불에 졸랑 태워 버렸어. 불에 태워 버렸으니 재만 남지.

이 사람이 저녁에 돌아와 보니 농땡감투가 그 꼴이 돼 있거든.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제사 음식 좀먹는 일을 그만두었으면 좀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이 미련을 못 버리고 그놈의 농땡감투 태운 재를 옴뭉에 쳐박았어. 옴뭉 졸랑 벗고 몸에도 농땡감투 태운 재를 살살이 바르고는, 그날 밤에 또 제사 음식 좀먹으려 나섰단 말이야. 마침 그날 이웃 마을에 소대상이 들어서 제사를 푸짐하게 차려냈는데, 거기에 썩 들어갔어. 농땡감투는 태워도 농땡감투인지 이 사람이 알몸에 재를 바르고 들어섰는데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마음놓고 제상에 놓인 음식을 집어먹었지.

한참 집어먹다 보니 손에 발바닥 놓은 재가 그만 벗겨졌어.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으니 재가 저절로 벗겨져 나갈 것 아니야? 그러니 다른 것은 안 봐는데 손바닥만 하얗게 보인단 말이야. 제관들이 보니까, 하얀 손바닥이 제상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음식을 집어 가거든.

"이게 뭐데 남의 집 제사 음식을 좀쳐 가느냐?"

하면서 그 손을 낚아챘어. 그 바람에 팔뚝이 하얗게 드러나지. 제관들이 달려들어 붙잡고 재를 죄다 닦아 내니까 알몸뚱이 사내가 쏙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 일 나지. 제사 음식 좀먹은 도둑놈이라고 실컷 얻어맞고, 온 동네 우세 다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 현암사)

천 년 묵은 지네

옛날 어떤 산골에 약초 캐는 총각이 살았지. 날마다 산중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 가지고 장에 내다 팔아 근근이 먹고 살았던 말이야. 그러다 보니 나이 서른에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아. 아, 어느 색시가 약초나 캐는 가난한 총각한테 시집오려고 하겠어?

하루는 이 총각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는데, 약초 캐는 데 정신이 팔려서 날이 저무는 것도 몰랐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어둑어둑한데, 서둘러 산에서 내려온다는 게 길을 잃고 점점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어. 한참 동안 산 속을 헤매다 보니 저 멀리서 불빛이 아른아른하더라. 말이야, 얼른 불빛을 찾아갔지. 가 보니 오막살이 초가가 한 채 있는데, 주인을 찾으니 웬 색시가 나와.

"산중에서 약초를 캐다가 날은 저물고 길을 잃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룻밤 묵게 해주시오."

하니까 서슴없이 들어오라고 그러네. 들어가니까 더운 밥 지어서 저녁을 한 상 잘 차려 주더라. 말이야. 그걸 먹고 하룻밤 잤지.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색시가 조반도 한 상 잘 차려 주기에 먹었지. 먹고 나니까 색시가 하는 말이.

"약초를 캐면 몇 톨이나 벌며, 딸린 식구는 몇이나 됩니까?"

하고 묻더라. 그래서.

"약초 팔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니 몇 톨 번다고 할 수도 없고, 아직 혼인을 못 했으니 딸린 식구도 없소이다."

했지. 그랬더니 색시가 반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삽시다. 무식날에는 마당이나 쓸고, 장날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나한테 이야기해 주지만 하면 돈 열냥씩 드리리다."

하거든. 가만히 듣고보니 그보다 더 좋은 돈벌이가 없을 것 같은 말이야. 게다가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예쁜 색시까지 얻을 판국이니 마다할 까닭이 없지. 그래서 그러자고 하고 거기서 색시와 함께 살았어.

무식날에는 마당이나 쓸고 놀다가, 장날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터에 나가 여기저기 눈동냥 귀동냥을 해서, 그걸 죄다 색시한테 알려 줬단 말이야. 그러면 색시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기만 해. 그렇게 살다보니 삼년이 훌쩍 지나갔어.

삼년이 지난 뒤에, 하루는 이 남편이 장에 갔더니 한 초립둥이가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초립에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가거든. 나귀 목에 달 방울을 제 초립에 달았으니 우스운 일이 아니야? 그 날 집에 돌아와서 색시한테 그 이야기를 했지.

"오늘은 장에서 참 우스운 꼴도 다 봤소"

"무엇을 봤기에 그러세요?"

"말썽하게 생긴 초립동이 그새 초립에 방울을 달고 땀방귀리며 지나가지 않겠소?"

그랬더니 색시 얼굴색이 확 달라져,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러고는,

"다음 장날 또 그 초립동이를 만나거든 반드시 뒤를 밟아서 어디에 사는지 알아 오세요."

하거든 그 다음 장날이 되어서 장에 갔더니, 아닌게아니라 그 초립동이 또 방울을 땀방귀리며 지나가겠지, 가만가만 뒤를 밟았지, 따라가 보니, 아 이 초립동이 장터를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더라 말이야, 산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지, 캄캄한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네.

'하, 그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말썽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다니.'

하면서 동굴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아 초립동이 동굴에서 다시 쏙 나와, 나와 가지는,

"당신은 필경 왜 색시 부박으로 내 뒤를 밟은 것이지요?"

이러지 뭐야, 다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 그렇다고 했지, 그랬더니,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색시는 사람이 아니고 천 년 묵은 지네요. 오늘 저녁에 돌아 가면 당신은 지네한테 잡아먹힐 거요."

이런단 말이야, 삼 년을 함께 산 색시가 지네라니 선뜻 믿어지지는 않지만, 제가 잡아먹힌 다니 겁이 덜컥 나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하고 물었지, 초립동이 하는 말이,

"장에 가서 독한 담배를 한 발 사 가지고 온몸에 담배진을 바르고 가시오. 그리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문구멍으로 들여다보시오, 지네가 보이거든 담배 연기를 문구멍으로 뿜어 넣으시오. 그러면 지네는 죽고 당신은 살 거요."

이러거든 이 사람은 초립동이 말대로 장에 가서 독한 담배를 한 발 사 가지고 담배진을 내 어 온몸에 잔뜩 발랐어, 그러고는 집으로 갔지, 초립동이 말대로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아닌게아니라 웬마루 같은 지네가 방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 뭐야, 허, 그것 참.

자, 이제 색시가 사람이 아니고 지네인 걸 알았으니 담배 연기를 뿜어서 죽여야지, 안 그러면 제가 죽을 테니,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못해, 왜 못하는지 하니, 삼 년 동안이나 함께 살면서 신세도 지고 정도 돈 색시를 차마 죽일 수 없겠더라 말이야, 아무리 징그러운 지네라 해도 말이야.

'저 지네를 죽이는 건 참 못할 일이로다. 에라,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나왔어, 개울에 가서 담배진을 다 씻어낸 다음, 이번에는 앞문으로 들어갔어, 앞문으로 들어가니 색시가 반겨 맞아 주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이 예쁜 색시가 어떻게 그 징그러운 지네란 말인지, 참 믿어지지 않아, 그래도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에야 안 믿을 수도 없지, 이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당신이 지네라는 걸 알았소, 그래, 오늘 밤에 나 잡아먹을 테요?"

하고 물어 봤지, 색시는 깜짝 놀라더니,

"내 비록 미물이지만 왜 까닭 없이 당신을 잡아먹겠어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할 터이니 들어보세요."

하고는 지나온 일을 죽 이야기해,

"당신이 장에서 본 초립동이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천 년 묵은 지렁이랍니다. 전에 내 남편이 그놈과 싸우다가 그놈이 내 남편을 죽여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산중에 숨어 살면서 때를 기다렸지요, 이제 그놈이 사는 곳을 알았으니 내일은 찾아가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나와 삼 년 동안 인연을 맺고 살아온 정리를 생각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면 되겠소?"

"내일 그놈과 한창 싸울 적에, 무서워 말고 고함을 되게 질러 주기만 하면 그놈이 소리나는 쪽을 돌아볼 것이니, 그 틈에 죽이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튿날 색시는 지렁이와 싸우러 갔어, 색시가 지렁이 굴 앞에 이르러 재주를 크게 세 번 넘으니 웬마루 같은 지네가 됐어, 그러니까 굴 속에서 쾅다란 지렁이가 스트르 기어 나와 돌아서 싸움이 붙었어, 그런데 그 싸움이 어찌나 사나운지, 이 사람이 구경하다가 그만 소리도 못 지르고 까무러쳐 버렸어, 지네와 지렁이는 한참 동안 싸우다가 지쳐서 더 못 싸우고 헤어졌어, 지네가 다시 색시가 되어서 이 사람을 흔들어 깨워 가지고 집으로 갔지.

그 날밤 색시는, 내일 싸울 때는 꼭 고함을 크게 질러달라고 단단히 부탁을 해, 이 사람은 그러하고 다짐을 하긴 했는데, 그 이튿날 싸움판에 나가 보니까 어찌나 무섭던지 온몸이 뻗뻗하게 굳어서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또 고함을 못 지르고 말았어, 그래서 그 날도 결판을 못 내고 집으로 돌아왔지.

그날 밤에 색시는,

"이 싸움은 사흘만에 결판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삼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놈이 당신부터 잡아먹으려고 할 터이니, 부디 내일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꼭 고함을 질러 주세요."

하고 신신당부를 해,

그 다음 날은 이 사람이 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싸움터로 갔어, 지네하고 지렁이가 맞붙어 싸우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나운지 돌아서 공중으로 뽕뽕 떠올라가, 공중에서 한창 뒤엎겨 싸울 적에 이 사람이 져 먹던 힘을 다 내어,

"저놈 잡아라!"

하고 크게 고함을 질렀어, 지렁이는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벼락같은 고함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땅을 내려다봤지, 그 틈을 타서 지네가 지렁이 목을 물어서 죽여 버렸어.

지네는 다시 색시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한을 다 풀었으니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이 길로 우리가 살던 집에 가세요. 가 보면 껌짜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 있으니 그걸 가지고 가서 잘 사세요."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져 버렸어. 이 사람이 산 속 살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 울도 집도 온데 간데없고 쑥대밭이 되었는데 거기에 큰 껌짜이 하나 있더라. 그 속에 돈이 가득 들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잘먹고 잘 살았더라.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 현암사)

이야기 귀신

옛날 옛적에, 이야기를 듣기를 참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어. 이 아이는 그저 자나깨나 이야기 듣는 게 일이야. 여기저기 이야기판을 찾아다니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란 이야기를 다 듣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듣기만 좋아했지 남한테 이야기 들려주는 법은 없어.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걸 종이에다 적어서 주머니 안에 꼭꼭 넣어둔단 말이야. 그러고는 한 번도 남한테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지. 이렇게 몇 년을 모으니까 주머니 안에 이야기가 꽉 들어차.

이렇게 이야기가 꽉 들어찬 주머니를 또 몇 년 동안 허리춤에 차고 다니기만 하니,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갑갑하겠나. 원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야 제격인데, 주머니 안에 갇혀서 오도가지도 못하고 숨도 크게 못 쉬고 오래묵으니, 이 이야기들이 그만 귀신이 돼버렸어. 예부터 이야기가 오래 묵으면 사된 귀신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

아이가 자라서 총각이 돼 가지고 이제 장가를 가게 됐지. 초례날을 받아 놓고 혼인 준비가 한창인데, 하루는 이 총각이 자는 방에 머슴이 함께 자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머슴이 자다 보니 한밤중에 어디서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들리거든. 몹시 이러나 하고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아 총각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주머니 속에서 말소리가 들리지 뭐야. 이야기 귀신이 저희끼리 하는 말이지, 그게.

"이놈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꼬."

한 놈이 이러니까,

"아무 날 이놈이 장가를 간다 하니, 그 때 가서 없애 버리자."

또 한 놈이 이러거든. 그러니까 다른 놈들이 하나씩 나서서,

"나는 이놈의 초행길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되어 나무에 달려 있다가 이놈이 따 먹으면 즉시 껌 짜리라."

"만약 이놈이 배를 안 따 먹고 지나치면 나는 웅달샘이 되어 있다가 이놈이 따 먹으면 죽

게 하리라."

"만약 이놈이 샘물도 안 먹고 지나치면 나는 행례청에 바를방석이 되어 있다가 이놈이 앉으면 찢려 죽게 하리라"

이런단 말이지.

머슴이 들어 보니 큰일이거든. 이걸 그냥 뒀다가는 필경 저희 서방이 초례도 못 치르고 죽게 생겼으니 큰일이지. 그래서 전집 신랑이 장가는 날 이 머슴이 한사코 따라나섰어. 신랑은,

"네까지 게 뭘 안다고 따라와. 따라올 것 없다."

하면서 못 따라오게 했지만 머슴은 부득부득 따라가겠다고 우겼지. 그래서 신랑이 할 수 없이 머슴을 견마잡이로 데리고 갔어.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 길가에 아주 크고 먹음직스러운 배가 배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거든. 신랑이 그걸 보고 군침이 돌아서,

"애야, 저기 가서 배 좀 따 오너라"

했지. 그래도 머슴은 들은 척 만 척이야. 신랑이 자꾸 재촉을 해도,

"초행길에 뭘 그런걸 먹겠다고 따 오랍니까. 동티 나게요."

하면서 꾸역꾸역 가던 길만 가지. 그러니 신랑이 괴심하겠어. 안 하겠어.

"아, 저놈이 따라오지 말래도 부득부득 따라오더니 왜방만 놓는구나."

하고 억정이 아주 대단해. 그러나마나 머슴은 말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났어.

또 한참 가다보니 길가에 웅달샘이 있는데 물이 참 맑고 좋거든.

신랑이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애야, 말을 멈춰라. 저 샘물이나 한 바가지 떠 먹고 가야겠다."

했지. 그래도 머슴은 들은 척 만 척 하는 거야.

"이놈아, 말을 멈추라고 하지 않느냐."

해도,

"초행길에 뭘 말에서 내리려고 그러니까. 동티 나게요."

하면서 말고베만 당겨. 그러니 신랑이 보아가 머릿길까지 냈지.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마구 아단을 쳐. 그러나마나 머슴은 말을 몰아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났지.

이렇게 해서 신부 집에 무사히 당도했지. 행례청에 들어가보니 신랑이 앉을 자리에 방석이 하나 놓여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어도 머슴눈에는 뽕뽕뽕한 바늘이 잔뜩 꽂혀있는 바를방석이 밑에 하나 더 깔려있는 게 눈에 띄거든. 신랑이 막 방석에 꿰어앉아 절을 하려고 하는 것을, 머슴이 번쩍 안아다 다른 데 앉히고 바를방석을 치워 버렸어.

그래서 세가지 화를 다 면했는데, 신랑은 멋도 모르고 행례청에서 망신을 시켰다고 낮이 불그락푸락. 아주 화가 잔뜩 났어.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는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오절을 내리라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감지. 그제야 머슴이 일이 이만저만하게 되어서 그랬노라고 실토를 했어. 이야기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 귀신이 앙심을 품고 해치려는 걸 막으려고 한 일이라고

말이지. 그제야 신랑이 제 목숨을 머슴이 구해준 것을 알고 고마워하면서, 그 뒤부터 머슴을 친 아우처럼 끔찍하게 위해 줬다네.

그리고 이야기 주머니도 활짝 열어젖혀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마음대로 뿔뿔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적어만 두고 말하지 않으면 귀신이 되어 사람을 해친다고 하고, 또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해를 끼친다고 하니 모두들 새겨서 듣게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 현암사)

불여우와 할머니

옛날 어느 곳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욕심이 많은데다 심술바가지이고 아우는 안 그래. 옛날 이야기란 게 다 그렇지. 형은 나쁘다고 그러고 아우는 좋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렇다고 이 세상 형들은 서운하게 생각할 것 없어. 아마도 아우가 형보다 약하니까, 약한 쪽 편들어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한편으로는 형보다 나은 아우없다는 옛말도 있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고 이 이야기를 들어봐.

형제가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고 나니, 형이 유산을 혼자서 다 차지하고 아우한테는 사탕이 한 알도 안 주네. 그러니 아우는 어떻게 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장사기로 나섰지. 소금장사를 했어.

소금집을 지고 골골마다 다니면서 소금을 파는데, 그러다 보니 길에서 날이 저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길 가다가 날이 저물면 아무데서나 한데잠을 자고, 그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야.

하루는 산 속에서 날이 저물어 어떤 무덤 가에서 잠을 잤는데, 한 잠 잘 자고 새벽녘이나 되어 일어나 보니 어디서 '박박박박'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 가만히 들어 보니 바가지 굵은 소리 같은데, 그게 한참 소리가 나다가 그치고, 또 조금 뒤에 소리가 나고, 이러거든. 뭐가 이러나 하고 가만가만 소리나는 쪽으로 가서 숲을 헤치고 보니, 잔솔밭 속에서 여우가 그러고 있어. 멀 가지고 그러는구나 하니 사람의 해골바가지를 발톱으로 긁는데 박박박박 하고 파 가지고는 제 머리에다 써 보고, 잘 안 맞으니까 또 박박박박 하고 파내고 이런단 말이지.

날이 부엌에 새도록 그렇게 해골바가지를 파내더니 이제 머리에 맞는지 그놈을 쓰고 재주를 세 번 팔딱팔딱 넘으니까 그만 사람이 됐어.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되어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숲을 걸어 가거든.

거 참, 여우가 해골바가지를 뒤집어쓰고 사람으로 둔갑을 했으니 저게 어디 가서 무슨 못된 짓을 할지 누가 알아. 아우는 소금집을 지고 가만가만 그 뒤를 따라갔어. 따라가 보니 고개를 하나 넘어 그 아래 마을로 썩 들어선단 말이야. 아우도 마을로 들어섰지. 마을에 들어서니 큰 마당에 차일을 치고 혼인 잔치를 하는 부자집에 있는데, 여우가 그리로 썩 들어가거든. 아우도 따라 들어갔지.

여우가 잔치집에 들어가니 그 집 식구들이 달려나와,

"아이고, 외할머니 오신다."

"어머니, 이제 오세요?"

"장모님 오십니까? 며칠 전에 오시랬더니 왜 이러 늦으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아들이고 동네 사람들도,

"신랑 외조모가 손주 혼인 보러 오셨네."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우는 태연하게,

"응, 내가 오다가 다리병이 나서 쉬었다가 오느라고 늦었다."

이러거든.

'아하, 저것이 이 집 신랑 외할머니를 잡아먹고 해골바가지를 뒤집어써서 둔갑을 했구나. 진짜 외할머니는 며칠 전에 고개를 넘다가 여우한테 잡아먹히고, 여우는 할머니 해골바가지를 말려서 파내느라고 늦은 것이 틀림없구나.'

아우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봤어. 그랬더니 여우는 신랑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는 척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러고 나니 신랑 신부가 눈빛이 희미해지면서 정신을 못 차려, 그놈의 여우가 넋을 빼놓은 게 틀림없지. 그렇게 넋을 빼놓고 틈을 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가봐. 여우라고 하는 게 본래 사람 넋부터 빼놓고 간을 빼먹는다고 그러지.

'저놈의 여우를 어떻게 하면 없앨꼬.'

아우가 공리를 하면서 손님들 틈에 끼어 앉아 있으니, 주인 집에서 음식을 한 상 잘 차려서 갖다 줬. 인심이 좋은 집이었는지 또내기 손님한테도 대접을 푸지게 잘 해주더라. 말이야, 그걸 다 먹고서는,

"이 오죽잡은 소금장수한테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그 보답으로 재주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재주는 아무도 구경 못 해봤을 거요."

했지. 그러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게 아니야? 그래 마당에 명석을 깔아 놓으라 하고는 명석 위에 지게작대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 젊은이들은 뒤로 물러나오, 이런 구경은 연세 많은 분부터 해야지요. 여기서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누구요?"

했지. 그러니 모두들 여우가 둔갑한 할머니를 가리킨단 말이야.

"그럼 할머니가 이 명석 끝에 앉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찍감치 물러나시오."

그러니 여우가 명석 끝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물러났어. 아우는 지게작대기를 빙빙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여우를 냐다 후려갈겼지. 두어 번 후려갈기니까 '해갱' 하면서 쭉 뻗는데, 빨간 불여우가 돼 가지고 죽었어.

여우가 죽으니까 넋이 나가 있던 신랑 신부도 정신을 차려더라. 주인 집 식구들은 처음에 아우가 지게작대기로 여우를 후려갈기니까 저희 할머니를 때린다고 툭툭 뒤통을 때려, 그게 저희 할

머리가 아니라 여우인 걸 알고는 참 놀라워하지. 신랑 신부 목숨을 살려 준 은인이라고 대접을 극진히하고, 눈 몇 섬지기를 뚝 떼어 주면서 소금장사 그만두고 농사 지으며 잘 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아우는 아주 팔자가 썩어.

그런데 형이 보니까 소금장사하던 아우가 갑자기 눈을 몇 섬지거나 가지고 잘 살거든. 욕심이 많은데다 심술까지 많은 위인이라 그만 샘이 버쩍 나서 아우를 찾아갔어.

"이놈, 너 어디서 도둑질해다가 그리 사느냐?"

"아이고, 형님. 그게 아니라 우연히 불여우를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우가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니까, 형이 저도 불여우 잡아서 부자 되어 보겠노라고 소금집을 지고 나섰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 고개를 하나 넘는데, 마침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지나가거든.

"오지, 저게 틀림없는 불여우잖아."

형이 무턱대고 할머니 뒤를 밟았지. 그 할머니도 고개를 하나 넘더니 혼인 잔치 하는 집으로 들어가더래. 형이 따라 들어가서 음식 한 상 잘 얻어먹고 멍석을 깔라 하거든. 할머니를 멍석 끝에 앉혔지. 그래 놓고 불문고직 지게작대기로 후려쳐. 그런데 그 사람은 여우가 아니라 진짜 그집 외할머니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멀쩡한 남의 할머니를 두들겨패 났으니 무사할 리 없지. 형은 그 집 식구들에게 몰매를 맞고 아주 반병신이 됐어.

아우는 반병신이 된 형을 저희 집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면서 살았대. 아주 오래오래 잘 살았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 현암사)



콩쥐 팥쥐

옛날에 콩쥐 팥쥐라는 두 처녀가 있었다. 콩쥐는 전처의 딸이고 팥쥐는 모처가 데리고 온 이복 딸이다.

아우는 모처가 콩쥐한테는 나무 오미와 삼년 묵은 계밥에 삼년 묵은 된장을 싸 주며 자갈이 많은 묵정밭에 김을 매라고 했다.

콩쥐는 점심밥으로 싸가지고 온 계밥과 된장을 나무가지 위에 올려 놓고 김을 매는데 나무오미로 매는데 아무리 매도 잘 매지지 않고 힘이 들어 고생만 하는데 가마고뚜가 와서 나무오미에 놔 둔 계밥을 다 먹었다. 그래서 콩쥐는 밥도 못 먹어 배가 고프고 임도 들고 해서 제 신세 타령을 하면서 울고 있었다. 그랬더니 암소 한 마리가 내려와서 왜 오느냐고 물었다. 콩쥐는 나무오미로 자갈밭을 매는데 임도 들고 점심밥을 가마고뚜가 다 먹어서 배가 고파서 온다고 했다. 그랬더니 암소는 저 아래 있는 개울에 가서 아래탕에서 발을 씻고 중탕에서 목욕하고 상탕에서 머리를 감고 와서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고 소의 밀그렁에 디리밀어 보라고 했다. 그래서 콩쥐는 암소가 하라는 대로 개울에 내려가서 아래탕에 발을 씻고 중탕에서 목욕하고 상탕에서 머리감고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고 소의 밀그렁에 디리밀어 넣어 봤더니 딱이며 고기며 과자며 많이 나왔다. 콩쥐는 그 딱과 고기 와 과자를 싹싹 먹고 나머지를 싸가지고 집으로 왔다. 그런데 팥쥐는 문을 닫아 걸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콩쥐는 딱이랑 고기랑 사탕이랑 줄테니 문 좀 열으라고 했다. 콩쥐는 문고늑으로 사탕을 마나 디리밀었다. 팥쥐는 그것을 받아먹고 아 지금 준 것은 와루에서 떨어트렸으니 또 하나 달라고 했다. 또 하나 넣어 주니까 이번에는 요강에 빠트렸으니 또 하나 달라고 했다. 또 하나 넣어 주니까 이번에는 머 어쨌다 어쨌다 하면서 자고 넘어달라 애가치고 사탕이며 과자며 딱이며 고기며 다 빼어가치고서 그제서야 문을 열어 주었다. 콩쥐가 방에 들어가서 사탕이랑 딱이랑 고기며 노뽕 먹자고 마니까 너는 배고플터이니 밥 먼저 먹으라 했다. 콩쥐는 밥을 찾아보는데 밥이 없어서 밥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팥쥐는 가마솥 안에 있다고 했다. 가마솥 안을 들쳐봤는데 밥은 없었다. 없다고 마니까 살강에 있다고 했다. 살강을 봐도 없었다. 없다고 마니까 장간에 있다고 했다. 장간에서 찾아 보았는데 거기에도 밥은 없었다. 없다고 마니까 아무데 있다고 아무데 있다고 하며 거짓말만 했다. 그동안 팥쥐는 저의 어머니와 그 사탕이며 딱이며, 고기를 다 먹어 버렸다. 그래서 콩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었다.

모어머니는 콩쥐보고 그 사탕이랑 고기랑 딱이랑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었다. 콩쥐는 자갈밭을 나무 오미로 김을 매고 있었더니 암소가 내려와서 주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모어머니는 다음날 팥쥐에게 나무오미와 계밥을 싸주며 자갈밭에 김을 매라고 콩쥐에서는 쇠오미를 주어 사랑이밥을 매라고 했다.

팔짚는 자갈밭을 매지도 않고 뽕뽕 울고 있었다. 하늘에서 암소가 내려와서 왜 오냐고 물었다. 팔짚는 김 매기에 힘이 들고 배가 고파서 온다고 했다. 그랬더니 암소는 저 아래있는 개울에 가서 아래탕에서 밭을 씻고 중탕에서 묵묵하고 상탕에서 머리를 감고 와서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고 소의 밭그렁에 다리밀어 보라고 했다. 팔짚는 암소가 아라는 대로 개울에 내려가서 아래탕에서 밭을 씻고 중탕에서 묵묵하고 상탕에서 머리를 감고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고 암소의 밭그렁에 두 손을 넣고 그 안에 있던 사탕이며 떡이며 고기를 만음쯤 잔뜩 쥐고 손을 뻗라고 하는데 잘 빠지지 않았다. 암소는 다리밀기 시작했다. 소는 밭들로 논들로 자갈밭으로 가시밭으로 사뭇 뛰어다녔다. 그래서 팔짚는 온몸이 다치고 글썽하고 찌어지고 해서 피투성이가 됐다. 이 암소라는 것은 콩쥐 어머니가 죽은 년이라고 한다.

팔짚는 온몸에서 피가 나서 피투성이가 되고 입은 온통 갈개갈개 찢어져서 너털너털하게 됐다. 이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팔짚어머니는 멀리서 제 딸이 온몸이 벌레 가지고 오는 것을 먼 빛으로 보고 우리 팔짚는 고운 옷까지 얻어입고 온다고 조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콩쥐가 거짓말을 한 탓으로 이렇게 됐다고 콩쥐를 마구 두들기 패고 아단치고 밥도 먹이지 않았다.

그후 어느날 뚫어머니는 콩쥐한테는 언 복과 콩 볶은 것을 주고 팔짚한테는 새 복과 잘밥을 주면서 둘이 베를 짜는데 누가 더 많이 짜는가 내기매 보라고 했다. 콩쥐는 볶은 콩을 한입에 많이 집어 넣어 모뎀모뎀 먹으면서 쉬지 않고 베를 짜서 많이 짜는데 팔짚는 잘밥을 떠어 먹으면서 베를 짜는데 잘밥이 손에 붙어 찢다찢다해서 복 놀러기가 더디어서 베를 얼마 짜지 못했다. 뚫어머니는 팔짚가 더 많이 짜고 콩쥐가 덜 짜운 줄 알았는데 그와는 반대로 팔짚가 적게 짜고 콩쥐가 더 많이 짜서 이것은 잘밥을 먹으면서 짜니라고 손이 찢다찢다해서 그랬을 것이라 하고 다음에는 콩쥐한테는 잘밥을 애주고 팔짚한테는 콩을 볶아 주어 베를 짜게 했다.

콩쥐는 물을 떠다 놓고 물에 손을 적서서 잘밥을 떼어서 입에 넣어 먹으면서 베를 짜기 때문에 많이 찢 소가 있었다. 그런데 팔짚는 콩을 한알 한알씩 집어 먹으면서 짜니라고 베를 많이 짜지 못했다. 뚫어머니는 이렇게 애도 팔짚가 지고 저렇게 애도 팔짚가 지고 해서 그만 와가 나고 더욱 더 콩쥐를 미워했다.

그후 어느날 언데 있는 일가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 뚫어머니는 팔짚를 데리고 잔치집 구경을 가겠다고 했다. 콩쥐도 가겠다고 하니 뚫어머니는 네가 울려면 아온간 빙을 다 말끔히 씻고 닭고 아홉방 아궁이 재를 다 닦아내고 밑에는 독 아홉에 물을 가득 붓고 벼 아홉 섬을 다 찌어 논 담에 오라고 하고 저들끼리 갔다.

콩쥐는 아홉방 빙을 다 씻고 닭고 아홉방 아궁이에 재를 다 닦아냈다. 이런 일을 다 마니라니가 힘이 들고 지쳐서 울고 있었다. 울고 있는데 참새들이 한떼 몰려와서 마당에 날아온 벼를 까 먹고 있었다. 콩쥐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래서 웨이웨이 하고 새를 쫓았다. 새들은 다 날아가는데 나뭇가 뒤에서 보니까 벼 아홉섬은 벼갹기는 날아가고 쌀알이 옴시라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해서 벼 아홉섬을 찌어서 놓게 됐다. 그런 뒤에 언데서 왔던 두개비 아홉 마리가 와서 독 밑에가 어디

고 물을 길러다 부라고 했다. 콩쥐는 큰 독마다 물을 한 동이씩 부면 가득 찼다.

뚫어머니가 시킨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잔치집으로 갈라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울고 있었다. 그랬더니 암소가 내려와서 고운 비단 옷과 이쁜 갓신 한 켤레를 주었다. 콩쥐는 그 비단 옷을 입고 이쁜 갓신을 신고 잔치집으로 가서 구경하고 있었다. 구경하고 있는데 뚫어머니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아단마질가봐 콩쥐는 거기서 뛰어서 집으로 도망쳤다. 도망쳐 오다가 그만 신었던 신 한 켤레를 잃었다.

그 일이 있던 후에 감사가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신 한 켤레를 보고서 이 신작이 마도 고모니가 이 신 임자는 잘 생긴 여자일 것이라 생각하고 신 임자를 찾았다. 팔짚가 나와서 그 신은 제 신이요 했다. 감사가 신개보니 팔짚의 발은 너머 커서 맞지 않았다. 그래도 팔짚는 억지로 신다가 발이 상해 피를 많이 흘렸다. 다음에는 뚫어머니가 나서서 그 신은 제 신이라고 하면서 신어 보는데 이것도 맞지 않아서 감사는 감사를 속이는 년이라고 하고 매를 때렸다. 감사는 이 여자 저 여자 신겨 봤는데 아무도 그 신에 맞는 여자가 없었다. 나중에 콩쥐가 남아서 감사는 그 신을 콩쥐에게 신겨봤다. 신겨 보니 콩쥐 발에 딱 맞았다. 감사는 조와라 하고 콩쥐를 데려다 마누라를 삼았다.

이렇게 해서 콩쥐가 감사 마누라가 돼서 잘 사는데 하루는 감사가 불일이 있어서 먼길을 떠났다. 감사가 떠난 후 얼마 안돼서 팔짚가 찾아 왔다. 찾아와서는 콩쥐를 보더니마는 "아, 콩쥐야, 네 목에 왜 때가 그렇게 많이 개 있냐? 감사가 보면 더럽다고 내쫓겠다. 오늘 날도 더웁고 마니가 때도 베끼고 묵묵도 마려 나가자. 자 어서 가자."하면서 팔짚는 콩쥐의 팔을 잡고 연모이 있는 데 까지 왔다. 연모까지 와서는 팔짚는 콩쥐보고 옷을 벗고 물 속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둘이는 옷을 벗고 연모로 들어갔다. 연모에 들어가서는 더 깊은데로 가자 더 깊은 데로 가자 하면서 팔짚는 콩쥐를 잡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물이 목에까지 닿는데 와서는 팔짚는 콩쥐를 활짝 떠밀어서 죽게 했다. 그리고 팔짚는 나와서 콩쥐 옷을 입고 콩쥐처럼 하고 감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팔짚는 얼굴이 검고 얻고 목도 길었다. 감사가 돌아와서 팔짚를 콩쥐로 알고 어찌해서 얼굴이 검어졌냐고 물었다. 팔짚는 감사님이 안 계셔서 세수를 안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감사는 또 왜 얼굴이 얻어났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감사님이 돌아오시기에 얻은 마중나가다가 콩머석에 너머져서 그렇게 됐다고 했다. 감사는 왜 목이 길어졌냐고 물었다. 감사님이 오시는 걸 보려고 날마다 장벽을 내다보다가 목이 길게 됐다고 했다. 감사는 그런가 하고 그러고 지내는데 하루는 감사가 마이를 데리고 연못 있는데로 나가 봤더니 연못 한가운데 암바퀴가 곱게 띄어 있었다. 마인이 연못에 들어가서 암바퀴를 꺼내는데 아무리 꺼어도 꺼여지지 않았다. 감사가 연못에 들어가서 꺼오니가 쉬웁게 꺼여졌다. 감사는 그 낚을 꺼여가지고 나와서 들며닐며 보겠다고 감사 방문 앞에 매달았다. 감사가 들며닐며 볼적에는 암바퀴는 곱게 활짝 피는데 팔짚가 들랑날랑 할 적에는 낚은 시들과 팔짚의 머리바라를 죄어 뜯고 얼굴도 알취고 했다. 팔짚는 와가 나서 이 낚을 뱉 아궁에 집어 넣고 불을 때버렸다.

이웃에 할머니가 하나 살고 있었다. 이 할머니가 하루는 감사네 집으로 불을 얻으러 와서 부엌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왔다. 불을 담아가지고 와서 보니 잿속에 웬 이쁜 고슬이 있었다. 이 고슬을 주어서 농안에다 넣어 두었다.

그로부터는 이 할머니가밖에 나가다가 돌아와 보면 하얀 쌀밥에 겉게 자른 밥상이 자려서서 놓여 있었다. 이상한 일도 있다 하고 하루는 숨어서 보니까 농안에 들어온 고슬이 고은 색시가 돼서 나와서 밥을 한 상 잘 차려 놓았다. 할머니는 얼른 나와서 그 색시를 붙들고 웬 색시냐고 물었다.

색시는 자기는 공쥐인데 팔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감사를 한 번 정매다가 음식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마겼다고 하고 하루는 감사를 청했다.

감사가 와서 음식상을 받고 보니 저가락이 짹짹하고 또 거기로 놓여 있었다. 감사는 어째서 저가락이 짹짹하고 거기로 놔두고 물었다. 그때 농안에서 공쥐가 나와서 "감사님은 저가락이 짹 짹하고 거기로 놓여 있는 것은 아리시면서 마누라가 바깥에 제대로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모르십니까?"하고 말했다. 감사는 이 말을 듣고 그제야 깨닫고 팔쥐가 공쥐 노릇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공쥐를 괴롭히기만 한 팔쥐와 팔쥐 어머니를 잡아다가 죽이고 공쥐하고 잘 살았다고 한다.

(안국전설화/ 평민사)

해와 달이 된 남매

옛날에 어니 산골에 낸 하나아 살고 있드랬던데 집이 가난해서 농에 집에 가서 방아 품드 팔고 벼도 매주고 가우가우 살고 있었다. 이 낸은 젓머이 애기와 대엿으 난 아덜과 딸이 있던데 품팔러 갈적에는 집이다 두고 갔다.

하루는 고개 넘어 부재집에 가서 하루 종일 방아품을 팔고 개떡을 얻어 개지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개 하나를 넘으니가니 뱀이 나와서 길을 막고 그 개떡을 주온 안 잡아 먹었다고해서 개떡을 주었다. 뱀은 개떡을 먹고 어디메로 갔다. 고개를 또 넘으니가니 아까 그 뱀이 나와서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 주온 안 잡아먹었다고 해서 수건을 벗어 주었다. 뱀은 그 수건을 개지고 어디메로 가버렸다.

고개를 또 넘으니가니 그 뱀이 나와서 저고리를 벗어주온 안 잡아먹었다고 했다. 내이 저고리를 벗어주느니 뱀은 반아 개지고 어디메로 가버렸다. 또 한 고개를 넘으니가니 뱀이 또 나타나서 초매를 벗어주온 안 잡아먹었다고 해서 초매를 벗어 주었다. 뱀은 초매를 반아 개지고 가버렸다. 또 한고개를 넘으니가니 뱀이 나와서 속곳을 벗어주온 안 잡아먹었다고 해서 속곳을 벗어 주었다. 뱀은 속곳을 반아 가지고 갔다. 또 고개를 넘으니가니 뱀이 또 나와서 팔을 떼어 주온 안 잡아먹었다고 했다. 내이 팔을 끈어 주느니 뱀은 팔을 개주고 갔다. 고개를 또 넘으니가니 뱀이 또 나와서 낸을 잡아먹었다.

뱀은 낸을 잡아먹고 내의 수건을 쓰고 내의 초매와 저고리를 입고 그 내의 집에 가서 "아가야, 오마니 왔다. 문열라."고 했다. 목소리가 저 오마니의 목소리가 아니어서 우리 오마니 목소리가 아니

다 마엔 문을 열러 주디 압오느니 뱀은 내려 먼길을 오면 바람을 많이 쐬서 목이 췌서 그르다 그 했다. 아덜은 "오마니 손 좀 만져보자. 문그렁으로 디리 밀어보라"고 했다. 뱀이 손을 드러밀러 주니가니 맨저 보고 "우리 오마니 손은 보들보들한데 이 손은 갈갈하다. 오마니 아니다."했다. 뱀은 "내래 부자집에서 베틀 매조느라 손에 풀이 말라 붙어서 갈갈하다. 날래 문 열라"고 과했다. 아덜은 할 수 없이 문을 열러 주느니 뱀은 방으로 들어와 언나 젓 먹이갔다고 언나를 안고서 오궁에 가서 잡아먹었다. 언나를 잡아먹느라 오뚜오뚜 소리가 났다. 아덜은 "엄매야, 여 먹어"하느니 부재집에서 콩다느기 먹는다 했다. 나 좀 달라고 하느니 뱀은 언나 손가락을 던져 주었다. 아덜이 이것 보고 더가니 오마니 아니고 뱀이란다 하고 도망갈 생각으로 "엄매야, 나 똥 매리워"했다. 거기서 누워라 하느니 쿠린네 나서 안된다 했다. 그름 도락에 누워라. 뱀은머카가네, 그름 제통(변소)에 가 누워라. 그래서 아덜은 밖으로 나와서 멀리 똥에서 움물역(우물가)에 있던 나무에 올라가 있었다.

아이들이 띠(똥) 노래 나가더니 오디 안해서 뱀은 아덜을 얻어(찾아) 보갔다고 나와서 여게저기 얻어 보다가 움물 역에 와서 움물안을 들다봤다. 움물안에 있어서 "아덜아 이리 나오나, 날래 나오나"하엔 소리했다. 그 모양이 우스워서 아덜이 미미 하고 웃었다. 뱀은 움물소리를 듣고 나무를 떼다보고 "너들 어드렇게 거게 올라가 있네?"했다. 사내아래 앞집에서 거름을 얻어다가 나무에 발루 올라왔다고 했다. 뱀은 앞집이 가서 거름을 얻어다 나무에 발루 올라갈라니네 미끄러워서 올라 갈 수 가 없었다. 뱀은 "너들 어드렇게 해서 올라 갔네?" 다시 물오느니 어린 처내래 건너 집에서 도끼를 얻어다가 그 걸로 나무를 띄고 올라왔다고 말했다. 뱀은 건너집이 가서 도끼를 얻어다 나무를 띄오엔 올라 왔다. 뱀은 이 아덜 있는 데까지 거이거이 올라오게 되느니 아이들은 급해서 하늘에다 대고 "하느님, 우리를 살릴라온 새 동애줄을 내려 주고 죽일라온 색은 동애줄을 내려 주시오."하고 빌었다. 새 동애줄이 내려와서 아덜은 이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뱀이 나무에 올라가 보느니 아덜은 이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뱀도 하늘에다 대고 빌었다. "하느님, 나를 살리갠라온 새 줄을 내려 보내주고 죽일라온 색은 줄을 내려시오"하고 빌었다. 색은 줄이 내려와서 뱀은 이것을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줄이 끊어해서 아래로 떨어졌다. 뱀이 떨어진 곳은 쇠시대를 베키네 쇠시끄덩이가 있었드네 뱀은 쇠시끄덩이에 짚해서 피를 내고 죽었다. 그래서 쇠시대에는 지금도 뱀에 피가 묻어 있다고 한다.

아덜은 하늘로 올라가서 사내 아이는 달이 되고 처내는 매가 됐다고 한다.

(이 오노이는 하늘에 올라가서 오래비는 매가 되고 누이는 달이 됐다. 그런데 누이는 밤에 다니기가 미쉽다 하엔 매가 돼서 낮에 다니고 싶다고 했다. 오래비는 달이 돼서 밤에 다니고 누이는 매가 돼서 낮에 다니게 됐드네 오늘날 달보고 매오래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안국전설화 평민복도편 II/ 평민사)

여인을 도운 계란 자라 절구통 멍석 지게 작대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팔죽말씀과 오랑이' 이야기도 동네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옛적에 어떤 산중에 한 집이 있었더니 이 집 식구들 뒷산 오랑이가 다 잡아먹고 여인네 하나만 남게 났다. 이 예인네는 이번엔 내가 잡아먹히게 되었고 이 예인네가 잡아먹히게 되니 것이 생각하니 원통하고 서러워서 풀죽이나 실컷 먹고 죽겠다고 풀죽한 한 술 끓여냈다. 그런데 풀죽을 먹으라고 멍석에 실음이 제절로 나서 먹도 못 먹고 울고 있었다.

이때 당갈이(당갈) 데굴데굴 굴러오더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왜 울우?" 하고 물었다. "오랑이가 와서 잡아먹으라고 미서 온다" 이렇게 말으며 "나 풀죽 한그럭 주면 못 잡아먹게 어지" 그래서 이 예인네는 당갈한티 풀죽 한 그럭을 주었다.

쪼끔 잊었게 자래가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왜 울우?" 하고 물었다. "오랑이가 와서 잡아먹으라고 미서 온다" "나 풀죽 한 그럭 주면 못 잡아먹게 어지" 그래서 예인네는 자래한티 풀죽 한 그럭을 주었다. 자래는 풀죽을 다 먹고 똥통에 들어가서 숨었다.

쪼끔 잊었게 메가 들어왔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왜 울우?" "오랑이가 와서 잡아먹으라고 미서 온다" "나 풀죽 한그럭 주면 못 잡아먹게 어지" 그래서 풀죽 한 그럭 중게 예인네 풀죽을 다 먹고 마롱 밑이가 숨었다.

다음엔 도구동이 와서 "아주머니 아주머니, 왜 울우?" "오랑이가 와서 잡아먹으라고 미서 온다" "나 풀죽 한그럭 주면 못 잡아먹게 어지" 그래서 풀죽 한 그럭을 주니게 도구동이 풀죽을 다 먹고 방문 우구가 올라앉았다.

다음에는 지게가 와서 "아주머니 아주머니, 왜 울우?" "오랑이가 와서 잡아먹으라고 미서 온다" "나 풀죽 한그럭 주면 못 잡아먹게 어지" 풀죽 한 그럭을 주니게 다 먹고 마당에 가서 서 있었다.

다음엔 맷방석이 왔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왜 울우?" "오랑이가 와서 잡아먹으라고 미서 온다" "나 풀죽 한그럭 주면 못 잡아먹게 어지" 풀죽 한 그럭을 주니게 다 먹고 마당에 가서 딱 퍼서 누었다.

좀 지낸게 작대기가 갠중갠중 걸어왔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왜 울우?" "오랑이가 와서 잡아먹으라고 미서 온다" "나 풀죽 한그럭 주면 못 잡아먹게 어지" 풀죽 한 그럭 중게 다 먹고 나서, "아주머니, 이따가 오랑이가 와서 방으로 들어와서 잡아먹으라고 하거든 중게(주우니가) 불 켜고 와서 잡아 먹으라고 예고, 불 켜고 들어올라고 어떤 뭇통에서 손 씻고 들어올라고 어떤 마룻에 가서 바람 쐬고 들어와서 잡아먹으라고 예고 일일이 일러 주고 마당 한 귀퉁이 가서 숨었다.

이러고 나자 오랑이가 왔다. 잡아먹으라고 방으로 들어올라고 할 적에 예인네는 중게 부석쪽에 가서 불 켜고 들어와서 잡아먹으라고 있다. 오랑이네 똥통에 가서 손 씻고 멍석에 앉으라고 멍석에 자래가 손 씻고 물었다. 자래가 손 씻고 물어서 손이 깨끗하니 방으로 들어올라고 있다. 예인네는 마롱에 가서 바람 쐬고 들어와서 잡아먹으라고 있다. 오랑이네 마롱으로 나가게 메가 나와서 똥통에 앉으라고 오랑이네 방으로 들어올라고 어니디 방문 우구 있던 도구동이 툭 떨어져서 똥신 얻어 맞았다. 오랑이

넌 언어맞고도 방으로 들어올라고 미서 예인네는 속이 답답할 틈에 마당에 가서 바람이나 쐬고 들어와서 잡아먹으라고 있다. 오랑이가 마당으로 나가니게 맷방석이 두루루 앉았다. 맷방석이 오랑이를 말여놓게 지게가 오다다 와서 짊어지고 작대기가 지게를 지고 바대로 가서 오랑이를 바대로 띄워 버렸다. 이렇게 미서 예인네를 잡아 먹으라고 여인 오랑이를 짊어 버렸다.

글동무 세사람

옛날에 세 아이가 어느 절에서 하늘서 내려온 사람한테서 글을 배웠다. 여러 해 글을 배우고 글 배우기를 끝마치게 되자 선생님은 이 세 아이에게 너이들은 장차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다. 그러니게 한 아이는 신선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한 아이는 감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또 한 아이는 나는 신선도 되고 감사도 되고 큰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세 아이는 공부를 마치고 헤어졌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다. 신선이 되고 싶다는 아이는 신선이 됐다. 감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는 피양감사가 됐다. 피양감사가 돼서 피양으로 행자를 재려서 가는데 어떤 깊은 산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신선이 나타났다. 나타난 신선을 보니까 옛날 같이 글공부하던 친구여서 오랫동안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신선이 사는 데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는데 안고 문 열어보니 게 풀과 나무가 푸르푸르하고 온갖 꽃이 피어 있는 봄경치가 있었다. 또 한 문 열어보니 물이 펄펄 흘러내리는 여름 경치가 있었다. 또 한 문 열고 보니까 단풍이 가득한 가을 경치를 이루고 있고 또 한 문 열고 보니까 백설이 분분한 겨울 경치가 있었다.

감사는 이런 여러가지 경치를 보고 있는 동안에 전에 절에서 공부하던 동무 생각이 나서 신선보고 "또 한 동무는 어디 있을까. 여기 같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말했다. 신선은 또 한 동무는 저기 있으니까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감사는 만나게 해 달라고 하니 신선은 한 곳을 가리키며 그 동무는 저기 있다고 했다. 가리키는 곳을 보니 구렁이가 한 마리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감사는 깜짝 놀라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던 동무를 저런 꼴을 하고 있게 해서 쓰겠는가. 어서 빨리 사람으로 태어나 마지 않느냐"고 말했다. 신선은 "나라고 그런 생각이 없겠는가. 그렇지 마는 저 동무는 워낙 욕심이 많아서 사람노릇을 할 수 없어서 저런 꼴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네. 자아, 저 동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한번 보게로 하세" 하고 구렁이더러 "우리 옛 동무가 셋이 모였으니 같이 먹게 저기 저 울영도 (상상의 나무에 여는 복숭아인듯하다. 이 복숭아는 신선이 먹는 열매라고 한다.) 나무에 올라가서 울영도가 있는 데로 다 따오게" 했다. 그랬더니 구렁이는 울영도 나무에 올라가서 다섯 개 열린 것 중에 두 개를 제각 따먹고 세개만 따 가지고 내려왔다. 신선은 구렁이보고 울영도가 세개밖에 없던가, 하고 물으니 구렁이는 세 개밖에 없더라고 했다. 신선은 이 구렁이 말을 듣고 감사보고 "자아, 보게 저 동무가 저렇게 욕심이 많으니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고 저 동무는 그대로 구렁이로 놔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머느리 방귀

옛전에 어떤 집에서 새 메느리를 얻어왔으니 이 메느리가 시집을 와서는 뽀뽀 말리고 얼굴이 누렇게 황통이가 되고 그래서 마루는 시어머니가 메느리보고 "메느리가, 너는 시집을 때는 얼굴도 좋고 기색도 좋더니 지금은 얼굴이 누르고 황통이가 되고 뽀뽀 말려 가고 있으니 이상하구나. 왜냐해서 그러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게 메느리는 "예, 제가 저의 집에 있을 때는 방귀를 맘놓고 맘대로 끼었었더니 시집와서는 시집어런덜 앞에서는 그럴수가 없어 방귀 끼는 것을 꼭 참고 못 끼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게 시어머니는 "방귀 못 끼어서 뽀뽀 말리고 얼굴이 황통이가 돼서야 새겼나. 아오 염려 말고 네 맘껏 맘대로 끼어라" 이러니게 메느리는, "그럼 맘놓고 끼어 보겠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지등을 짹 붙잡고 시어머니는 술뚜개를 짹 붙잡고 신랑은 마루장을 짹 붙잡고 계세요 아입니다." 이래서 시아버지는 지등을 붙잡고 시어머니는 술뚜개를 붙잡고 신랑은 머루장을 잡고 있었더니, 메느리가 방귀를 한 방 팡 하고 끼었더니 그만 집이 반쯤 썩어지고 지등이 온들거리고 술뚜개도 오그로 나려 올라가고 마루장이 덜석 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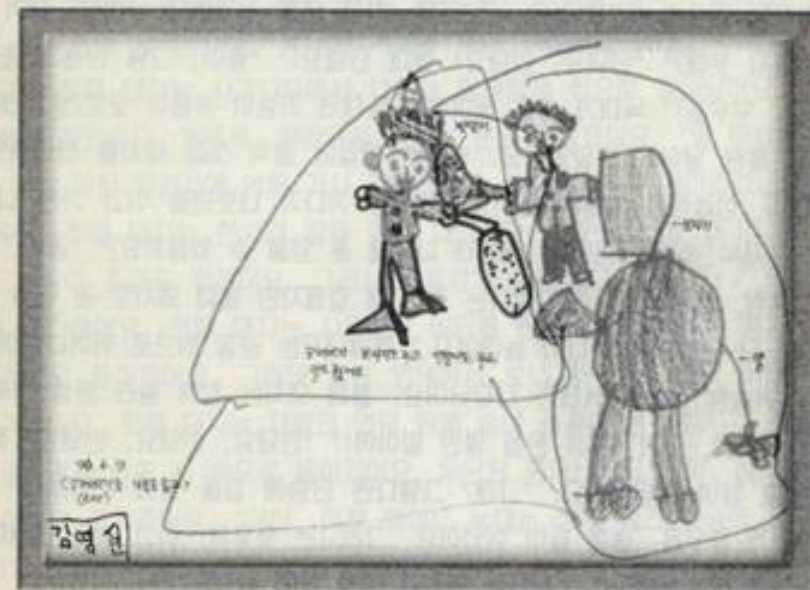
이집 메느리 방귀가 어찌 세고 요란하던지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전라도 그 어디가 어떤 디에 방귀를 잘 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방귀쟁이가 이 소문을 듣고 어디 한 번 방귀 내기나 해 보자 하고 이 메느리 있는 디로 잡어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귀쟁이는 그메느리네 집이다 대고 방귀를 한 방 팡 하고 끼어서 그집이 썩어졌어요. 메느리가 이것을 보고 분이 나서 방귀를 끼어서 썩어진 집을 반듯이 일으켜 놓고 궁둥이에다 방앗공이를 대고 전라도 방귀쟁이한테대고 방귀를 끼었더니 방앗공이는 전라도 방귀쟁이한테로 날라갑니다. 전라도 방귀쟁이는 방앗공이가 날라서 저한테로 오니게 궁둥이를 끼고 날려오는 방앗공이에다 대고 방귀를 뽀 하고 끼니게 날려오던 방앗공이는 도로 메느리 쪽으로 날라 갑니다. 메느리는 또 궁둥으로 날려오는 방앗공이에다 대고 끼니게 여자 쪽으로 끼고 여자가 끼니게 전라도 방귀쟁이 쪽으로 끼고 이렇게 맏게 방앗공이는 궁둥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여자가 낀 방귀하고 전라도 방귀쟁이가 낀 방귀하고 궁둥에서 맞붙었지니게 방앗공이는 中天으로 폭 솟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방앗공이는 매질 만에 동해바다에 떨어져서 방아라는 괴기가 났다고 합니다.

도적잡은 방귀

옛날에 어떤 마을에 방귀를 잘 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부자로 사는 사람의 집에 날마다 도적이 들어서 이 부자는 누구든지 도적을 잡어주면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광고를 냈다. 한 방귀쟁이가 이 광고를 보고 부자집에 찾아가서 자기가 도적을 잡어 주겠다 하니가 부자는 그러라고 했다.

이 방귀쟁이는 밤에 부자집에 가서 벽에 들어가서 숨어서 궁둥이만 내놓고 도적이 들어오면 한 방 뽀 끼어서 도적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 도적이 벽으로 들어왔을때 이 방귀쟁이는 들어오는 문쪽에다 대고 방귀를 끼었더니 도적은 놀라서 아무것도 움켜잡지 못하고 달아났다.

다음날밤 도적은 이 부자집에 들어올 적에 커다란 가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방귀 나오는 밑구멍을 틀어막고 문간을 움켜져 했다. 그런데 이 방귀쟁이는 힘을 주어 방귀를 끼었더니 밑구멍을 틀어막은 가지가 탁 휘어나와 도적놈을 세게 쳐서 쓰러트려서 도둑놈을 잡게 하고 재산을 얼마간 얻어가 졌다.



- ▶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 내려옵니다. 사투리, 입말을 그대로 살려서 실었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옛날 옛날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아침 죽을 먹고 나면 들판에 나가 하루 종일 뛰어 놀았어요. 풍당풍당 물장구도 치고 텅굴텅굴 진흙탕에서 구르기도 했어요. 어느날 엄마돼지가 아기돼지 삼형제에게 말했어요,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 각자 집을 떠나서 살도록 해라. 혼자서 집을 짓고, 언제나 늑대를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알겠니?" "예, 엄마! 알았어요 걱정마세요" 아기돼지 삼형제는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각자 길을 떠났어요.

셋째 돼지는 강충강충 뛰며, 즐겁게 길을 갔어요. 그러다 집단을 들고 가는 농부를 만났어요. "아저씨, 집을 짓게 집단 좀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셋째돼지는 설령설령 초가집을 지었어요. "이야, 집이 다됐다!" 셋째돼지는 밖으로 나가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커다란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어요. "으으으으 맛있게 생긴 아기 돼지구나." 늑대가 군침을 흘리며,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어요. "으악! 늑대다!" 셋째돼지는 깜짝 놀라 초가집 안으로 도망쳤어요. 그러고는 꼭꼭 문을 잠갔어요. "이봐, 아기 돼지. 빨리 문을 열지 못해?" "안돼요, 안돼요! 절대 안돼요!" "종아, 그럼 단숨에 초가집을 날려버리겠다. 우우우!" 늑대가 숨을 들이쉬자 늑대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더니 셋째돼지의 초가집이 올라 날아가고 말았어요. 늑대는 한입에 꿀꺽 셋째 돼지를 잡아먹었어요.

둘째 돼지도 성큼성큼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가다가 나뭇단을 이고 가는 나무꾼을 만났어요. "아저씨,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종아, 그렇게 하려무나." 통탕, 통탕. 둘째 돼지보다는 좀 오래 걸렸지만 둘째 돼지도 곧 집을 지었어요. "이야호! 다 됐다! 이제 나가 놀아야지." 둘째돼지는 곧장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해가 질 무렵 어슬렁 어슬렁 늑대가 나타났어요. 둘째 돼지는 깜짝 놀라 문을 꼭꼭 잠갔어요. 광광! "이봐, 아기 돼지! 문을 열란 말이야!"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둘째 돼지가 오들오들 떨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단숨에 집을 날려 버리겠다" 늑대는 전보다 더 크게 우우우, 숨을 들이 쉬었어요. 그러고는 푸우욱! 하고 숨을 내쉬어 단숨에 둘째 돼지의 집을 날렸어요. 늑대는 한입에 꿀꺽 둘째 돼지도 잡아 먹었어요.

첫째 돼지도 두뼉두뼉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가다가 벽돌을 지고 가는 일군을 만났어요. "아저씨,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벽돌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종아 그렇게 하렴." "영차 영차!" 첫째 돼지는 땅을 뿔뿔 울리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셋째 돼지, 둘째 돼지보다는 좀 오래 걸렸지만 첫째 돼지도 곧 집을 다 지었어요. "야! 됐다. 이제 텃밭을 가꿔야지." 첫째 돼지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어요. 조금 있다 늑대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어요. 첫째 돼지는 얼른 집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꼭꼭 잠갔어요. 광광! "이

봐! 아기 돼지, 문을 좀 열지 그래"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열 수 없어요." "종아. 그렇다면 단숨에 집을 날려 버리겠다. 우우우, 우우우." 늑대가 어찌나 크게 숨을 들이 쉬던지 저고리의 앞 단추가 투두둑! 떨어졌어요. 늑대는 푸우욱! 있는 힘을 다해 숨을 내쉬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꿈쩍도 하지 않잖아." 늑대는 힘이 빠져 탈색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봐, 아기돼지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내일 아침 일찍 무밭에 가서, 함께 무를 뽑지 않을래" "종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여섯시에 만나자고."

다음날 첫째 돼지는 다섯시에 무밭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무를 뽑아,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섯시가 되자 어슬렁어슬렁 늑대가 나타났어요. 뚝뚝! "아기돼지야, 나야 나" "아이, 이를 어쩌지요? 전 벌써 무를 뽑아 죽을 꿈이고 있는 걸요" 늑대는 악이 올라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다음날 아침, 늑대가 찾아 왔어요. "이봐, 내일 아침 함께 사과 밭에 가지 않을래? 사과가 빨갛게 익어 맛이 참 좋아." "그러죠 뭐. 몇 시에 만날까요?" "다섯시로 하지" 다음날, 첫째 돼지는 한시간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사과 밭은 꽤 먼 곳이라, 약속 시간이 다 돼서 도착했어요. 첫째 돼지가 급하게 사과를 따고 있을 때 어슬렁어슬렁 늑대가 나타났어요. "어때, 사과가 잘 익었지?" "그~~그럼요, 맛도 아주 좋은 걸요, 이거 하나 드실래요?" 첫째 돼지는 들고 있던 사과를 힘껏 던졌어요. 사과가 언덕 아래로 떼구르르 굴러갔어요. 늑대는 사과를 쫓아 어검지검 아래로 아래로 달려갔지요. "이때다!" 첫째 돼지는 사과나무에서 내려와 열레벌떡 집으로 돌아났어요. 그러고는 꼭꼭 문을 잠갔어요. 뚝뚝. 한참뒤에 늑대가 문을 두드렸어요. "옆 마을에 장이 설 거란다. 내일 아침 일곱시에 함께 가지 않을래?" "종아요, 아주 재미있겠네요."

다음날, 첫째 돼지는 한시간 일찍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늑대는 장에 갈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첫째 돼지 집앞 나무 아래 앉아 첫째 돼지를 기다렸어요. 첫째 돼지는 시장에서 버터를 만들 통을 샀어요. 해가 질 무렵, 첫째 돼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앞 언덕에서 보니 저 멀리 나무 아래 늑대가 앉아 있는 거였어요. 첫째 돼지는 재빨리 언덕 뒤에 숨어 곰곰이 생각했어요. 첫째 돼지는 버터를 만들려고 사온 통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당탕 통탕! 버터 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언덕 아래로 굴러갔어요. "어어, 이게 뭐야!" 늑대는 깜짝 놀라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돌아났지요.

얼마 있다 늑대는 첫째 돼지에게 속은 것을 알았어요. "어디 두고 보자, 그렇지, 사다리를 타고 굴뚝으로 들어가야지." 그 동안 첫째 돼지는 커다란 솥에다 물을 팔팔 끓이기 시작했어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불꽃에서 나는 연기가 모락모락 굴뚝을 타고 올라갔지요. 늑대는 김과 연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다 그만 다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풍덩! 솥에 빠지고 말았어요. "앗, 뜨거!" 첫째 돼지는 재빨리 솥뚜껑을 닫고, 늑대를 보글보글 끓여서 맛있게 저녁밥으로 먹었습니다. < 웅진출판 >

헨젤과 그레텔

가난한 나무꾼이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숲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 이름은 헨젤이고 여자 아이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늘 먹을 것이 부족하곤 했는데, 거기다가 그 해에는 큰 기근이 나라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서 나무꾼은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그나마도 마련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는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걱정을 하느라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둘이 먹을 것도 없을 지경이니 우리 불쌍한 아이들한테는 뭘 먹이지?"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방도가 있긴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리고 숲 속 감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불을 피우고 아이들에게 빵 한 덩어리씩을 나눠 준 뒤 아이들을 거기 내버려 두고 우리는 일을 하러 가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집으로 오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이들한테서 벗어날 수 있대구요." "안 돼, 여보 그럴 수는 없어, 내 아이들을 숲 속에 버리고 올 수는 없어, 그랬다가는 맹수들이 금방 그 애들을 잡아먹고 말텐데," 그러자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네 식구는 이대로 굶어죽고 만단 말이에요. 일찌감치 관 찰 궁리나 하는 게 좋을걸요!" 아내가 자주 이런 말을 되풀이하면서 괴롭히는 바람에 마침내 나무꾼은 아내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밤 두 아이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모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레텔은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헨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어." 그러자 헨젤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그레텔. 염려하지마, 내가 곧 좋은 방도를 생각해 낼테니까." 엄마 아빠가 잠이 들자 헨젤은 옷을 걸쳐 입고 살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집 앞에 널려 있는 자갈들이 마치 순은으로 된 은화처럼 달빛에 아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헨젤은 가능한 한 많은 자갈들을 주워 주머니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다시 방안으로 돌아온 헨젤은 그레텔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저 편안히 잠이나 자,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나서 헨젤도 자기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계모가 와서 두아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들아! 나무하러 숲으로 가야 해." 계모는 아이들에게 빵 한조각씩을 안겨 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점심이야, 이것 말고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심 때가 되기 전까지는 먹지마." 헨젤의 주머니 속에는 자갈이 가득 들어 있었으

므로 그레텔은 그 빵 조각들을 자기 앞치마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식구는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쯤 걸어갔을 때 헨젤은 걸음을 멈추고 집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이따금 돌아볼 때면 아버지가 한 마디 했습니다. "뭘 보고 있는 거냐, 헨젤? 왜 자주 꾸물거리는 거지? 그저 앞만 보고 부지런히 걷도록 해라."

헨젤은 말했습니다. "전 우리 집 지붕위에 있는 하얀 새끼 고양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고양이는 저한테 잘 다녀오라는 작별인사를 하고 싶어해요." 그러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으니, 그건 고양이가 아냐, 해가 굴뚝 위에서 빛나고 있는 거지" 사실 헨젤은 고양이를 본 것이 아니고 주머니 속에서 윤이 나는 하얀 자갈을 꺼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씩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숲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애들아, 뭘나무를 좀 모아 오너라. 너희들이 좀지 않게 불을 피워 줄테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조그만 나뭇단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나뭇가지에 이내 불이 활활 살아나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자, 애들아, 불 옆에 누워 편이 쉬고 있으렴. 우리는 나무하러 숲 속으로 들어갈테니까. 일이 끝나면 돌아와 너희들을 데려가마." 헨젤과 그레텔은 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가 되자 그들은 빵을 먹었습니다. 도끼질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으므로 그들은 아버지가 근처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끼질 소리가 아니고 아버지가 죽은 나무에 매달아 놓은 나뭇가지 하나가 바람에 날려 죽은 나무를 탁탁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오누이는 오랫동안 불 옆에 앉아 있다 보니 그만 졸음이 와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날은 이미 칙칙같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레텔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숲에서 빠져나가지?" "달이 뜰 때까지 좀 기다려봐,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을거야." 헨젤은 동생을 달랬습니다. 얼마 후 보름달이 떴습니다. 헨젤은 누이동생의 손을 잡고 새로 주조된 은화처럼 반짝이면서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자갈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밤새껏 걸어 날이 샢 무렵에야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계모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계모는 헨젤과 그레텔이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대뜸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것들, 왜 그렇게 숲속에서 오래 잠을 피자? 우리 너희들이 다시는 오지 못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들을 숲 속에 버리고 온 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던 터라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온 나라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이들은 잠자리에 누운 계모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또다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집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빵 한 덩어리 뿐이에요.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 모두들 손가락만 빨고 지내야 할 형편이라고요. 그러니 아이들을 버려야 해요.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더 깊은 숲 속으로 데려가도록 합시다. 안 그랬다면 모두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채 '그 마지막 남은

빵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하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듣기는 커녕 그를 비난하고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일단 손을 내주게 되면 다음에는 팔을 내줘야 하는 게 세상 이치 이므로 이미 한번 계모의 말을 들은 이상 아버지는 이번에도 계모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번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잠들었을 때 헨젤은 전처럼 자갈을 모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모가 문을 잠가 놓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헨젤은 누이동생을 달래 주기 위해 말했습니다. "울지마, 그레텔. 마음 폭 놓고 잠이나 자. 아늑함이 우리를 도와주실거야."

이튿날 새벽, 계모는 아이들 방으로 와서 아이들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아이들은 계모에게서 빵 한 조각씩을 받았는데 그것들은 전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이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 속에서 빵을 조금씩 뜯어내 길바닥에다 하나씩 떨어뜨려 자주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자주 멈춰 서서 두리번거리는 거냐, 헨젤? 어서 부지런히 걷거나 아가라!" 헨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집 지붕 위에 앉아 있는 조그만 비둘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녀석이 저한테 작별인사를 하고 싶어해요." 그러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그건 비둘기가 아냐, 해가 굴뚝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거지." 그러나 헨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길 위에 빵부스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계모는 아이들을 끌고 전보다 더 깊은 숲속, 아이들이 생전 처음 와보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또다시 모닥불을 피운 뒤 계모가 말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도록 해라. 졸리면 눈 좀 붙이고, 우리는 숲속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저녁에 일이다 끝나면 너희들을 데리러 이리로 오마." 점심 때가 되었을 때 그레텔은 자기 빵을 헨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헨젤의 빵은 길에다 모두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누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부모님은 불쌍한 아이들 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칠푼처럼 캄캄해졌을 때에야 오누이는 비로소 깨어 일어났습니다. "달이 뜰 때까지 기다려, 그레텔. 그러면 내가 부려 놓은 빵부스러기들이 잘 보일 것이고 우린 그걸 따라 집으로 갈 수 있어." 헨젤은 누이동생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달이 떴을 때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빵부스러기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 숲과 벌판에 사는 많은 새들이 그것을 모두 쪼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헨젤은 그레텔을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마. 길을 찾을 수 있을거야." 하지만 그들은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그 이튿날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걸었지만 숲에서 빠져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바닥에서 자라는 산딸기를 조금 먹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몹시 고파졌습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쳐 더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어 어느 나무 밑

에 쓰러졌습니다. 다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뒤로 세번째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숲속으로 자꾸 더 깊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너무나 굶주리고 지친 나머지 곧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그들은 아주 예쁘고 눈처럼 하얀 새 한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가 너무 고운 목소리로 노래불렀기 때문에 오누이는 멍청이처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를 다 부른 새는 날개를 저으며 그들 앞쪽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조그만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방으로 만들어진 그 집의 지붕은 케이크로, 창문은 설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헨젤은 소리쳤습니다. "우와, 이게 웬거지! 우리 맛 좀 보자, 난 지붕을 좀 뜯어먹고 싶어. 그레텔, 너는 창문을 좀 먹어 보렴. 아주 달 테니까 말이야." 헨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한 조각을 뜯어 냈고 그레텔은 창문 앞으로 가서 창문을 사각사각 갠아먹었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집안에서 귀청을 찢을 듯한 고향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쥐소리가 나는군, 내 집을 갠아먹는 게 누구냐?"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람, 바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어오는 아주 부드러운 바람.' 아이들은 다른 일에는 일체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정신 없이 먹어대기만 했습니다. 지붕이 어찌나 맛있는지 헨젤은 지붕을 크게 한 조각 떼어 내서 아래로 내려왔고 그레텔은 동그런 창문을 떼어낸 뒤 바닥에 주저 앉아 입맛을 다셔가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주 늙은 할멈 하나가 목발에 몸을 의지한 채 슬그머니 집으로 나왔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몹시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할멈은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누가 너희들을 이리로 데려온거냐? 안으로 들어가서 나랑 같이 살자꾸나. 아무도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할멈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멈은 두 아이에게 우유, 설탕 친 팬케이크, 사과와 호두 등 맛있는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하얀 시트가 덮인 조그만 침대 두 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각자 자기 침대에 누워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멈은 겉으로는 친절한 체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노리는 못된 마녀였습니다. 그 마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 방으로 된 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들만 보면 일단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해 놓고는 아이들을 죽인 뒤 요리해서 먹어 치우곤 했습니다. 그 마녀에게는 아이들을 죽이는 날이야말로 잔칫날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녀들은 대체로 눈이 빨강고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 반면 냄새 맡는 감각만큼은 동물들 못지 않게 좋아서 사람이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귀신같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이 자기집 근처에 왔을 때 마녀는 악마처럼 움푹하게 웃으며 종얼거

렸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밥이다! 절대로 내게서 도망치지 못해!"

이튿날 새벽, 마녀는 아이들이 잠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 장밋빛처럼 발그레한 뺨을 가진 그 아이들이 곤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맛있는 요릿감이 되겠는걸!" 마녀는 갈퀴같이 억센 두손으로 엔젤을 움켜 쥐고 조그만 우리로 데리고가 가두었습니다. 엔젤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녀는 다시 그레텔에게로 가서 그레텔을 흔들며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물을 길어 와서 네 오빠한테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줘. 네 오빠는 밖에 있는 우리 속에 갇혀 있어. 그 녀석을 피동피동하게 살피게 해야해. 제대로 살이 오르면 그 녀석을 잡아먹을거야." 그레텔은 슬픔을 못이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레텔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레텔은 그 못된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해야했습니다. 그리하여 불쌍한 엔젤은 아주아주 맛있는 요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레텔은 계검데기밖에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마녀는 그 조그만 우리로 다가가 소리치곤 했습니다. "엔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봐. 얼마나 살쨍는지 먼저 보게." 엔젤은 그 때마다 조그만 뼈를 내밀었고 마녀는 눈이 아주 나쁜 탓으로 그 뼈를 엔젤의 손가락으로 잘못 알곤 했습니다. 엔젤이 살이 찌지 않자 마녀는 당황했습니다. 한달이 지났는데도 엔젤은 여전히 썩마른 채로 있자 마녀는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냥 잡아 먹기로 하였습니다. 마녀는 그레텔에게 소리쳤습니다. "애, 그레텔! 가서 물 좀 길어 오너라. 이제 엔젤이 살이 썩건 말랐건 상관없다. 내일은 그 녀석을 잡아서 요리를 해 먹을 테다." 불쌍한 그레텔은 울면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두 뺨으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레텔은 탄식했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차라리 그 숲 속에서 맹수들한테 잡아먹혔더라면 적어도 함께 죽을 수는 있었을 텐데.."

이튿날 새벽 그레텔은 밖으로 나가 물을 가득 채운 솥을 걸고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때 마녀가 말했습니다. "우선 빵을 구워라. 밀가루는 벌써 반죽해 놓았고 오븐도 데워 놓았다." 마녀는 오븐 앞으로 불쌍한 그레텔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오븐 속에서는 불길 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녀가 말했습니다. "오븐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안의 온도가 적당하지 살펴보거라. 온도가 적당하면 밀가루 반죽을 안에다 집어넣어야 하니까." 마녀는 그레텔이 오븐 속으로 기어들어가면 오븐의 문을 닫을 속셈이었습니다. 그레텔도 구워서 먹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얼른 그 속셈을 눈치 채고 말했습니다. "아떻게 해야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가요?" "멍청한 년, 그 입구는 아주 넓어서 너 같은 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나까지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잘 봐." 마녀는 오븐 앞으로 뒤통뒤통 걸어가 오븐의 입구 속에다 머리를 들어 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레텔은 있는 힘을 다해 재빨리 마녀를 오븐 안으로 밀어 넣고는 쇠문을 닫고 문의 걸쇠를 잠가 버렸습니다. "으악!" 마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기 시

작했고 그레텔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못된 마녀는 오븐 속에서 비참하게 타죽었습니다. 한편 그레텔은 곧바로 엔젤에게 달려가 우리의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오빠, 우리는 살게 됐어. 마녀는 죽었어!" 우리의 문이 열리자 엔젤은 새장 속에서 풀려 나오는 새처럼 가볍게 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 할 것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진주와 보석들로 가득 찬 금궤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갈보다야 진주와 보석이 훨씬 더 좋지." 엔젤은 주머니 속에 진주와 보석들을 짹짹 채워 넣었습니다. "나도 좀 가져가야지" 그레텔도 진주와 보석들을 앞치마에 가득 담았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는게 좋겠다. 그래야 무사히 마녀의 숲을 빠져나갈 수 있을 테니까."

엔젤의 말에 따라 그들은 숲 속을 몇시간 동안 걸어 이윽고 큰 강이 흐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강을 건널 수가 없겠는데. 다리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아." 엔젤의 말을 받아 그레텔도 한마디 했습니다. "배도 없어. 하지만 저기 헤엄치고 있는 아얀 오리 한 마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줄거야." 그레텔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오리아, 오리아, 우리를 좀 도와주렴. 우린 엔젤과 그레텔이야. 우리는 큰 곤란에 처했어. 우리를 좀 건너게 해주렴!" 그러자 오리는 그들 쪽으로 헤엄쳐 왔습니다. 엔젤은 오리의 등에 올라 타면서 그레텔에게 자기 앞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레텔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 이 오리는 우리 두사람이 함께 타기에는 너무 작아. 한 번에 한사람씩 건너가야해." 그 친절한 오리는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오리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넌 오누이는 다시 숲 속을 걸어갔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낯익은 숲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오누이는 달리기 시작했으며 이내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아버지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숲 속에 자식들을 버린 뒤 한시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도 죽어 그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레텔이 앞치마를 펼쳐 흔들자 보석과 진주들이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을 괴롭이던 온갖 근심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그들은 더할 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림영제 걸작동화선집/ 현대 지성사 >

작은 빨간 모자

옛날에 귀여운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를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소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소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소녀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늘 손녀딸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안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손녀딸에게 빨간 색의 자그마한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모자는 소녀에게 매우 잘 어울려 소녀는 늘 그걸 쓰고 다녔으며, 그로 인해 그 소녀는 '작은 빨간 모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빨간모자야, 이리 온. 너 이 케이크와 포도주 병을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렴. 할머니는 병이 드셔서 몸이 약해지셨는데 이것들을 드시면 건강해지실 게다. 한낮이 되어 뜨거워지기 전에 얼른 출발하거라. 숲으로 들어가면 판전 부리지 말고 길만 따라 양전이 걸어가야 해요.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서 포도주 병을 깨뜨릴 거고 그러면 할머니께 드릴 것이 없을게 아니냐? 할머니 방에 들어갈 때 공연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고."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작은 빨간 모자는 어머니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숲 속에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숲 속에 들어서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늑대가 얼마나 못된 짐승인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늑대를 무서워 하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말했습니다. "안녕, 작은 빨간모자야."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늑대 아저씨." "이렇게 일찍 어디로 가는 거냐?" "할머니 댁에 가요." "그 앞치마로 뭘 건 뭐지?" "케이크하고 포도주요. 우리 할머니가 병이 드셔서 어제 우리는 이 케이크를 구웠어요. 할머니께 드려서 기운을 차리시게 하려고요." "네 할머니는 어디 사시니, 작은 빨간모자야" "여기서 15분쯤 더 가면 되요. 세그루의 큰 참나무 밑에 있어요. 개암나무 숲 가에 있다고 말해도 좋구요."

늑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 것은 아주 보드랍고 맛이 좋겠어. 그 할머니보다 훨씬 더 맛있을 거야. 할머니하고 이 어린 것 둘 다 잡아먹으려면 교묘한 꾀를 써야 할거야.' 그리고 나서 늑대는 작은 빨간 모자와 얼마간 나란히 걸어가다가 다시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야, 네 주위에 예쁘게 피어 있는 저 아름다운 꽃들을 좀 보렴! 왜 넌 둘러보지 않니? 그리고 새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데 넌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구나. 넌 마치 학교로 가는 애처럼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가는구나. 생각해 보렴, 숲속을 여기저기 거닌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작은 빨간 모자는 주위를 돌아보고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온 햇살이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숲에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꽃들을 한 다발 꺾어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면 할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실거야. 아직은 좀 이른 시각이니까 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녀는 길에서 벗어나 꽃들을 찾기 위해 숲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소녀가 꽃 한 송이를 꺾을 때마다 주위에 더 예쁜 꽃들이 피어있어서 소녀는 그 꽃을 향해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숲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늑대는 할머니의 집으로 곧장 가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작은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 드릴 케이크와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문 좀 열어 주세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빗장을 들어 올리면 된다. 난 기운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구나." 늑대가 빗장을 들어올리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늑대는 말 없이 할머니의 침대 옆으로 곧장 가서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의 옷으로 입고 할머니가 잠잘때 쓰는 모자를 쓴 뒤 할머니의 침대에 누워 커튼을 잡아 내렸습니다.

그 동안 작은 빨간 모자는 꽃을 찾아 숲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소녀는 한아름 가득 꽃들을 꺾은 뒤에야 비로소 할머니 생각을 떠올리고는 다시 할머니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머니 집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작은 빨간 모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을 때 소녀는 그 방이 아주 낯설게 느껴져 속으로 '보통 때는 할머니 방에 있는 게 좋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으스스한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침대로 다가가 커튼을 뒤로 쳤습니다.

침대에는 할머니가 누워 계시긴 했지만 할머니는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얼굴 있는 데까지 꼭 내려쓴 괴상한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요?" "귀가 커야 네 말을 좀더 잘 들을 수 있지."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커요." "손이 커야 널 더 잘 잡을 수 있지." "할머니 입은 왜 이렇게 커요?" "입이 커야 널 더 잘 잡아먹을 수 있지!" 늑대는 그 말을 끝마치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불쌍한 작은 빨간 모자를 한 입에 꿀꺽 삼켜 버렸습니다.

늑대는 뱃속을 채우고 난 뒤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들더니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사냥꾼은 그 집 옆을 지나다가 코고는 소리를 듣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렇게 코를 골다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으니 안을 들여다보는 게 좋겠어.'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 침대 곁으로 다가간 그는 늑대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냥꾼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네 놈을 찾아냈군, 난 널 오랫동안 찾아 다녔어." 사냥꾼은 총으로 늑대를 겨냥하다가 문득

늑대가 할머니를 삼켜 버렸다면 어쩌면 할머니를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위를 찾아내 그것으로 잠자는 늑대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어 번 가위질을 하자 늑대 뱃속에서 작은 빨간모자가 일곳 보였습니다. 그가 다시 몇 번 더 가위질을 하자 소녀가 밖으로 튀어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 늑대 뱃속은 정말 캄캄했어요." 이어서 할머니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살아 있긴 했으나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얼른 커다란 돌맹이 몇 개를 주워 왔고 그들은 그 돌맹이들을 늑대 뱃속에 채워넣었습니다. 이윽고 잠에서 깨어난 늑대는 얼른 달아나려 했지만 그 돌맹이들이 너무 무거워 꼭 고꾸라지더니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사냥꾼은 그 늑대의 털가죽을 벗겨 내 그것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빨간 모자가 가지고 온 케이크와 포도주를 마시고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 동안 작은 빨간 모자는 '앞으로 어머니가 길에서 벗어나 숲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꼭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그 다음에도 빵을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가다가 또 다른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 늑대 역시 작은 빨간 모자를 유혹해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번에는 조심하고 곧바로 할머니 집으로 가 늑대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늑대가 다정하게 인사를 했지만 소녀는 그 늑대의 눈빛에서 흉악한 마음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큰 길에서 벗어나기만 했다면 그 늑대는 대번에 나를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우리 그 녀석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도록 하자."

잠시 후 늑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줘요, 할머니. 작은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께 드릴 빵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할머니와 소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문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외색 늑대는 저녁이 되자 작은 빨간 모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녀가 나오면 그 뒤를 살금살금 쫓아가 어둠 속에서 잡아먹어 버릴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돌을 깎아 만든 커다란 구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야, 저 양동이를 들고 오너라. 어제 내가 소시지 요리한게 있는데, 소시지를 넣어 끓인 물을 그 양동이로 퍼담아 저 구유 안에다 부으렴." 작은 빨간 모자는 소시지 끓인 물을 그 큰 구유 속에다 여러 번 부어 구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소시지 냄새가 늑대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늑대는 코를 벌름거리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침내 늑대는 목을 너무 길게 뻗어 나마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지붕에서 미끄러져 그 큰 구유 속에 푹 빠져서 그만 끓는 물에 데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빨간 모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으며 오는 동안 아무도 소녀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림영재 걸작동화선집/ 현대 지성사 >

신데렐라

한 부자의 아내가 병이 들자 자신의 죽음에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외동딸을 머리맡에 불러 놓고 말했습니다. "애야, 착하고 신앙심 깊은 아이가 되거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너를 보살펴주마." 그런 다음 소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난 뒤 소녀는 너무 슬퍼 매일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가 당부한 대로 착하고 신앙심 깊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와서 눈이 하얀 담요처럼 무덤을 덮고, 봄이 와서 다시 태양이 그 눈을 걷어가 버릴 즈음에 그 부자는 새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계모는 딸 둘을 데려왔습니다. 두 딸은 생김새는 아름답고 깨끗했으나 심술궂고 사악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여운 소녀에게는 험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모의 두 딸은 말했습니다. "왜, 저 멍청한 계집애를 우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게 하는 거지? 밥을 얻어먹으려면 밥벌이를 해야지. 당장 나가, 이 식모 계집애야!" 그들은 소녀의 아름다운 옷을 벗겨 버리고 낡은 젓빛 작업복을 입히고는 나무 신발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저 거만한 공주님 꺾 좀 보라지, 아주 근사하게 차려 입으셨군!" 그러고 나서 그들은 소녀를 부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소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힘겹게 일만 해야 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 와야 했고, 불을 때고 요리를 하고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붓언니들은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소녀를 괴롭히고 조롱했습니다. 아궁이의 재 속에다 콩을 잔뜩 쏟아 놓고는 소녀에게 그것을 알알이 주워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소녀가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소녀를 침대에서 몰아내 아궁이 옆의 잣더미에서 자게 했습니다. 소녀가 항상 재투성이의 더러운 모습을 하게 된 것도, 그리고 식구들 모두가 소녀를 '재투성이 아이'라는 뜻을 지닌 신데렐라라고 부르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장에 가면서 의붓딸들에게 무엇을 사다 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이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진주와 보석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신데렐라야, 너는 뭘 원하지?" 신데렐라는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실때 아버지의 모자에 닿는 첫번째 나뭇가지를 꺾어다 주세요." 장에 간 아버지는 두 의붓딸에게 줄 아름다운 옷과 진주와 보석을 샀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숲을 지나는데 개암나무 나뭇가지 하나가 가로막더니 아버지의 모자를 툭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의붓딸들에게는 그들이 원했던 것들을 주었고, 신데렐라에게는 개암나무 가지를 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그 나뭇가지

를 심은 뒤 아염없이 울었습니다. 신데렐라가 흘린 눈물은 그 나뭇가지에 떨어져 나뭇가지를 흠뻑 적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뭇가지는 쑥쑥 자라기 시작해 금세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매일 세 차례씩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나무 밑에 앉아 울며 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조그맣고 아얀 새 한 마리가 그 나무 위로 날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가 소원을 말할 때마다 그 새는 그녀가 바라는 것들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한편 그 나라의 왕은 왕자에게 신부감을 고를 기회를 주기 위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을 초대해 사흘간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신데렐라의 두 의붓언니는 자신들도 그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알고 몹시 기뻐하면서 신데렐라를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머리 좀 빗겨 주고 구두도 손질해 줘. 그리고 역대 버클을 단단히 채워줘!" "우린 임금님의 성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석해야 하거든."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으나 마음은 여간 슬프지 않았습니다. 신데렐라도 언니들과 함께 성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모에게 자기도 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너 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애가 그 잔치에 가고 싶다고? 년 옷도 구두도 없는데 어떻게 춤을 추지?" 신데렐라의 말을 들은 계모는 어림도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데렐라가 계속 애원을 하자 마침내 계모가 말했습니다. "내가 저 잿더미 속에 콩 한 알을 쏟아 놓았는데, 네가 그 콩들을 2시간 안에 모두 골라 담는다면 가도록 허락하마." 신데렐라는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착한 비둘기들아, 산비둘기들아,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아, 이리 와서 날 좀 도와주렴. 좋은 건 저 단지 안에 넣고, 나쁜 건 너희들이 먹고." 그러자 맨 먼저 두 마리의 아얀 비둘기들이 부엌 창가로 날아왔고 뒤이어 산비둘기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이 부엌 안으로 꾸역꾸역 모여들더니 채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들이 머리를 위아래로 까닥거리며 쿵 쿵 쿵 쿵 쪼기 시작하자 다른 새들도 역시 쿵쿵쿵쪼아서 이내 좋은 콩들을 단지 속에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새들이 단지를 꼭 채우는 데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들은 날아갔습니다.

이제 파티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리라 생각한 신데렐라는 여간 기쁘지 않아 들뜬 마음으로 그 단지를 들고 계모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말했습니다. "안돼! 신데렐라. 년 옷도 없고 춤을 출 줄도 모르잖니? 가보았자 사람들에게서 비웃음만 살거야." 신데렐라가 울기 시작하자 계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 시간 안에 저 잿더미 속에서 콩 두 알을 골라 내면 날 데려가마" 계모는 속으로 그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모가 잿더미 속에 콩 두알을 쏟아 부어 놓자 신데렐라는 뒷문을 통해서 마당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착한 비둘기들아, 산비둘기들아,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아, 이리 와서 날 좀 도와주렴. 좋은 건 저 단지 안에 넣고, 나쁜 건 너희들이 먹고." 그러

자 맨 먼저 두 마리의 아얀 비둘기가 부엌 창가로 날아왔고 뒤이어 산비둘기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아래 있는 모든 새들이 부엌 안으로 꾸역꾸역 모여들더니 채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둘기들이 머리를 위아래로 까닥거리며 쿵쿵쿵쪼기 시작하자 다른 새들도 역시 쿵쿵쿵쪼아서 이내 좋은 콩들을 단지 속에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새들이 단지를 꼭 채우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들은 날아갔습니다.

신데렐라는 이제 파티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리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단지를 들고 계모에게 갔지만 계모는 이번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았자 소용 없다. 년 입고 갈 옷도 없고 춤을 출 줄도 모르니 날 데리고 갈 수는 없어. 우리는 너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말거야." 그리고 나서 계모는 신데렐라에게 등을 돌리고 두 거만한 딸들과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나 버리자 신데렐라는 개암나무 밑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온몸을 흔들어라 어린 나무야! 내 몸 위에 금과 은을 떨어뜨려 다오!" 그러자 새 한 마리가 금실과 은실로 지은 드레스 한 벌과 비단 수를 놓은 신 한 켤레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서둘러 그 옷을 갈아입고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실 은실로 지은 눈부신 옷을 입은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으므로 계모와 언니들은 그녀가 신데렐라인 줄 모르고 다른 나라에서 온 공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로서는 그녀가 신데렐라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쯤 신데렐라는 집안의 잿더미 속에서 재물은 콩을 골라 내고 있을 터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고 신데렐라 외의 다른 처녀들과는 춤을 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젊은이들이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춤을 추자고 할 때마다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 짝이오" 신데렐라가 왕자와 춤을 추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고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소." 왕자는 그 아름다운 처녀가 어느 집 딸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 앞까지 온 신데렐라는 재빨리 집에 있는 비둘기장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왕자는 집주인인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처녀가 비둘기장 속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설마 신데렐라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왕자에게 도끼 한 자루를 가져다 주면서 그 것으로 비둘기장을 부수어 보라고 했습니다. 왕자가 비둘기장을 부수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신데렐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잿더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뚝에 걸린 기름 등잔의 희미한 빛이 부엌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재빨리 비둘기장 뒷문으로 빠져나와 그 개암나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아름다운 옷을 벗어 무덤 위에 올려놓자 새가 그걸 물어가 버렸고, 그 뒤에 그녀는 재빨리 자기 집 부엌으로 되돌아와 잣빛 작업복 차림으로 잣더미 위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다시 파티가 시작되었을 때 신데렐라의 부모님과 두 언니는 일찍 집에서 나갔고 신데렐라는 다시 개암나무 있는 데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온몸을 흔들어라 어린 나무야! 내 몸 위에 금과 은을 떨어 주어다오" 그러자 그 새는 전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드레스와 신을 떨어 주어었습니다. 신데렐라가 그 드레스를 입고 다시 파티장에 나타나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랐습니다. 신데렐라를 기다리고 있던 왕자는 그녀가 나타나자 대뜸 그녀의 손을 잡고서 그녀하고만 춤을 출 뿐 다른 처녀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춤을 추자고 하면 왕자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분은 내 짝이오"

밤이 되자 그녀는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어느 집으로 들어 가는지 알고 싶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도 그에게서 달아나 정원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탐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열린 키 크고 아름다운 배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 가더니 다람쥐처럼 재빨리 그 가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어 집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집주인이 오자 그는 말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처녀가 또 달아나 버렸소. 내 생각에는 이 배나무 위로 올라간 것 같소."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설마 신데렐라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왕자에게 도끼를 가져다 주며 그것으로 배나무를 찍어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바닥에 쓰러진 나무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신데렐라는 평소 때처럼 잣더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그 배나무 반대편으로 뛰어내려와 그 아름다운 옷을 새에게 주고 다시 자신의 잣빛 작업복으로 갈아 입었던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녀의 부모님과 두 언니가 집을 떠나자 신데렐라는 다시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그 나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온몸을 흔들어라 어린나무야! 내 몸 위에 금과 은을 떨어 주어다오." 그러자 그 새는 이제까지 그녀가 받아 입었던 옷보다 더 한층 화려하고 눈부신 드레스와 순금으로 된 신을 떨어 주어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차림으로 파티장에 나타나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왕자는 오로지 그녀하고만 춤을 추었고 다른 청년들이 신데렐라에게 와서 춤을 청하면 왕자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분은 내 짝이오"

밤에 되자 신데렐라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왕자는 또다시 그녀를 바라다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신데렐라가 너무나 급히 그에게서 도망치는 바람에 왕자는 그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자도 미리 대책을 세워 두고 있었습니다. 즉, 궁궐에서 밖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송진을 발라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계단

을 달려 내려갈 때 그녀의 왼쪽 신이 거기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그 신을 집어든 왕자는 그것이 작고 우아하며 순금으로 된 신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그것을 들고 신데렐라의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 황금 신발이 꼭 맞는 발을 가진 처녀만이 내 아내가 될 수 있소." 두 언니는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모두들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는 그 신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신어 보려 했습니다. 신데렐라의 계모도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 신이 너무 작아 그녀의 큼직한 엄지발가락을 그 안으로 집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큰 딸에게 칼을 주며 말했습니다. "네 엄지발가락을 잘라 버리렴. 왕비가 되고 나면 네 발로 걸을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야."

큰 딸은 자기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리고는 지독한 아픔을 참으며 억지로 신 속에 왼발을 집어 넣은 뒤 왕자에게 갔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자기 신부감으로 생각하고는 말에 태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데렐라의 어머니 무덤 옆을 지나갈 때 개암나무에 앉아 있던 두 마리의 비둘기가 소리쳤습니다. "그 처녀가 신고 있는 신발을 좀 보세요. 온통 피투성이잖아요. 그 처녀의 발에는 신발이 너무 작지요. 그 처녀는 무도회에서 만난 처녀가 아니랍니다." 왕자는 그녀의 발을 내려다 보고는 황금 신에서 피가 줄줄 새어나와 그녀의 하얀 양말이 온통 새빨강게 물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그 가짜 신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 그녀는 자기가 만난 처녀가 아니니 다른 딸에게 신겨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딸도 방으로 들어가 신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발가락은 모두 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꿈치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칼을 건네 주며 말했습니다. "네 뒤꿈치를 조금 잘라 내렴. 왕비가 되고 나면 네 발로 걸을 일은 없을 테니까." 둘째 딸은 뒤꿈치를 조금 잘라 내고는 지독한 아픔을 참으며 억지로 신 속에 발을 집어 넣은 뒤 왕자에게 갔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자기 신부감인줄 알고 말에 태워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데렐라의 어머니 무덤 옆을 지날 때 개암나무에 앉아 있던 두마리의 비둘기가 또 소리쳤습니다. "그 처녀가 신고 있는 신발을 좀 보세요. 온통 피투성이잖아요. 그 처녀의 발에는 신발이 너무 작지요. 그 처녀는 무도회에서 만난 처녀가 아니랍니다." 왕자는 그녀의 발을 내려다보고는 황금 신에서 피가 줄줄 새어나와 그녀의 하얀 양말이 온통 새빨강게 물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그 가짜 신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처녀도 내가 만난 그 처녀가 아니오. 또 다른 딸이 없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신데렐라밖에. 그 애는 내 죽은 아내가 낳은 아이인데 아주 못생겨 왕자님의 신부감이 될 만한 애가 못 됩니다." 왕자는 그래도 그 처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오, 그 애는 보기에다 끔찍할 정도로 너무나 더러운걸요." 그래도 왕자가 보고 싶다고 하자 그들은 할 수 없이 신데렐라를 데려왔습니다. 신데렐라

는 먼저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나서 왕자 앞으로 나아가 왼발을 뒤로 물리고 오른쪽 무릎을 굽여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황금 신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녀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 위에 앉아 무거운 나무 신을 벗어 버리고 그 황금 신을 신었습니다. 그 신은 그녀의 발에 꼭 들어맞았습니다.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서자 왕자는 신데렐라를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그녀가 바로 자신과 춤을 추었던 그 아름다운 처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자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 진짜 신부감이에요!" 계모와 두 딸은 너무나 놀라 제자리에 얼어 붙었고 모두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신데렐라를 말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신데렐라의 어머니 무덤 옆을 지나갈 때 개암나무에 앉아 있던 두마리의 비둘기가 소리쳤습니다. "그 처녀가 신고 있는 신발을 좀 보세요. 꼭 맞아요. 피도 전혀 나오지 않지요. 그 처녀야말로 왕자님이 무도회에서 만난 처녀랍니다." 비둘기들은 그 사실을 알려 준 뒤 그 나무에서 날아와 신데렐라의 양어깨 위에 한 마리씩 앉았습니다.

왕자님과 신데렐라의 결혼식날, 두 의붓언니는 신데렐라에게 아침을 해서 신데렐라가 얻은 행운을 좀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데렐라를 찾아갔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교회를 향해 출발할 때 큰 언니는 신데렐라의 오른쪽에, 작은 언니는 왼편에 붙어서 있었는데 갑자기 두마리의 비둘기가 달려들어 두 사람의 눈알을 하나씩 쪼았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교회에서 돌아올 때도 큰언니는 신데렐라의 오른쪽에, 작은 언니는 신데렐라의 왼편에 붙어서 있었는데 비둘기들은 다시 그들의 남은 눈을 쪼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언니는 그들의 심술궂고 못된 마음씨 때문에 남은 평생동안을 장님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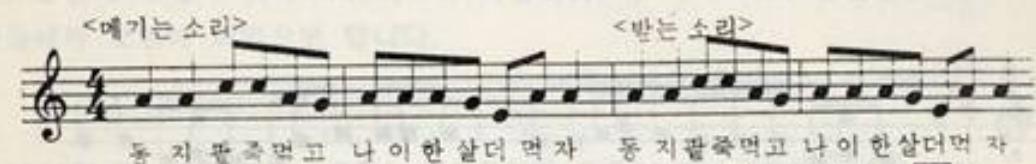
< 그림형제 걸작동화선집/ 현대 지성사 >

동지 팔죽

오방진

작사·곡/ 김석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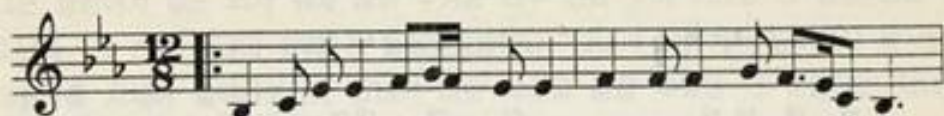
동지 팔죽 나이 한살 더먹자



산도깨비

1 인나는 노래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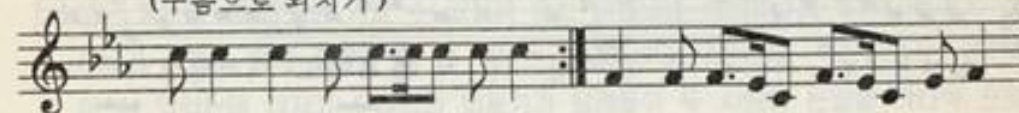
곳거리



달 빛어스른 한밤- 중 에 깊 은 산 길 걸 어가다
깁 짝 놀 라 바라- 보 니 틀 림 없 는 산 도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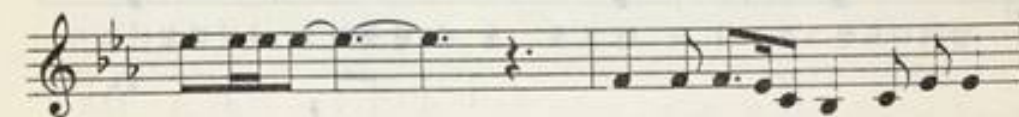
머 리에 꿰 달 린 도깨-비가 방 망이 돌 고서 에 루화 둥 둥
에 고야 정 말 - 큰 일-났 네 두 눈을 꼭 감고에 루화 둥 둥
(구움으로 외치기)



덩 덩 덩 덩 덩 기덕 퉁 덕 저 산 도깨비 날 잡아 갈 까



가 숨 소 리는 퉁 당 퉁 당 걸음아 —



날 살려 라 — 공 지 빠 지게 도 망 갔 네



옛이야기모임에서 자료를 만들면서

그저 생소한 것에 대해 배워볼까하는 작은 관심에서 공부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도서열어 읽고 이야기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리되어 글꼴을 맞게 되어 나오니 좋습니다. 조금은 보글보글한 게요 저의 마음처럼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방귀를 좋아하는 권명경

2년 동안의 결실이 맺어져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책이 여러 선생님과 아
이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우누이뿔 좋아하는 김정숙

98년 10월 경 옛이야기를 공부하는 교사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선생
님들이 여럿 바뀌었지만 4명이 고스란히 남아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서툰 공부였지만 작게 이 자료집을 내 놓습니다.
바람은 옛이야기의 가치를 알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길 바라며, 2000년에는 더 많은 선생님들
이 이야기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콩쥐팍쥐를 좋아하는 오운정

우리 아이들이 '세일러 문'이니 '포켓몬스터'니 이름도 어려운 만화만 보지 말고 우리 옛이야기를 들
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우리 아이들을 호랑이랑 도깨비랑 친구 만들어 주는 재미있
는 이야기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아찝는 호랑이를 제일 좋아하는 유은성

권하는 도서

1. 옛이야기의 매력 / 시공사
2. 옛이야기들려주기 / 보리
3. 전래동화의 이론과 실제 /
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 현암사
5. 한국구전설화 / 평민사

재미있는 옛이야기

발행처/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발행일/2000년 2월 12일

엮은이/옛이야기 공부모임